

제50회 전국도서관대회

공공도서관 발전 및 운영 활성화 세미나

일시 : 2013. 10. 24(목) 10:40~12:00

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203호



◀ 목 차 ▶

공공도서관의 국외자료(영어, 다문화) 서비스 연구 1

□ 발표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사서 최 하 영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전자자료 공동서비스 방안 연구 63

□ 발표자 /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사서 제갈 선희

소규모 농어촌 도서관 운영 모델 연구 95

□ 발표자 / 제주 안덕산방도서관 사서 정 미 숙

공공도서관의 국외자료(영어, 다문화) 서비스 연구

▣ 발 표 자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사서

최 하 영

공공도서관의 국외자료(영어, 다문화) 서비스 연구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사 서 최 하 영
정 백 영
방 인 영
이 재 진

◆ 목 차 ◆

I.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범위 및 방법

II. 공공도서관 국외자료 서비스 대상 및 자료실 현황

1. 수도권에 거주하는 나라별 외국인 현황분석
2. 수도권 소재 공공도서관 현황 및 국외(다문화)자료실 현황

III. 자료수집 및 분석

1. 설문지 배포 및 회수
2. 통계처리방법
3. 공공도서관 국외자료 예산 및 시설현황
4. 공공도서관 국외자료 구성 및 자료이용현황
5. 공공도서관 국외자료 수서 및 선정
6. 공공도서관 국외자료 관련/대상 프로그램 현황

IV. 공공도서관 국외자료 서비스 운영사례

1. 타도서관 서비스 운영사례
2. 미추홀도서관 서비스 운영사례

V. 공공도서관 국외자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

VI. 요약 및 결론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교과서에도 나오던 단일민족이라는 단어는 어느덧 희미해지고 우리나라도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다문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2012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수는 약 144만 여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0,948천명)를 고려할 때 2.8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결혼 증가, 외국인근로자의 유입 등 우리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것과 더불어 시대적 요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도서관의 서비스도 변화해야 한다.

도서관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나이, 인종, 지역, 종교, 성별, 학력 등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지식정보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내·외국인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공공도서관의 핵심자원인 자료서비스, 특히 국외자료(영어 및 다문화)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부분 공공도서관은 국내서 위주의 수서 및 내국인 위주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지역의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을 포용하는 도서관정보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게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에서는 2009년부터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현재 국외자료 서비스 수준과 앞으로의 서비스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국외자료(영어 및 다문화) 입수형태 및 자료서비스 제공현황을 분석·연구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수행기관이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연구범위는 인천광역시의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수도권(서울·경기도)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각 도서관의 외국인현황, 국외자료 연도별 구입비중, 국외자료 이용현황 분석(내·외국인), 국외자료 수서방향, 자료현황, 자료 활용을 통한 서비스 수준 정도 등을 상세히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국외도서 자료서비스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국외자료 서비스 전반에 관한 선행연구자료 및 기초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연구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국외자료 및 이용현황을 설문지, 방문 등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국외자료 실태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각 도서관의 수서 및 프로그램담당 사서를 대상으로 자료구입, 서비스에 대한 애로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요구사항을 들어보고자 한다.

II. 공공도서관 국외자료 서비스 대상 및 자료실 현황

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국외자료 서비스 대상을 고려하여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현황 및 수도권 공공도서관의 국외자료실 현황을 살펴보았다.

1. 수도권에 거주하는 나라별 외국인 현황분석

1) 체류외국인 현황분석

체류외국인 수가 2008년에 1,158,866명(2.34%)에서 2012년 1,445,103명(2.84%)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국외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표 1> 인구대비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명, %)

구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체류외국인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인구	49,540,367	49,773,145	50,515,666	50,734,284	50,948,272
인구대비 체류외국인비율	2.34%	2.35%	2.50%	2.75%	2.84%

* 인구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인용하였음.

* 출처: 한국. 법무부. 2012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72p.

2) 나라별 체류외국인 현황분석

나라별 체류외국인 수는 2008년에서 2012년도까지 중국인이 압도적으로 1위이다. 2012년도 인구수 현황을 보면 중국인이 698,444명, 2위인 미국인이 130,562명, 다음이 베트남인으로 120,254명을 차지하고 있다. 자세한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나라별 체류외국인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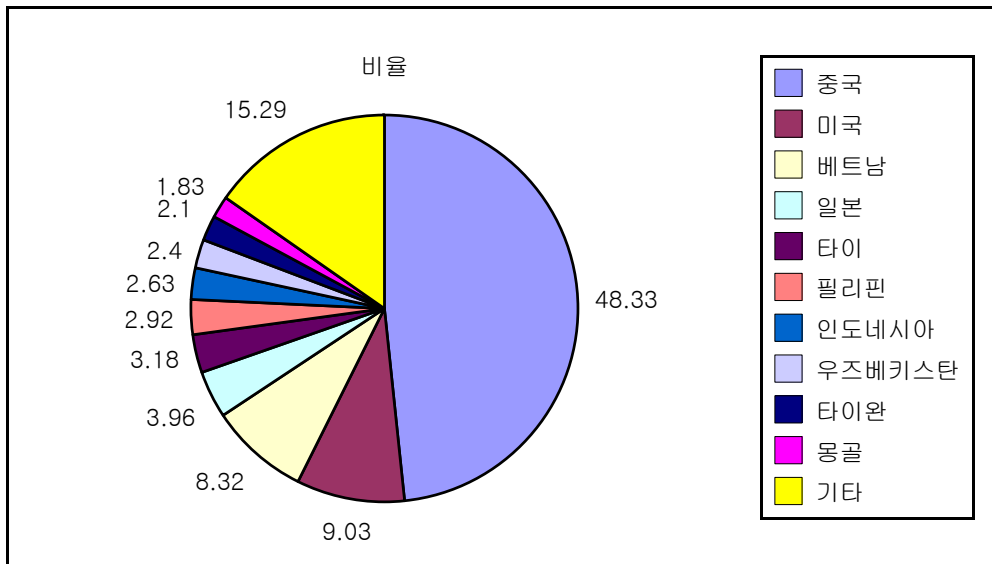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총계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중국	556,517	555,082	608,881	677,954	698,444
미국	117,986	122,659	127,140	132,133	130,562
베트남	84,763	90,931	103,306	116,219	120,254
일본	51,763	47,718	48,905	58,169	57,174
타이	45,198	44,701	44,250	45,634	45,945
필리핀	46,894	45,913	47,241	47,542	42,219
인도네시아	29,913	29,859	31,728	36,971	38,018
우즈베키스탄	21,569	21,249	25,895	29,742	34,688
몽골	32,206	30,674	29,920	28,634	26,461
타이완	26,977	27,062	24,760	26,316	30,413
캐나다	17,752	19,393	20,435	21,812	23,051
스리랑카	15,717	15,506	18,377	21,554	22,354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캄보디아	7,578	9,204	12,192	17,320	24,610
방글라데시	12,165	10863	12605	13465	13584
네팔	6,737	8,164	9,834	13,256	18,908
러시아	9,207	9,622	9,767	10,547	11,361
파키스탄	10,068	9,820	10,319	10,341	10,027
호주	6,971	7,446	8,469	9,711	10,093
인도	6,732	6,364	7,117	7,500	8,317
미얀마	3,730	4,555	4,565	6,479	9,218
영국	4,696	5,024	5,458	6,382	5,958
홍콩	3,987	4,518	3,742	5,398	5,958
기타	39,740	42,150	46,509	51,998	57,486

* 출처: 한국. 법무부. 2012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82p.

2012년도 체류외국인 비율 현황은 <표 3>와 같다. 중국(48.33%)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미국(9.03%)이 자리하고 있다. 기타 나라로는 캐나다,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3> 체류외국인 비율 현황



* 출처: 한국. 법무부. 2012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79p.

3) 수도권 등록 외국인 현황

또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의 분포현황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경기(30.9%), 서울(26.5%), 인천(5.1%)이고 이 중에서도 인구대비 외국인의 비율이 서울(2.42%)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수도권 등록 외국인 현황

(단위: 명, %)

행정구역별	인구	등록 외국인수	외국인 구성 비율	인구대비 외국인비율
전 국	50,948,272	932,983	100%	1.83%
서울특별시	10,195,318	247,108	26.5%	2.42%
경기도	12,093,299	288,251	30.9%	2.38%
인천광역시	2,843,981	47,305	5.1%	1.66%

* 자료기준일: 2012년 12월 31일

* 출처 : 법무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함.

2. 수도권 소재 공공도서관 현황 및 국외(다문화)자료실 현황

1) 수도권 소재 공공도서관 파악

이 연구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서 검색된 수도권 소재의 공공도서관(일반) 342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수도권의 공공도서관은 경기도 184개 기관, 서울특별시 109개 기관, 인천광역시 49개 기관이다.

2) 국외(다문화)자료실 운영 현황 분석

국외자료 서비스는 도서관 내 공간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 <표 5>는 설문결과를 반영한 국외(다문화)자료실 혹은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현황이다.

<표 5> 국외(다문화)자료실 운영현황

순 번	도서관명	소재지	자료실 확보	비 고
1	부천시립 꿈여울도서관	경기도	유	
2	아랑누리도서관	경기도	유	
3	용인 죽전 도서관	경기도	유	
4	의왕시글로벌도서관	경기도	유	
5	영통도서관	경기도		코너
6	오산시 청학도서관	경기도		코너
7	대화도서관	경기도		코너
8	경기도립발안도서관	경기도		코너
9	고양시 한뫼도서관	경기도		코너
10	느티나무도서관	경기도		코너
11	포곡도서관	경기도		코너
12	포천시립중앙도서관	경기도		코너
13	의정부 어린이도서관	경기도		코너
14	당동도서관	경기도		코너
15	화도도서관	경기도		코너
16	화성시태안도서관	경기도		코너
17	교문도서관	경기도		코너
18	금촌3동솔빛도서관	경기도		코너
20	화성시립봉담도서관	경기도		코너
21	파주시 조리도서관	경기도		코너
22	용인보라도서관	경기도		코너
23	강서영어도서관	서울	유	
24	정독도서관	서울	유	
25	은평구립도서관	서울	유	
26	동작도서관	서울		코너
27	종로도서관	서울		코너
28	광진구도서관	서울		코너
29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서울		코너
30	강동구립해공도서관	서울		코너
31	서울 동대문 도서관	서울		코너
32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인천	유	
33	인천 중앙도서관	인천	유	

순 번	도서관명	소재지	자료실 확보	비 고
34	연수어린이 도서관	인천	유	
35	미추홀도서관	인천	유	
36	갈산도서관	인천		코너
37	수봉도서관	인천		코너
38	율무도서관	인천		코너
39	부개어린이도서관	인천		코너
40	연수청학도서관	인천		코너
41	부평기적의 도서관	인천		코너
42	독정골어린이도서관	인천		코너
43	영종도서관	인천		코너
44	북구도서관	인천		코너
45	작전도서관	인천		코너
46	주안도서관	인천		코너
47	송림도서관	인천		코너
48	신석도서관	인천		코너
	합 계		11	36

설문조사결과처럼 국외(다문화)자료실을 운영하는 도서관보다 관련 코너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더 많다. 이중 인천중앙도서관, 정독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자료실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외(다문화)자료실을 개관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선 및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공공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등 이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국외(다문화)자료실을 설치하고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주민에게 모국정보를 제공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공모사업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내 다문화자료실 신규 설치 사업 부문에서는 자료실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을 포함하여 서가, 책상, PC 등 적정 소요 물자 지원을 하고, 공공·작은도서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프로그램 진행비, 강사료 등을 지원해 준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표 6>와 같다.

<표 6> 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현황

년 도	다문화 도서관 조성	문화교육프로그램
2009	2개관(충남 천안, 경남 김해)	12개관(서울 강동 구립 성내도서관 등)
2010	6개관(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전북, 전남)	16개관(부산 반송도서관 등)
2011	11개관(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30개관(서울 동대문도서관 등)
2012	11개관 (서울, 대구, 경기, 전북, 전남, 충남, 경남)	40개관(서울 은평구립도서관 등)
2013	9개관(코너3, 자료실4, 분관형2)	89개관(확정 63개관, 조건부 26개관)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 http://multiculture.dlibrary.net/boards/show/801/4203/ko_KR.do#business07

Ⅲ. 자료수집 및 분석

1. 설문지 배포 및 회수

국외자료 서비스 설문조사는 경기도 184개 기관, 서울시 109개 기관, 인천광역시 4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각 도서관 당 1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실시하였다. 2013년 8월부터 한 달간 우편, 전화, 직접방문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우편을 통한 설문지 회수율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소재지별로는 서울이 13개 기관(21.5%), 경기도가 27개 기관(41.5%), 인천이 24개 기관(36.9%)으로 나타났으며, 업무는 주로 수서 및 장서개발(78%), 자료실 총괄 및 운영(22%)을 담당하고, 사서 근무경력은 평균 89.92개월, 즉, 7년 6개월로 나타났다. 설문을 통해 국외자료 예산 및 시설부문, 자료구성 및 이용부문, 자료수서 및 선정부문, 국외자료 프로그램 부문 총 4부분으로 나눠 조사를 하였다.

2. 통계처리방법

조사를 위한 모든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PSS(PASW Statistics) 18.0을 통해 이루어졌다. 응답자의 기본적 인구통계학적인 일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와 해당 내용산출을 위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해당 개별 도서관의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하여 분석하였다.

3. 공공도서관 국외자료 예산 및 시설현황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외자료 서비스를 위한 예산확보 및 시설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1) 국외자료 예산 2) 국외(다문화)자료실 보유현황 및 인력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1) 국외자료 예산

국외자료(영어원서포함) 구입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 도서관은 30개관으로 절반 이상인 54%가 예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국외도서구입비는 주로 ‘자산취득비’ 예산항목으로 책정하고 있었다. 국외자료 구입비를 살펴보면 <표 7>과 같이 도서관 30개 기관의 응답분석결과 2011년에는 평균 천만원, 2012년에는 평균 천이백만원 수준으로 2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른 국외자료 구입권수는 2011년도에는 평균 896권, 2012년에는 평균 1,173권 수준으로 30% 증가하였다. 그리고 국외자료 구입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78.8%가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표 7> 자료구입비 및 구입권수

구 분	2011년	2012도
국외자료 구입비	318,007,164원	380,177,874원
국외자료 구입권수	26,878권	35,200권
국외자료 구입비(평균)	10,600,239원	12,672,596원
국외자료 구입권수(평균)	896권	1,173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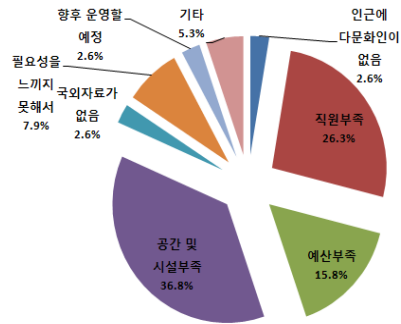
2) 국외(다문화)자료실 보유현황 및 인력

국외(다문화)자료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21%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의 79%보다 확연히 적었다. 운영도서관의 경우 평균 시설 및 운영실

정을 살펴보면 자료실 면적은 153m², 좌석수 39.4석, 운영시간은 총9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었으며 자료실 전담인력은 평균 1.8명으로 나타났다.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공간과 시설, 직원, 예산 부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표 8> 국외(다문화) 자료실을 운영하지 않는 이유

구 분	빈도(N)	비율(%)
공간 및 시설부족	14	36.8
직원부족	10	26.3
예산부족	6	15.8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3	7.9
국외자료가 없음	1	2.6
인근에 다문화인이 없음	1	2.6
향후 운영할 예정	1	2.6
기 타	2	5.3
합 계	38	100.0



* 복수선택가능

국외(다문화)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의 약 76%는 관련 자료를 타 자료실에 섹션으로/코너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4. 공공도서관 국외자료 구성 및 자료이용현황

국외(다문화) 자료실의 핵심은 다언어 장서를 제공하여 문화적 소수자 모두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외(다문화) 자료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다언어 장서 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의 흔적이며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는 1) 국외자료 구성, 2) 국외자료 이용현황, 3) 국외자료 이용률 증진을 위한 서비스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용률 상승을 위한 방안을 찾아보았다.

1) 국외자료 구성

국외자료(영어원서 포함)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조사해본 결과 59개 도서관이 국외자료를 소장하고 있었다. 언어별 다언어 장서 소장현황은 <표 9>와 같이 영어(73%), 일본어(10%), 중국어(8%) 등과 같은 순이며 단행본, 연속간행물, 비도서 자료 모두 영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의 언어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표 9> 다언어 장서 소장 현황

(단위 : 권)

연번	언어	단행본	연속간행물 (신문,잡지 등)	비도서 자료	기타 (전자자료 등)
1	영 어	238,357	128	1,418	547
2	중 국 어	26,173	4	106	-
3	일 본 어	30,136	7	171	-
4	베 트 남 어	12,759	1	15	-
5	필 리 핀 어	3,393	1	5	-
6	태 국 어	2,497	-	7	-
7	몽 골 어	2,175	-	5	-
8	기 타 언 어	9,492	-	58	-
	총 계	324,982	141	1,785	547

각 도서관 별 단행본 소장 현황은 <표 10>와 같다.

<표 10> 각 도서관 별 단행본 소장 현황(소장권수 순)

순번	도서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몽골어	기타	계
1	의왕시글로벌도서관	32,431	-	-	-	-	-	-	-	32,431
2	종로도서관	3,333	21,351	60	28	9	16	1	18	24,816
3	아람누리도서관	21,767	1,357	532	322	140	159	57	322	24,666
4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15,222	1,082	3,427	-	-	-	-	-	19,731

순번	도서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몽골어	기타	계
5	연수어린이도서관	6,510	371	822	6,510	-	-	158	297	14,668
6	광진구도서관	13,071	-	-	-	-	-	-	-	13,071
7	용인죽전도서관	-	145	9,249	431	258	67	-	271	10,421
8	영통도서관	6,656	216	669	722	204	152	186	597	9,402
9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1,026	188	1,732	1,334	518	884	467	2,886	9,035
10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	5,607	25	2,037	176	63	122	89	513	8,632
11	연수구어린이도서관	6,510	371	822	337	-	-	158	297	8,495
12	슬기샘어린이도서관	8,261	-	-	-	-	-	-	-	8,261
13	고양시한피도서관	7,963	-	-	-	-	-	-	-	7,963
14	인천중앙도서관	1,291	2,232	1,188	517	960	100	154	1,477	7,919
15	용인중앙도서관	7,358	-	-	-	-	-	-	-	7,358
16	의정부어린이도서관	7,036	-	-	-	-	-	-	-	7,036
17	경기도립중앙도서관	6,187	-	841	-	-	-	-	-	7,028
18	미추홀도서관	5,182	128	499	429	239	183	58	259	6,977
19	부천시립꿈어울도서관	6,039	-	-	-	-	-	-	-	6,039
20	고양시도서관센터 대화도서관	6,000	-	6	-	-	-	-	-	6,006
21	강서영어도서관	5,995	-	-	-	-	-	-	-	5,995
22	강동구립해공도서관	4,848	238	17	22	-	19	17	2	5,163
23	화성시태안도서관	4,652	121	120	87	35	90	-	2	5,107
24	영종도서관	4,268	50	106	98	83	113	59	105	4,882
25	용인보라도서관	4,611	-	-	-	-	-	-	-	4,611
26	정독도서관	1,707	405	988	238	283	92	84	508	4,305
27	경기도립발안도서관	4,182	-	-	-	-	-	-	-	4,182
28	화성시립봉담도서관	2,222	177	329	269	211	219	156	440	4,023
29	은평구립도서관	2,284	284	581	251	102	28	73	132	3,735
30	느티나무도서관	827	656	238	285	38	-	364	1,179	3,587
31	부평기적의도서관	3,586	-	-	-	-	-	-	-	3,586
32	인천광역시울무도서관	2,334	-	615	345	141	118	31	-	3,584
33	당동도서관	2,587	40	306	92	26	82	48	43	3,224
34	신석도서관	2,790	-	5	5	-	5	5	-	2,810
35	인천광역시수봉도서관	2,037	46	200	241	51	48	10	144	2,777
36	동작도서관	2,638	1	-	-	-	-	-	-	2,639
37	포천시립중앙도서관	2,460	-	-	-	-	-	-	-	2,460
38	주안도서관	2,061	43	28	10	22	-	-	-	2,164

순번	도서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태국어	몽골어	기타	계
39	오산시청학도서관	672	479	743	-	-	-	-	-	1,894
40	구로도서관	1,641	-	-	-	-	-	-	-	1,641
41	강일도서관	1,516	108	-	-	-	-	-	-	1,624
42	교문도서관	1,301	-	-	-	-	-	-	-	1,301
43	포곡도서관	1,196	-	-	-	-	-	-	-	1,196
44	갈산도서관	1,121	-	-	-	-	-	-	-	1,121
45	문래정보문화도서관	1,000	-	-	-	-	-	-	-	1,000
46	학나래도서관	980	-	-	-	-	-	-	-	980
47	연수청학도서관	755	-	-	-	-	-	-	-	755
48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700	-	-	-	-	-	-	-	700
49	화도도서관	700	-	-	-	-	-	-	-	700
50	송림도서관	680	-	-	-	-	-	-	-	680
51	부개어린이도서관	626	-	-	-	-	-	-	-	626
52	금촌3동솔빛도서관	544	-	-	-	-	-	-	-	544
53	파주시조리도서관	476	-	-	-	-	-	-	-	476
54	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	290	12	3	-	-	-	-	-	305
55	연천도서관	192	-	-	-	-	-	-	-	192
56	독정골어린이도서관	150	10	10	10	10	-	-	-	190
57	김포	104	-	-	-	-	-	-	-	104
58	작전도서관	100	-	-	-	-	-	-	-	100
59	대청공공도서관	74	-	-	-	-	-	-	-	74
	계	238,357	30,136	26,173	12,759	3,393	2,497	2,175	9,492	324,982

의왕시글로벌도서관이 국외자료 단행본 장서수가 32,431여 권으로 가장 많은 장서를 소장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8,000권 이상(20%), 3,000~4,000권 이하(9.8%)로 나타났다. 1,000권 이하로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은 14개관(24%)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문화인에게 제공되는 한국어 교육 자료를 소장한 도서관(36.5%)이 소장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보다 적었으며, 교육 자료는 한국어로 제공하는 도서관(78.3%)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육자료 외에는 영어 교육자료가 제공되었다.

2) 국외자료 이용현황

국외자료(영어원서 포함)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중에서 대부분의 도서관(93.5%)이 관외대출이 가능했다. 월 평균 국외자료(영어원서 포함) 대출권수는 100권 이내가

28개관(45.2%)으로 가장 많았고 700권 이상 대출되는 도서관(24.2%)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월 평균 국외자료(영어원서 포함) 내국인과 외국인 이용 현황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월 평균 국외자료(영어원서도 포함) 내국인과 외국인 이용 현황

내국인	빈도(N)	비율(%)	외국인	빈도(N)	비율(%)
100명 이내	36	60.0	10명 이내	48	81.4
100 ~200명 이내	4	6.7	10 ~50명 이내	9	15.3
200 ~300명 이내	5	8.3	50 ~100명 이내	1	1.7
300 ~400명 이내	5	8.3	200명 이상	1	1.7
400 ~500명 이내	1	1.7	합 계	59	100.0
600명 이상	9	15.0			
합 계	60	100.0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 평균 외국인 이용자수가 현저히 낮은 것을 볼 수 있었고, 국외자료(영어자료 포함) 이용률이 가장 높은 이용자는 중국인(29.0%)으로 나타났다. 그 외 미국인이 20.6%, 일본은 18.7%, 베트남 15.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성인(64.85%)이 국외자료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유아 및 어린이(39.07%), 청소년(12.47%) 순으로 나타났다.

3) 국외자료 이용 증진을 위한 서비스

내국인을 포함한 다문화인이 활발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근무 환경 혹은 거리상의 문제로 도서관까지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와 희망자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조사하였다. 하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는 도서관은 2개관, 희망자료 서비스 제공 도서관은 5개관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희망도서는 월 신청 가능한 도서는 평균 7.7권이며 처리 소요일수는 평균 일주일이었으며 정기구입 시 반영하는 도서관도 있었다. 그러나 찾아가는 서비스와 희망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며 앞으로

로 국외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많은 도서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공공도서관 국외자료 수서 및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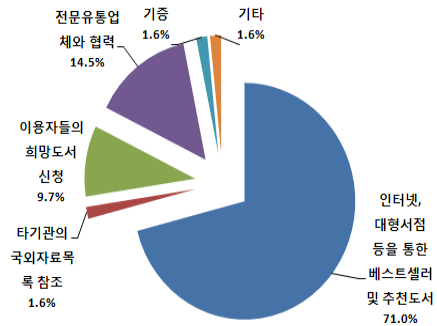
국외자료의 다양한 장서구성과 이용률 증진을 위해서는 수서 및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1) 국외자료 수서 2) 국외자료 선정에 대해 살펴 보았다.

1) 국외자료 수서

국외자료(영어포함) 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12>와 같이 인터넷, 대형서점 등을 통한 베스트셀러 및 추천도서를 참고하는 도서관이 44개관(71.0%), 전문유통업체와 협력을 통해 수서하는 도서관이 9개관(14.5%), 이용자들의 희망도서 신청을 통해 수서하는 도서관이 6개관(9.7%)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국외자료(영어포함) 수서 방법

구분	빈도(N)	비율 (%)
인터넷, 대형서점 등을 통한 베스트셀러 및 추천도서	44	71.0
전문유통업체와 협력	9	14.5
이용자들의 희망도서 신청	6	9.7
타기관의 국외자료목록 참조	1	1.6
기증	1	1.6
기타	1	1.6
합계	6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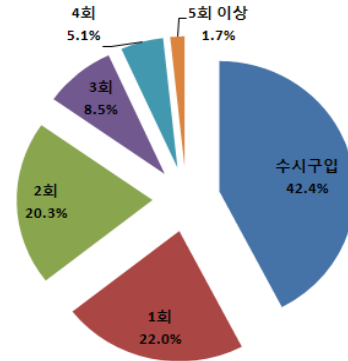


* 복수선택 가능

연간 국외자료 구입횟수에 대한 결과는 수서 구입하는 도서관이 25개관(42.4%), 연 1회 구입하는 도서관이 13개관(22.0%), 연 2회 구입하는 도서관이 12개관(20.3%)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조사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연간 국외자료 구입횟수

구분	빈도(N)	비율(%)
수시구입	25	42.4
1회	13	22.0
2회	12	20.3
3회	5	8.5
4회	3	5.1
5회 이상	1	1.7
합 계	5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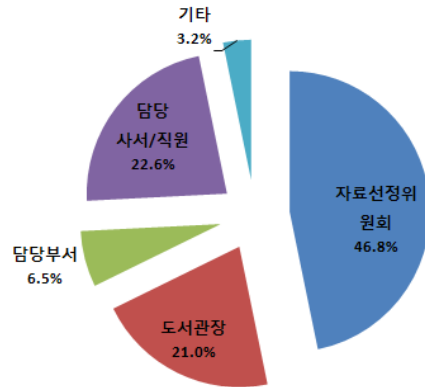
수서 담당자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외국어로는 영어(98.4%)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중국어(1.6%)로 조사되어 영어 외의 외국어 능력자가 상당히 적어 수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 국외자료 선정

국외자료를 선정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장서개발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결과 ‘장서개발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도서관이 23개관(36.5%)으로 마련하지 않은 도서관이 약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내 외국인 구성원들의 요구를 조사하는 도서관은 9개관(14.1%)로 낮게 조사되었다. 국외자료 선정은 주로 사서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국외자료 최종 선정 결정은 자료선정위원회로 진행하는 도서관이 29개관(46.8%), 담당사서 혹은 직원이 결정하는 도서관이 14개관(22.6%), 도서관장이 결정하는 도서관은 13개관(21.0%)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최종 국외자료 선정결정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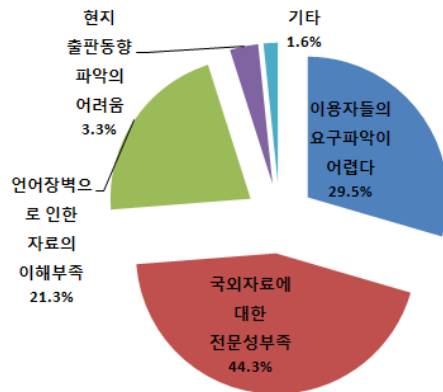
구분	빈도(N)	비율(%)
자료선정위원회	29	46.8
담당사서/직원	14	22.6
도서관장	13	21.0
담당부서	4	6.5
기타	2	3.2
합 계	62	100.0



국외자료 선정 시 가장 어려운 점을 조사한 결과 ‘국외자료에 대한 전문성부족’이라 선택한 도서관이 27개관(44.3%), ‘이용자들의 요구파악이 어렵다’고 대답한 도서관이 18개관(29.5%), ‘언어장벽으로 인한 자료의 이해부족’이 13개관(21.3%)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세한 조사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국외자료 선정 시 어려운 점

구분	빈도(N)	비율(%)
국외자료에 대한 전문성부족	27	44.3
이용자들의 요구파악이 어렵다	18	29.5
언어장벽으로 인한 자료의 이해부족	13	21.3
현지 출판동향 파악의 어려움	2	3.3
기 타	1	1.6
합 계	61	100.0



* 복수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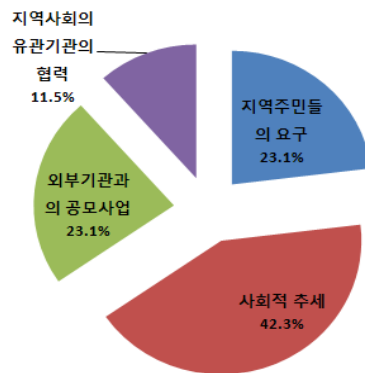
6. 공공도서관 국외자료 관련/대상 프로그램 현황

국외자료 관련/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이 26개관(40.6%)으로 제공하지 않은 도서관보다 다소 낮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된 배경은 <표 16>과 같이 사회적 추세 11개관(42.3%)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외부기관과의 공모사업으로 인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도서관은 각각 6개관(23.1%)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도서관이 3개관(11.5%)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외부/타기관 등 예산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도서관은 16개관(61.5%)으로 외부기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다문화 프로그램 개설 배경

구분	빈도(N)	비율(%)
사회적 추세	11	42.3
지역주민들의 요구	6	23.1
외부기관과의 공모사업	6	23.1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의 협력	3	11.5
합 계	26	100.0

* 복수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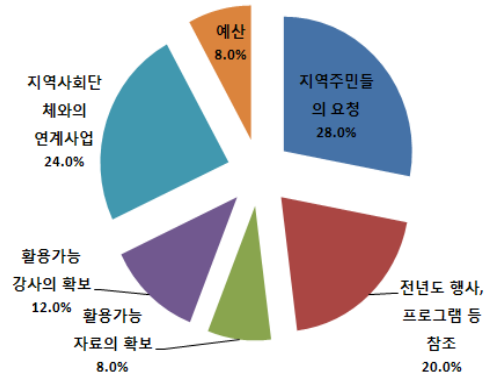


다음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선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이라 대답한 도서관이 7개관(28.0%)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회 단체와의 연계사업’ 6개관(24.0%), ‘전년도 행사, 프로그램 등 참조’ 5개관(20.0%), ‘활용가능 자료의 확보’ 2개관(8.0%), 활용가능 강사의 확보 3명(12.0%) 순으로 다문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도서관이 많음을 알 수 있었고 자세한 조사 결과는 <표 17>과 같다.

<표 17> 다문화 프로그램 계획 또는 선정 시 미치는 영향 요인

구분	빈도(N)	비율(%)
지역주민들의 요청	7	28.0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사업	6	24.0
전년도 행사, 프로그램 등 참조	5	20.0
활용가능 강사의 확보	3	12.0
활용가능 자료의 확보	2	8.0
예산	2	8.0
합 계	25	100.0

* 복수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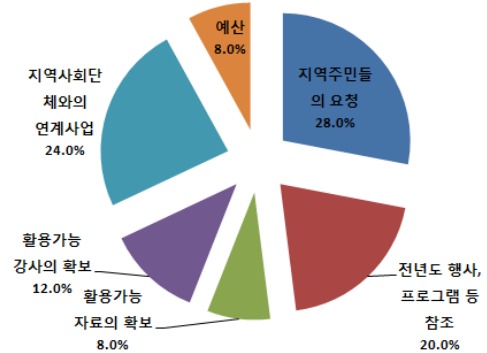


이렇게 계획 및 추진한 다문화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는 <표 18>과 같이 자녀교육 정보가 7개관(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책 관련(그림책 읽기, 도서전시 등) 프로그램 4개관(15.4%), 한국어 강습 프로그램 4개관(15.4%), 취미 및 교양 프로그램 4개관(15.4%)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후 평가를 하고 있는 도서관은 20개관(76.9%)이었으며 20개관 전체가 평가 내용을 다음 다문화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다문화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정보 종류

구분	빈도(N)	비율(%)
자녀교육 정보	7	26.9
책 관련 (그림책읽기, 도서전시 등)	4	15.4
한국어 강습	4	15.4
취미, 교양	4	15.4
한국문화 (음식,예절등)체험	2	7.7
컴퓨터 활용	1	3.8
생활 및 법률정보	1	3.8
기 타	3	11.5
합 계	26	100.0

* 복수선택 가능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조사한 결과, 14개관(53.8%)이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연계’라 답하였고, ‘인력확보(다문화관련담당자)’라 답한 도서관은 7개관으로 26.9%, ‘예산’이라 선택한 도서관은 3개관 11.5%, ‘담당직원의 전문성 및 이해’라 답한 곳은 2개관으로 7.7%를 차지하였다. 또한 국외자료(도서 및 비도서 등)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11개관(42.3%)으로 운영하지 않은 도서관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국외자료(도서 및 비도서 등)를 활용한 프로그램 사례는 다문화 인형극공연, 국외도서 읽어주기 프로그램 등이었으며 <표 19>와 같다.

<표 19> 국외자료(도서 및 비도서 등)를 활용한 대표적인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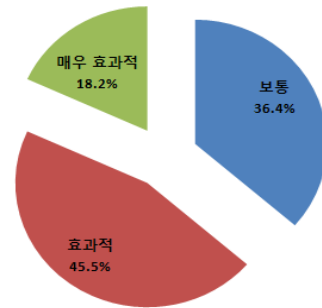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내용
다문화 인형극공연	세계 곳곳의 전래동화를 인형극으로 공연하여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
독서교실(여름/겨울)	다른 나라의 문화와 특징에 대해 배우고, 보물찾기 및 퀴즈 풀기 문화의 상대성에 대해 토론
타니마의 스토리타임	외국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영어책 읽어주기
Reading club	영어도서를 읽고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
다국어 그림책 읽기	한국어와 외국어로 번갈아 그림책을 읽어주는 행사
언니 영어와 친구할래!	영어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어린이대상)
여러 나라 책읽기	월 1회 대상: 누구나/CLC 이주민센터와 협력 CLC이주민센터의 결혼이주여성, 외국인노동자가 자원 활동가로 도서관을 방문하여, 모국어로 된 그림책을 읽어주고, 자기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이다. 많은 다문화프로그램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한국인답게 살도록 교육하는 것에 치중하는 현실에서 벗어나, 이 땅에 나고 자란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길 기대한다.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자녀독서지도	도서를 활용하여 독후활동 방법 제공 및 습득, 시연
영어스토리텔링 : 이야기로 떠나는 세계여행	영어 및 다문화 동화책 읽고, 토론 및 활동
일본어, 중국어 그림책 읽어주기	일본어, 중국어 원서를 외국인이 직접 읽어주고, 책의 내용과 관련된 외국 문화를 소개함

프로그램 진행 시 국외자료(도서 및 비도서 등)를 활용한 효과에 대한 결과를 조사한 결과 ‘매우 효과적’ 혹은 ‘효과적’이라 답한 도서관이 63.7%로 높은 수치를 보

였으며 '보통'이라 선택한 도서관은 36.4%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로 보아 국외자료를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0> 국외자료(도서 및 비도서 등) 활용 효과

구분	빈도(N)	비율(%)
매우 효과적	2	18.2
효과적	5	45.5
보 통	4	36.4
합 계	11	100.0



반면 국외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결과, 참여율 저조가 5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자료의 부족 21.4%이라 조사되었다. 또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중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참여자의 저조한 참석률 및 홍보의 어려움이 각각 2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비협조적인 참여자들의 태도(19.2%), 다문화관련 정보부족(11.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느끼는 어려움은 참여자와의 관계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에 관한 설문에서는 직원부족이라 답한 도서관이 12개관(26.7%), 인근에 다문화인이 없음을 선택한 도서관이 8개관(17.8%),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 답한 도서관이 8개관(17.8%), 예산부족이 7개관(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국외자료 부족, 공간 및 시설부족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도서관도 있었다.

IV. 공공도서관 국외자료 서비스 운영사례

1. 타도서관 서비스 운영사례

1) 정독도서관 운영현황

정독도서관은 도서관 인근에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집결해 있는 서울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고궁, 북촌 한옥거리, 인사동 등이 조성되어 내·외국인, 관광객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또한 다문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 서비스 환경구축과 공적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서비스, 다문화 교육지원의 필요성을 느껴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2012년 11월 다문화 자료실을 개관·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자료실은 정독도서관 2동 1층에 위치하여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평일 9:00~18:00, 주말 09:00~17:00 으로 운영한다. 시설현황은 124㎡(37.6평)이고 국외자료로는 약 4,300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인들의 자료이용 편의 제공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문화인 및 다문화가정 미성년자녀 등을 대상으로 무료택배대출반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라소개 코너도 설치하여 나라의 도서, DVD, 그림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독서를 통한 소통과 치유라는 독서프로그램인 다문화 여성을 위한 ‘다국맘 동화사랑 독서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결혼이주여성으로 주제별, 나라별 전래동화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기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다문화를 이해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 동화구연, 그림책 읽기 등 영어 스토리텔링을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근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각국대사관, 문화원, 글로벌센터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문화 자료수집, 프로그램교류, 전시공간 제공 등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홍보 강화를 위해 다문화자료실 입구에 다문화전시장을 상시 운영하고, 동화로 만나는 국가별 책 전시와 다문화 자료실 이용안내(다언어) 리플렛 및 홍보지를 각 유관기관에 분기별로 배포하고 있다.



[그림 1] 정독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전경

2) 인천중앙도서관 운영현황

인천중앙도서관은 다문화가족들의 이용증가에 따른 다언어 자료에 대한 요구로 다문화가족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정보뿐 아니라 자국의 도서를 통해 자국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으로 2010년 11월 다문화 자료실을 개관·운영하고 있다. 다문화자료실은 중앙도서관 2층에 위치하여 인천 다문화 인구의 출신 국가별 분포 및 지역의 요구조사를 토대로 장서기준을 마련하여 장서를 구축하고 기존의 참고·정기간행물실을 리모델링하여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다문화 정보 및 웹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코너를 구성하였다(<표 21>참조).

<표 21> 인천중앙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시설현황

코너		좌석수	비고
다국어도서 일반열람석		30석	
친사들의 책방	다국어도서 아동열람석	15석	
	책놀이터	35석	프로그램운영
웹정보 및 멀티미디어 코너		9석	인터넷 및 어학학습
정기간행물코너		12석	
다문화 전시관, 도서전시 코너			
계		101석	

* 출처: 도서관연구소 웹진 Vol. 83 (2013.3.15). 도서관현장발전우수사례 6p.



[그림 2] 인천중앙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전경

시설은 236.1㎡(71.5평)이고 국외자료 장서는 16개국 약 8,000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는 「천사들의 책방」이라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다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별 소품 전시, 주제별 다언어도서 전시, 다문화 도서전 등 다문화전시관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홍보 및 다문화가정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서관 이용 안내지를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3) 은평구립도서관 운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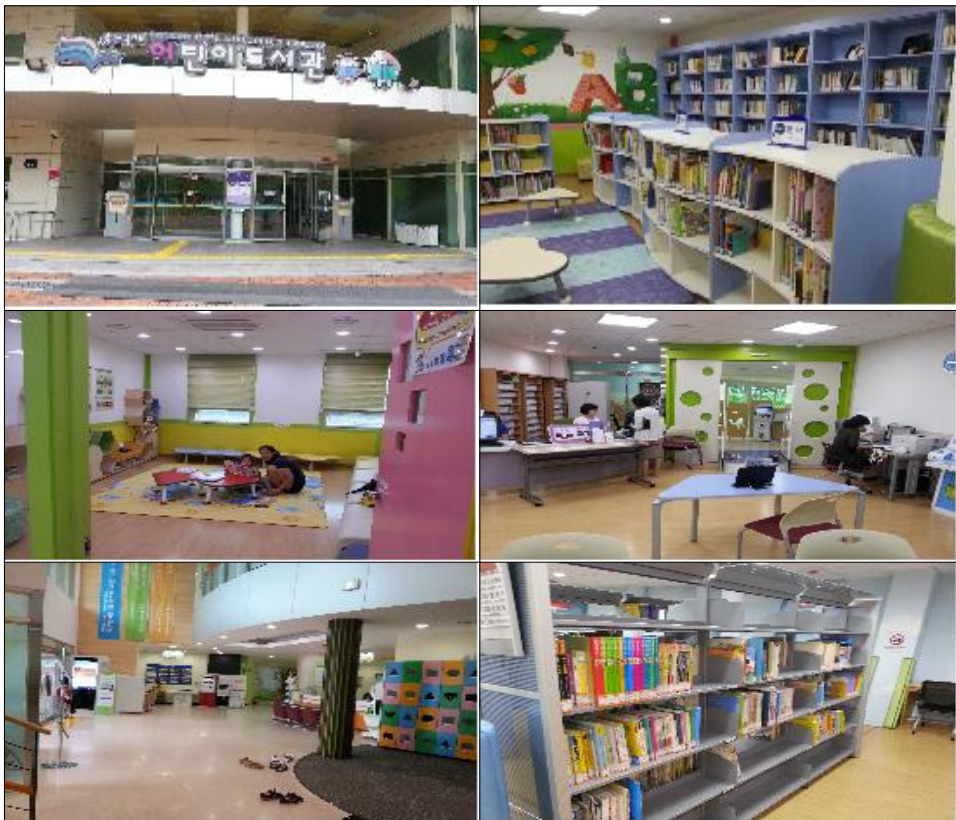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은평구립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2012월 1월 다문화 자료실을 개관·운영하고 있다. 총면적 217.2㎡(65.7평)에 국외자료 장서는 약 3,735권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1층에 다문화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과 통합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자료 및 다문화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과 다문화가족들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글강좌, 외국어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멘토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어깨동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3] 은평구립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전경

4)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운영현황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특성화된 외국어 자료를 통한 글로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책과 영어를 접목한 통합프로그램 운영으로 ‘국제도시’를 선도하고 글로벌 리더 양성의 초석이 되고자 2011년도에 설립하였다. 시설은 지상2층 연면적1,702.61㎡이고 국외자료 장서는 약 20,000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외국어자료(영어, 중국어, 일본어)의 특성화전략 및 지역의 인구 분포를 고려한 자료구성 비율 조정, 어린이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장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영어원서의 경우 early readers, middle readers, young adult readers 단계별로 나누어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서·독서연계 외국어 프로그램 강좌를 10개 이상 개설하는 등 내외국인 이용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림 4] 송도국제기구도서관 사진

2. 미추홀도서관 서비스 운영사례

1) 미추홀도서관 UN자료실(=다문화자료실) 운영현황

미추홀도서관의 'UN기탁도서관'은 인천시가 국제기구 및 정보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인천광역시가 2008년 3월 유엔 다그함마솔트 도서관에 인천 기탁도서관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여 2009년 1월 정식 UN기탁도서관의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이는 전국에서 10번째, 공공도서관으로서는 최초로 위탁받아 미추홀도서관 1층에 자료실 규모로 개관하였고 법적 성격은 UN함마솔트도서관(뉴욕)산하 기탁도서관이다.

개관 초기에는 UN기탁도서관의 성격에 맞게 UN관련 자료제공과 관련 프로그램(멘토와 함께하는 UN기탁도서관, 인권특강 등)을 진행하였으며 2010년 하반기부터는 다문화코너를 신설하여 18개국 다언어 자료와 다문화관련 프로그램(다국어그림책 읽기, 다문화체험교실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자료현황 및 시설, 운영현황은 <표 22>~<표 24>와 같다

<표 22> 미추홀도서관 UN자료실 시설현황

구 분	면적(㎡)	좌석수	이용시간		비 고
			평 일	토·일	
UN기탁도서관 (1층)	84	11	09:00~18:00		검색PC 5대 복사기 1대

<표 23> 미추홀도서관 국외자료 현황

(2013. 8. 31 기준)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계	7,774	62	66	61	1,300	205	236	71	1,501	4,001	271
유엔자료	637	1	2	0	620	0	2	0	0	0	12
한국어	157	0	0	0	157	0	0	0	0	0	0
영어	830	8	35	16	116	9	44	32	6	513	51
영어아동	4,352	4	0	21	162	126	24	8	1,476	2,408	123
중국어	499	43	14	1	76	30	47	6	4	233	45

	계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
일본어	128	0	0	6	15	1	13	15	0	69	9
베트남어	429	2	7	5	71	11	32	0	1	289	11
말레이어	44	0	0	0	0	0	0	0	0	44	0
인도네시아	150	1	2	10	11	16	17	4	1	82	6
태국어	183	3	5	1	13	8	26	1	11	105	10
필리핀어	239	0	0	1	34	2	22	1	1	176	2
몽골어	58	0	0	0	14	0	2	0	1	41	0
기타	68	0	1	0	11	2	7	4	0	41	2

<표 24> 연도별 이용현황

(2013. 8. 31 기준)

년 도	이용자수	대출자료수
2011	2,669	252
2012	10,147	10,343
2013.8	8,881	9,859

※ UN기탁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은 2010년 1월 2일부터 시작



[그림 5] 미추홀도서관 UN자료실(=다문화자료실) 전경사진

2012년 인천광역시 GCF(녹색기후기금) 송도 유치에 따라 미추홀도서관 내 UN기탁도서관은 송도 G-Tower로 확대 이전·운영할 계획이다. 2013년 11월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UN자료와 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문화관련 자료와 프로그램은 다문화자료실을 조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3년 다문화자료실조성사업’ 선정)

2013년 11월말에 개실 예정인 다국어자료실(가칭)의 운영방침은 다음과 같다.

■ 시설

- 126.9m²의 공간에 인테리어 공사, 관련가구 제작 및 설치예정
-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에 다문화관련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독서공간을 마련
- 다문화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도서관이용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장 서

- 국내서 : 세계문화와 관련된 책, 다문화를 주제로 하는 아동도서, 한국어 학습교재 구성
- 국외서 : 출신국가별 외국인 주민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구축 소설, 임신, 육아, 자녀교육,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도서 수서
- 그 외 다문화센터와 MOU 협약을 맺어 순회문고를 실시하고 다문화인들이 원하는 희망도서를 반영하여 수서

■ 인 력

- 다문화 업무 담당 전담인력 배치
: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자료실을 이용하는 외국들을 위해 적은 수라도 일종의 단골을 만드는 작업을 위해서 담당자 필요

2) 미추홀도서관 국외자료 예산 및 수집, 선정

미추홀도서관은 개관 이듬해인 2010년부터 국외자료를 구입 및 수집하였다. 국제화시대에 맞는 양질의 자료를 구비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와 다양한 장서구성을 위한 노력의 결과 2013년도 8월 말 기준 약 7,7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국외자료(영어포함) 기본수서 방향은 영어원서의 경우 최신 경향 및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모든 이용계층을 위해 자료를 구입하고 인천지역의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의 국가별 현황을 파악하여 각 나라별로 다문화도서를 구입하고 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이용추세 분석결과 및 희망도서 신청내역을 반영하고, 기존 연 1회 국외도서 구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도부터는 상·하반기 각 1회(총 2회) 도서를 구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과 동일하게 2013년도에도 전체 도서구입예산의 약 7%를 국외자료 예산으로 확보하고 자료선정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국외자료를 구입하고 있다.

3) 미추홀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사례(국외자료 외 프로그램도 포함)

미추홀도서관은 2010년부터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KT의 IT 서포터즈 팀과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한글 및 컴퓨터 교육,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 프로그램 연도별 운영사례는 다음 <표 25>와 같다. 이중 국외자료 서비스에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 도서관과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하다보니 국외자료를 활용한 프로그램 서비스는 전체 프로그램 중 약 30%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5> 미추홀도서관 다문화 관련 전체 프로그램 현황

연도	프로그램(사업) 명칭	주요 내용
2010	다문화 한글교실	이주민을 위한 한글 기초강의
	다문화 컴퓨터 교실	다문화 여성 대상의 컴퓨터 기초교육
	영어동화여행	영어그림책 스토리텔링을 통한 영어학습

연도	프로그램(사업) 명칭	주요 내용
2011	다문화 파워포인트 강사 양성반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교재 작성 등
	다문화 ITQ 한글 자격증반	ITQ한글 기본 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과정
	다문화 컴퓨터 기초교실	컴퓨터 기초 능력 배양
	다문화 ITQ 엑셀 자격증반	ITQ엑셀 기본 교육 및 자격증 취득과정
	다문화 한글교실	다문화 여성을 위한 한글 기초교실
	영어동화여행	영어그림책 스토리텔링을 통한 영어학습
	책으로 한국문화 들여다보기	다문화 여성을 위한 책 활용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다문화 인권교육	다문화 인권의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다문화 코너 설치	UN기탁도서관 내 다문화 코너 설치
	다문화 그림책·삽화 전시회	다문화 그림책·삽화 전시
2012	다문화 ITQ파워포인트 자격증반	ITQ파워포인트 기본교육 및 자격증 취득과정
	다문화 IT경진대회반	IT엑셀 기본 교육 및 자격증 취득과정
	다문화 ITQ엑셀 자격증반	ITQ엑셀 기본 교육 및 자격증 취득과정
	다문화 컴퓨터 기초반	컴퓨터 기초 능력 배양
	다문화 엑셀 기초반	엑셀 기본 교육 및 자격증반 대비과정
	영어동화여행	영어그림책 스토리텔링을 통한 영어학습
	다문화자녀컴퓨터	중도입국자 자녀를 위한 컴퓨터 기초교실
	나와 너 책으로 부대끼기	다문화자녀 대안학교와 연계한 독서프로그램
	UN기탁도서관 영어도서 이동	다문화 코너에 영어도서 추가
	신간도서 코너 설치	다문화 코너 내에 신간도서 코너 설치
2012 ~ 2013	다문화 체험 교실	다문화안내 및 체험기회 제공
	다국어 그림책 읽기	다언어의 그림책 스토리텔링 및 독후활동
2013	다문화 ITQ엑셀 자격증반	ITQ엑셀 기본 교육 및 자격증 취득과정
	다문화 컴퓨터 기초교실	컴퓨터 기초 능력 배양
	영어동화여행	영어그림책 스토리텔링을 통한 영어학습

(1) 한글교실

2010년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한글 기초강의를 진행하였다. 한글 읽기와 쓰기, 말하기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총 12회 252명이 참여하였다. 2011년에도 다문화 한글교실을 진행하여 총 16회 213명이 참여하여 한글교육에 대한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2) 지식나눔 IT 강좌

2010년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의 컴퓨터 기초 교육을 시작으로 엑셀, 파워포인트, 자격증 대비반 등 다양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이 2013년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인천 KT IT 서포터즈팀의 IT 지식나눔 활동과 연계한 컴퓨터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다문화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도서관을 찾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책으로 한국문화 들여다보기

‘책으로 한국문화 들여다보기’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책을 활용한 창작 활동,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2011년 9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북아트, 독서지도 전문 강사의 책과 연계한 창작활동과 인천 예절원에서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민족적·언어적·문화적 소수자가 된 다문화가정 여성들에게 책과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정체성을 확립 및 새로운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표 26>미추홀도서관 운영내용

회차	일 자	활 동 도 서	내 용
1	9.19	지도와 세상, 『우리나라 지도 그림책』	우리나라 특산물 지도 책 만들기(북아트)
2	9.26	김향금, 『아무도 모를거야 내가 누군지』	양반탈 만들기(한지공예)
3	10. 5	-	한국의 차와 음식
4	10.12	-	한복 예절과 음식
5	10.17	오시하라 유즈루 외, 『세계의 어린이』	세계 각국 의상 책 만들기(종이접기&북아트)
6	10.24	권정생, 『강아지똥』, 길벗어린이,	동화책 주인공 만들기(클레이아트)
7	10.31	이일수, 『이 놀라운 조선천재 화가들』,	조선시대 3대 화가(북아트)

회차	일 자	활 동 도 서	내 용
8	11. 7	동시	한글 들여다보기
9	11.14	정하섭, 『이 소리 들리니』, 길벗어린이,	한국의 그림 들여다보기
10	11.16	-	가족예절과 음식
11	11.21	정하섭, 『열 두 띠이야기』, 보림,	한국의 열 두 띠 알아보기
12	11.23	-	식사예절과 전 부치기
13	11.28	햇살과 나무꾼, 『마루랑 온돌이랑 신기한 한옥 이야기』	한국의 옛집 들여다보기
14	12. 5	이선영, 『사시사철우리놀이 우리문화』,	한국의 놀이 들여다보기



한국의 옛집 들여다보기



전 부치기

[그림 6] 미추홀도서관 책으로 한국문화 들여다보기

(4) 중도입국자 자녀를 위한 컴퓨터 기초교실

KT IT 서포터즈와 연계하여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중도입국자 자녀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중도입국자 자녀를 위한 컴퓨터 기초교실을 운영하였다. 다문화자녀 대안학교인 새꿈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14일부터 총 10회 153명이 참여하였다. IT 교육을 통해 정보격차의 해소와 중도입국자 자녀들의 원활한 국내정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컴퓨터 교육실이 마련되어 있는 미추홀도서관으로의 방문을 통해 중도입국자 자녀들의 도서관 이용 유도 및 독서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하였다.

<표 27> 중도입국자 자녀를 위한 컴퓨터 기초교실 운영내용

회차	일시	교육내용
1	03.14	오리엔테이션
2	03.21	컴퓨터 기초, 마우스 다루기, 키보드 한글 익히기
3	03.28	한글 프로그램으로 글자 입력하기
4	04.04	예쁜 글자 모양으로 자기소개 하기
5	04.18	초대장 만들기
6	05.02	인터넷 기초
7	05.09	정보검색 사이트 알아보기
8	05.23	엑셀 기초
9	05.30	엑셀 함수 배우기
10	06.20	프레지(PREZI) 배우고 익히기



한글 기초 과정



엑셀 기초 과정

[그림 7] 중도입국자 자녀를 위한 컴퓨터 기초교실 사진

(5) 다문화 청소년 프로그램 : 나와 너, 책으로 부대끼기

미추홀도서관은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나와 너, 책으로 부대끼기’를 진행하였다. 2012년 10월16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책과 다양한 게임,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마음 다독이기 프로그램과 옛 이야기를 통한 한국 전통 문화 이해, 동화 및 동시를 매개로 한 어휘력 신장 및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도입국자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총 15회 동안 153명이 참가하였다. 책을 매개로 하는 소통 및 문화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결혼으로 중도입국자녀들이 겪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어주

고 다문화 자녀의 효과적인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적 정서적 분야에 걸쳐 골고루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독서문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표 28> 다문화 청소년 프로그램 : 나와 너, 책으로 부대끼기 운영내용

회차	일시	교육내용
1	10.16	관계 형성을 위한 셀프 리더십
2	10.19	손 큰 할머니의 만두 만들기 책을 읽고 만두 만드는 법을 익힌 후 직접 만두를 만들어 빚어보고 먹는 체험활동 하기
3	10.23	나를 파악하기
4	10.26	아씨방 일곱 동무에 나오는 바느질 도구를 소개하고 도구를 이용하여 바느질 체험하기
5	10.30	집단놀이치료
6	11.02	한글 단어퀴즈
7	11.06	나의 장점과 단점 이야기하기
8	11.09	애국가를 불러보고 한글로 적어보기
9	11.13	마음열기 : 낯선 환경에서 마음열기
10	11.16	한국 전통 책 만들기
11	11.20	틀린게 아니야 다른 거야 : 서로의 차이점 파악하고 이해하기
12	11.23	나만의 티셔츠 만들기
13	11.27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를 그려 속마음 알기
14	11.28	한국음식 만들기
15	11.30	우리나라 떡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나누어 먹기



관계 형성을 위한 셀프 리더십



만두 만들기 체험

[그림 8] 중도입국자 자녀를 위한 컴퓨터 기초교실

(6) 세계는 내 친구 ‘다국어 그림책 읽기’

미추홀도서관은 2010년 인천광역시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와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한 후 2011년도부터 미추홀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공언어 능력을 재능기부 받아 ‘세계는 내 친구 다국어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어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및 다국어 스토리텔링 후 다양한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이 활동을 통하여 아이들이 도서관에 익숙해지고 다언어에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정의 어린이들에게는 한국어에 친숙해지는 자연스러운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진행된 내용은 <표 29>와 같다.

<표 29> 세계는 내 친구 ‘다국어 그림책 읽기’ 운영내용

연번	날짜	참가인원	언어	그림책	독후활동
1	‘12. 8. 12	23	영어	We’re going on a bear hunt	영어 동요, 퀴즈
2			한국어	When sophie gets angry-really, really angry	영어 동요, 퀴즈
3	‘12. 8. 19	36	일어	はじめてのおつかい	심부름 역할극
4			한국어	ママ, あててみて	다루마상가코론다 놀이
5	‘12. 8. 26	44	중국어	大衛上學去	중국어 숫자 배우기, 짝짓기 놀이
6			한국어	我有多愛你	중국 동요 및 율동, 수건돌리기
7	‘12.10. 28	30	중국어	云朵面包	생활 중국어 배우기
8			영어	구름빵	일본어로 얼굴 만들기
9	‘12. 11. 4	36	일본어	The story of the little mole who knew it was none of his business	동물 역할극
10			한국어	Jeombak, Mon petit frere	불어 동요 배우기
11	‘13 . 4. 7	20	일국어	토끼의 의자	캐릭터 역할극, 자리 뺏기 놀이
12		24	중국어	The Monster of Palapala Mountain	괴물 만들기, 괴물잡기놀이
13	‘13 . 6. 9	15	중국어	Silly Billy	걱정인형 만들기
14		15	영어	Mooncake	매직북 만들기
15	‘13. 8. 4	24	중국어	장바구니	장바구니 만들기



[그림 9] 세계는 내 친구 '다국어 그림책 읽기' 사진

(7) 다문화 체험 교실

다문화 체험 교실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다. 몽골, 베트남, 중국 등 다문화 강사가 자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인사말, 문화, 예절 등을 소개하고 소품을 활용하여 해당 국가를 간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한 아이들은 직접 전통의상을 입어보고 전통 놀이를 체험하며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초등학생 및 학부모에게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수용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스럽게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림 10] 다문화 체험 교실 사진

(8) 다문화 인권 교육

다문화 공생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인 인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상을 초등학생, 성인으로 나눠 눈높이에 맞게 강연을 진행하였다. 초

등학생 대상으로 ‘다문화 인권나무 만들기’ 등의 미술활동을 통해 다문화 인권에 대한 ‘열린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성인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의 자녀교육법’ 등의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그림 11] 다문화 인권교육 사진

(9) 다문화 코너 설치

다문화 사회로의 빠른 전환에 발맞춰 미추홀도서관은 2010년 중국, 베트남 등 국외도서 291권을 구입하여 다문화 코너를 설치하였다. 이 후 꾸준한 도서 구입과 영어도서 추가로 2013년 영어 5,034권, 중국어 499권, 베트남어 428권 등 국가별 다언어 자료를 구비하여 다문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간도서 코너를 설치하여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0) 다문화 그림책·삽화 전시회

한국 최초 BIB 2011 그랑프리·황금사과상을 수상한 보림출판사 창작 그림책 전시회를 통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도서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미추홀도서관 내 전시공간을 활용하여 2011년 12월 한 달간 전시하였다. 전시작품(도서전시+ 그림전시)으로 보림 저작권 수출 그림책 『비가 오는 날에...』 등 32권, 『노란 우산』 등에 대한 삽화 2점씩 총 58점이다. 그림책·그림삽화 전시목록은 <표 30>과 같다.

이번 다문화 그림책·삽화 전시회를 통해 지역·나이·도서관 회원 여부를 불문하고 도서관을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다문화 그림책 및 삽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내국인에게도 서로 다른 언어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그림책과 함께 삽화를 바로 감상할 수 있어서 감상 후 직접 책을

읽고 싶은 동기 유발과 외국에서도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창작 그림책전시를 통해 우리 문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표 30> 그림책·그림삽화 전시목록

번호	도서명	글/그림	수출국가
1	비가 오는 날에...	이혜리	스위스, 독일, 멕시코, 일본
2	노란 우산	류재수	미국, 벨기에, 중국, 일본
3	지하정원	조선경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대만
4	감기 걸린 날	김동수	프랑스, 일본, 대만, 그리스
5	달려 토토 (BIB 2011 그랑프리)	조은영	프랑스
6	어느 날 (BIB 2011 황금사과상)	유주연	프랑스
7	세상을 담은 그림 지도	김향금/최숙희	프랑스, 스웨덴
8	산에 가자	이상권/한병호	프랑스, 일본
9	나의 사직동	김서정/한성옥	일본
10	우리 집에는 괴물이 우글우글	홍인순/이혜리	프랑스
11	우리 가족입니다	이혜란	중국, 대만
12	달려	이혜리	스위스
13	하은이와 비토리아	이현경	프랑스, 폴란드
14	나무는 알고 있지	정하섭/한성옥	대만
15	숲으로 간 꼬끼리	하재경	프랑스
16	일요일 아침 일곱 시에	김순이/심미아	스페인
17	명희의 그림책	배봉기/오승민	스위스
18	오늘은 우리 집 김장하는 날	채인선/방정화	일본
19	구렁덩덩 새 선비	이경혜/한유민	프랑스
20	팔죽 할머니와 호랑이	조대인/최숙희	이란
21	도깨비 방망이	정차준/한병호	일본
22	열두 띠 이야기	정하섭/이춘길	스위스
23	단군 신화	이형구/홍성찬	베트남

번호	도서명	글/그림	수출국가
24	백두산 이야기	류재수	일본
25	누구 그림자 일까?	최숙희	멕시코, 중국
26	엄마를 잠깐 잃어버렸어요	크리스 호튼	영국, 미국, 캐나다 등
27	엄마랑 뽀뽀	김동수	일본
28	열두 띠 동물 까꿍 놀이	최숙희	중국
29	개구리네 한술밥	백석/유애로	일본
30	진짜 별이 아닌 별이 나오는 진짜 이야기	오카다준/윤정주	일본
31	꿈꾸는 우리 민화	윤열수	폴란드
32	하늘 열리고 땅 열린다	이수자/박성완	일본

※ 1~29번 그림책 삽화(아트프린트)진시, 1권당 2점씩 총58점

※ BIB = 브라티슬라바 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

(11) 영어동화여행

영어동화여행은 6~7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선별된 영어 그림책을 바탕으로 생생한 영어 그림책 스토리텔링, 영어노래와 게임, 즐거운 놀이 등을 통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영어로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재미있게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여자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높아 2010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개설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 상반기 영어동화여행의 세부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영어동화여행 교육내용

회차	일시	도서명	교육내용
1	3.4	Everyone poops	소화와 배변과정 이해하기
2	3.11		
3	3.18	The hidden alphabet	알파벳 이해하기
4	3.25		
5	4.1	If big can I can	신체활동 영어로 이해하기
6	4.8		
7	4.15	Splat the cat	사랑을 표현하는 법, 협동의 힘 이해하고 실천하기
8	4.22		
9	4.29	Red bean granny and the tiger	팥이 자라는 과정 이해하기
10	5.6		
11	5.13	Tooth faary	건강한 치아를 위한 습관 알아보기
12	5.20		

V. 공공도서관 국외자료 서비스 활성화 방안

공공도서관에서 국외자료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료부분, 시설부분,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이용자 중심의 국외자료 서비스 방향 등을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료적 측면

1) 국외자료 장서확충

국외자료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필요한 부분은 국내서 외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원서 및 이중 언어로 번역된 국외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다수 국가의 도서를 구입하여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지역육구와 해당 지역의 외국인 거주현황을 토대로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 설문조사결과 영어 원서의 경우 자녀교육을 위한 아동 원서위주의 학습자료를 많이 선호하고 이용률이 높는데다 외국인 이용률보다는 내국인들의 이용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국외자료 중 상당부분을 영어원서가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외자료는 내외국인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장서의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입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지역별·국가별 외국인의 증가를 예측하여 장서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장서 확충을 위해 도서(인쇄자료) 뿐 아니라 시청각자료(비도서) 부분까지도 구비하여야 한다. 도서(인쇄자료)보다 외국인들의 관심과 흥미를 더 이끌어 낼 수 있는 각국의 영화, 음악, 다큐멘터리 등 다양하고 유익한 자료를 확보하여 제공하면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리고 이미 발간된 국내도서를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한 도서자료와 내외국인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이중 언어 도서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중 언어로 발간된 도서가 많지 않은 현실이지만 한국문화와 외국문화를 함께 이해하고 편견 없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2) 국외자료 선정

국외자료를 수서·담당하는 사서는 자료 선정에 있어 언어의 한계, 자료정보의

부족 등의 이유로 국내서 선정보다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정보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국외자료를 수서할 때 도서관과 연계된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그 지역의 요구조사·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장서구성 및 자료서비스 개발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용자 중심의 희망도서, 출신국가별 외국인 주민수를 고려하여 수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주민 자원봉사자나 다문화 관련단체의 협조를 통해 자료선정에 적극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이 같이 유관기관, 이주민, 다문화 관련단체의 협조 및 참여를 유도하면 장서 선정, 개발 및 구축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

영어원서의 경우 생산과 유통에 있어 자료입수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아시아권 국가들과 러시아의 경우 연간 도서생산량이 낮아 출판문화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출판의 양과 질, 출판유통의 문제로 자료 입수에 어려움이 많다. 또한 영어 외의 언어로 구성된 도서의 경우 자료의 이해부족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설문조사 결과처럼 국내의 서점이나 희망도서 신청, 다문화자료 공급업체를 통해서 주로 자료를 입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대행사를 통해 다문화 자료를 입수하면 업무부담의 경감, 입수기간 단축, 예산집행편리 등의 장점도 있지만 대행업체의 자료입수과정의 신뢰성 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선별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도 다문화 책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어 한권의 책에 한국어와 타국어가 모두 포함된 이중언어 도서를 제작하기도 하는데 서로의 문화에 대해 폭넓은 시각으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국내출판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3) 희망도서 활성화

국외자료 수서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나라 언어의 이해부족과 출판경향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용자들의 희망도서를 수서에 반영하면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 장서확충에도 상당부분 도움이 된다. 영어원서의 경우에도 학부모들의 희망도서 신청(부록2참조)으로 자녀 언어학습을 위한 딸림자료가 있는 도서를 많이 입수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의 구입여건이 국내도서처럼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희망자료가 입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대부분 정기수서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4) 타기관과의 정보자원 활용 및 교류

한정된 예산으로 장서확보가 어렵다면 국내 대표적인 경기도사이버다문화도서관¹⁾에서 제공하는 도서정보 및 전자책, 국립중앙도서관²⁾에서 제공하는 각종 다문화 자료 및 정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배포하는 다문화 총서(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영어로 번역)를 각 공공도서관에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

국외자료의 확보에 있어 예산의 부족 및 자료선정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의 도서관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도서를 수집할 수 있다. 인천시 중앙도서관의 경우 2010년부터 필리핀 국립도서관과 업무체결, 중국 대련 개발구도서관 및 한국국제학교와의 도서교류 등을 통해 자료를 교환하고 있다. 또한 주한대사관, 문화원, 글로벌센터 등의 협조를 통해 그 나라의 자료 및 소장품 등을 기증받아 운영하면 도서관 입장에서는 품질이 증명된 자료 확보 및 예산절감효과가 있고, 이용자에게는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5) 택배 서비스

도서관을 찾아오기 힘든 다문화인 및 미성년가족 등을 대상으로 국외자료의 무료택배대출·반납 서비스를 운영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볼만하다. 정독도서관의 경우 연중 무료택배 대출반납서비스를 실시하여 꾸준한 이용을 보이고 있었다.

6) 국외자료 특화도서관

인천광역시 부평구와 경기도 시흥시의 경우 지역 내 공공도서관에서 각각 국외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접근성이 높고, 이용률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을 국외자료를 구입·활용하는 특화된 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가장 필요한 곳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여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조로 특화도서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어 있다.

1) 사이트 <http://global.library.kr/Korea>

2) 사이트 <http://multiculture.dibrary.net/boards/show/205/3203/0.do>

만약 도서지원이 필요한 경우 특화도서관의 자료를 순회문고의 형식으로 타 도서관에 지원하여 자료 집중으로 인해 이용자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또한 자료와 이용자들의 이목을 특화도서관에 집중하여 홍보를 통한 이용률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시설적 측면

국외자료를 관리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자료실 구성이 중요한데 설문조사결과처럼 타 자료실과 구분하여 국외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도서관은 21%를 차지했다. 단독 다문화자료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외자료 제공은 물론 국가소개, 도서소개 등 다문화 전시도 병행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프로그램실을 별도 공간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 진행은 물론 다문화 가족들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타 자료실과 분리 운영을 하면 국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하고 외국인들에게 보다 친숙한 분위기의 장소를 제공하여 그들의 친목도모를 유도하고 도서관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전시를 병행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확대시킬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도서관은 국외자료를 따로 비치할 공간이 부족하거나 인력절감을 위해, 자료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어린이자료실과 같은 공간 내에 국외자료에 관한 코너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도서관이 79%에 달했으나 자료실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그중 75.5%가 관련 코너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문화자료실을 어린이자료실과 같은 공간 내에 구성하여 운영하면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이 어린이자료실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다문화자료실 내에 학습위주의 영어원서를 비치함으로써 어린이 및 성인들의 접근 및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이 모든 시민과 어우러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결국 다문화자료실과 타자료실을 함께 구성하는 것도 소장 자료를 연계하여 활용하고 지역 주민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해나가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볼 수 있다.

3.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1) 순회문고 등 운영

국외자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외국인들은 도서관에 대한 인식부족 혹은 접근성의 문제에 부딪혀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모이는 글로벌서비스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제교류센터 등을 파악하고 협력관계를 맺어 순회문고, 이동문고 등을 통해 자료대출 등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도서관 홍보뿐 아니라 자료 이용률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독도서관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한대사관, 문화원, 글로벌센터 등을 파악하여 지역사회 교육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영통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중국 및 동남아시아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센터나 도서관에 순회대출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 인력자원 활용방안

국외자료를 이용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담당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담당자에게 다문화 이해와 다언어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다문화 자원봉사자 혹은 우리나라의 대학 및 외국어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인력자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사서 중 각국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도 생각해 볼만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을 고려해야 한다. 외국인 고용 사례를 소개하면, 인천광역시 중앙도서관에서는 2013년부터 이주 여성 2명(중국, 베트남)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여 다언어 도서 및 안내물 번역, 다문화가정 도서관 이용안내, 다국어 책 읽어주기 등 업무를 맡기고 있다.

3) 지역 내 공공도서관 협력방안

인천 갈산도서관의 경우 외국인 이용자가 거의 없으므로 국외자료 서비스는 내국인들의 영어교육에 관한 자료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부평

구립도서관 6개 중 청천도서관을 중심으로 다문화자료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국외자료 서비스 혹은 프로그램을 분산 운영하기보다는 지역 중 중심 도서관을 지정하여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다. 또한 시흥시 도서관의 경우 정왕어린이도서관과 대야어린이도서관에서 주로 국외자료를 구입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 내 중심 도서관을 정해 국외 자료수집 및 상호대차 서비스 등을 마련하여 홍보 및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4. 이용자 중심의 국외자료 서비스 방향 제시

1) 이용자 및 사서 인식개선 프로그램

국외자료 서비스 제공에 앞서 도서관은 다문화사회에 대해 먼저 이해하고 앞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선 도서관 근무자 및 내국인 이용자들에게 열린 태도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다문화를 바라보는 인식개선을 위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도서관 이용교육 및 견학, 다문화 체험교실 등을 제공해야 한다.

2) 홍보

자료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의 위치 및 장서, 각종 프로그램 등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외자료실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부족하다. 또한, 전국 도서관 29곳에 설치한 다문화 자료실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대책으로 정부가 매년 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4년째 진행되고 있는 공공도서관 다문화 자료실이 실상 다문화인들의 이용은 낮은 것으로 보도³⁾된 바 있다. 이는 접근성과 홍보의 문제, 정보교류의 미흡을 탓할 수 있다.

이에 공공도서관은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소식지 및 지역기관과의 협력(홈페이지, 전단지), 소셜네트워크 활용 등을 통해 홍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추홀도서관에서는 UN기탁도서관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여 UN기탁도서관 내 설치한 다문화 코너 및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다언어로 된 이용안내 책자, 도서관 가입신청서, 홈페이지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 같은 서비스는 다문화인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3)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0420423021950.htm>

도서관의 소식 등의 홍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같이 다언어로 번역하여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나 번역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통·번역서비스를 도서관 이용안내, KOLAS 회원가입절차, 택배대출회원가입신청서 등 번역지원을 받아 언어장벽의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 안전행정부 국제행정발전지원관에서는 2013년부터 비영어권 통·번역 지원서비스를 실시하여 무료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는 정부 각 기관과 비영어권 국가와의 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해당국의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인재의 필요성이 증가되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아랍어 6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어 도서관에서는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이 외에도 프로그램을 통해 국외자료를 홍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추홀도서관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세계는 내 친구 다국어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외자료를 홍보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활용된 그림책은 이용자가 예약하는 인기도서가 된다. 이 같이 국외자료를 이용한 프로그램 진행 후 같이 읽으면 좋은 도서 리스트를 배포하면 더욱 효과적인 홍보가 될 수 있다.

3) 국외자료를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방안

도서관에서 다문화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 참여율 및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센터나 다문화지원센터 등의 프로그램과 겹치는 부분이 발생된다. 이에 공공도서관의 성격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도서전시, 이중 언어 도서 활용하여 그림책 읽어주기,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와 외국의 전래동화 읽어주기 등을 통해 내외국인이 함께 문화를 이해하고 만남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자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단기간 안에 많은 참여와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꾸준하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본다.

VI. 요약 및 결론

본 국외자료 서비스 연구의 설문지 결과에 따른 사서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1) 국외자료 서비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많아, 어렵다고 생각하는 도서관이 많지만 내국인을 대상으로 또는 내국인·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이용자로 생각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임.
- 2) 한정된 예산과 공간에서 소수의 외국인들을 위한 자료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똑같은 그리고 비슷한 자료들을 관내 여러 곳에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지역 내 중심 도서관을 정해 상호대차 서비스를 마련하여 홍보 및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3) 도서관 서비스 중 프로그램부분에서는 도서관에서만 할 수 있는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을 맡고 그 외 서비스는 지역 내 관련기관과의 연계로 운영이 필요
- 4) 국외자료의 장서 수의 증가보다는 질적 자료의 확보가 더 필요
- 5)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외국인 사서를 채용할 필요 (외국어 전공자·가능자)
- 6) 다문화도서 및 행사를 위한 네트워크(인터넷사이트, 모임)가 형성이 필요

이제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144만 명을 넘어서는 상황 속에서 이들을 일시적이고 단순한 서비스의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포용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서관 특성에 맞는 책을 매개로 다양한 서비스 개발과 찾아가는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서관 서비스는 먼저 담당직원, 사서들의 열린 시각에서의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서비스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내외국인 모두를 위한 도서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외장서 확보, 인력확보, 홍보 등으로 한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보다 도서관만의 특화된 서비스 제공에 힘써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 참고문헌 >

- 서울시도서관연구회 봉사분과위원회. 2011. 『공공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동향/연구보고서. 26-31.
- 한윤옥. 2008. 『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도서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서울: 국립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243-247.
- 金榮美. 2010. 『公共圖書館 다문화서비스를 위한 사서와 다문화인 이용자의 認識에 관한 研究 -서울특별시 公共圖書館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대학원.
- 한윤옥, 조미아, 김수경. 2009. 『다문화가정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 김영미, 조인숙. 2011. 『사서와 다문화인 이용자의 서울시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 미추홀도서관. 2013. 『다문화 책 기획사례와 앞으로의 전망』, 교육자료 .
- 국립중앙도서관. 2011. 『도서관다문화서비스과정』, 교육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2012. 『도서관다문화서비스과정-다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조미아)』, 교육자료. 61.
- 도서관연구소. 2012. 『도서관현장발전우수사례』, 웹진 Vol.83.
-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 2013. 『2013년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오리엔테이션』, 교육자료. 43-60.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다문화어린이도서관모두. 2010. 『도서관에서 다문화를 만나다』.
- 정독도서관. [online] [cited. 2013. 9. 30] <<http://jdlib.sen.go.kr>>.
- 인천중앙도서관 .[online] [cited. 2013. 9. 30] <<http://www.ijlib.or.kr>>.
- 은평구립도서관. [online] [cited. 2013. 9. 30] <<http://www.eplib.or.kr>>.
-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online] [cited. 2013. 9. 30] <<http://www.libsta.go.kr/potal/LibStatSiteMap.do?task=s2>>.
- 국립중앙도서관. [online] [cited. 2013. 9. 30] <http://multiculture.dibrary.net/boards/show/801/4203/ko_KR.do#business07>.

<부록 1>

공공도서관의 국외자료 서비스 연구를 위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미추홀도서관입니다.

저희 도서관은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지원을 받아 ‘공공도서관의 국외자료 서비스(영어 및 다문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외자료 입수형태 및 장서구성, 자료이용 등을 분석·과약하여 효율적인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설문결과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익명으로 처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참여는 다문화 사회의 정착을 위한 도서관의 역할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번거롭고 바쁘시더라도 선생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8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조사수행자 : 자료보존팀장 박윤분 외 국외자료서비스 연구팀

[설문작성 및 반송방법]

동봉된 설문지에 직접 표기한 후, 반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2013년 8월 2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76번길 53(우 405-700)
미추홀도서관 자료보존팀

[문의]

전화 : 032-440-6651 박윤분 della67@korea.kr
032-440-6653 최하영 snoopyyy@korea.kr

※ 모든 설문에서 국외자료는 영어원서도 포함

도서관명:

근무소재지: 시 도 군

담당부서 및 업무:

사서근무 경력(만 년 개월)

I. 예산, 시설 부문입니다.

1. 국외자료(영어원서도 포함) 구입을 위한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① 예(☞1-1번으로) ② 아니오(☞2번으로)

1-1. 국외자료(영어원서도 포함) 예산항목은?

- ① 자산취득비 ② 수용비
 ③ 소모품비 ④ 기타()

구분	년도	2011	2012	2013
	자료구입비 총액			
국외자료 구입비 (영어원서 포함)				
국외자료 구입권수 (영어원서 포함)				

※ 예산은 결산액을 기준으로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1-2. 국외자료 구입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2번으로) ② 아니오(☞1-3번으로)

1-3. 국외자료 구입비가 적절하지 못하다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현 예산의 (배)

2. 국외(다문화) 자료실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2-1번으로) ② 아니오(☞3번으로)

2-1. 국외(다문화) 자료실 면적 및 좌석수, 운영시간은?

- 면 적 (m²) - 좌석수 (석) - 오전()시 ~ 오후()시

2-2. 국외(다문화) 자료실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 ① 0명 ② 1명 ③ 2명 ④ 3명이상

3. 국외(다문화) 자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 () ① 관련 코너는 있음 () ② 전혀 없음(☞3-1번으로)

3-1. 국외(다문화) 자료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복수선택가능)

- () ① 인근에 다문화인이 없음 () ② 직원부족
 () ③ 예산부족 () ④ 공간 및 시설부족
 () ⑤ 국외자료가 없음 () 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⑦ 향후 운영할 예정 () ⑧ 기타(_____)

II. 자료구성 및 자료이용 부문입니다

1. 국외자료(영어원서도 포함)를 소장하고 있습니까?

- () ① 예 (☞1-1번으로) () ② 아니오 (☞11번으로)

1-1. 국외자료(영어원서도 포함) 장서수(단행본)는?

- () ① 1,000권 이하 () ② 1,000 ~ 2,000권 이하
 () ③ 2,000 ~ 3,000권 이하 () ④ 3,000 ~ 4,000권 이하
 () ⑤ 4,000 ~ 5,000권 이하 () ⑥ 5,000 ~ 6,000권 이하
 () ⑦ 6,000 ~ 7,000권 이하 () ⑧ 7,000 ~ 8,000권 이하
 () ⑨ 8,000권 이상

1-2. 소장하고 있는 국외자료 수를 아래 양식에 기입해 주십시오.(2013년 7월 말)

연번	언어	단행본	연속간행물 (신문, 잡지 등)	비도서 자료	기타 (전자자료 등)
1	영 어				
2	중 국 어				
3	일 본 어				
4	베 트 남 어				
5	필 리 핀 어				
6	태 국 어				
7	몽 골 어				
8	말레이시아어				
9	인도네시아어				
10	네 팔 어				
11	기 타 언 어				
	총 계				

2. 국외자료(영어원서도 포함) 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 ① 모두 대출가능 () ② 모두 열람만 가능
() ③ 외국인만 대출가능 () ④ 내국인만 대출가능
() ⑤ 기타(_____)

3. 월평균 국외자료(영어원서도 포함) 대출권수는 ?

- () ① 100권 이내 () ② 100 ~ 200권 이내
() ③ 200 ~ 300권 이내 () ④ 300 ~ 400권 이내
() ⑤ 400 ~ 500권 이내 () ⑥ 500 ~ 600권 이내
() ⑦ 600 ~ 700권 이내 () ⑧ 700권 이상

4. 월평균 국외자료(영어원서도 포함) 내국인 이용자수는?

- () ① 100명 이내 () ② 100 ~ 200명 이내
() ③ 200 ~ 300명 이내 () ④ 300 ~ 400명 이내
() ⑤ 400 ~ 500명 이내 () ⑥ 500 ~ 600명 이내
() ⑦ 600명 이상

5. 월평균 외국인 이용자수는?

- () ① 10명 이내 () ② 10 ~ 50명 이내
() ③ 50 ~ 100명 이내 () ④ 100 ~ 150명
() ⑤ 150 ~ 200명 이내 () ⑥ 200명 이상

6. 가장 많이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국적은?(1~3위)

- () ① 미국 () ② 중국
() ③ 베트남 () ④ 태국
() ⑤ 인도네시아 () ⑥ 일본
() ⑦ 필리핀 () ⑧ 몽골
() ⑨ 기타(_____)

7. 외국인들의 주요 이용 분포도는?

- 유아 및 어린이(%)
- 청소년(%)
- 성인(%)

8. 외국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대출&반납)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예 (☞8-1번으로) () ② 아니오 (☞10번으로)

8-1. 실시하고 있다면 서비스 형태는? (복수선택가능)

() ① 무료택배서비스 () ② 이동문고운영
() ③ 직접방문 () ④ 기타()

9. 국외자료(영어원서도 포함) 관련 '희망' 신청도 받고 있습니까?
() ① 예(☞9-1번으로) () ② 아니오(☞10번으로)

9-1. 한달에 신청할 수 있는 희망도서 권수는?

() ① 1권 () ② 2권
() ③ 3권 () ④ 4권
() ⑤ 5권 () ⑥ 6권 이상

9-2. 국외자료 희망도서 처리 소요일수는?

() ① 5일 이내 () ② 5~10일 이내
() ③ 10~20일 이내 () ④ 20~30일 이내
() ⑤ 정기구입 시 반영 (_____)

10.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 ① 예 (☞10-1번으로) () ② 아니오

10-1.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자료는 어떤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복수선택가능)

() ① 한국어 () ② 영어 () ③ 중국어
() ④ 일본어 () ⑤ 태국어 () ⑥ 베트남어
() ⑦ 필리핀어 () ⑧ 인도네시아어 () ⑨ 몽골어
() ⑩ 기타()

10-2.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자료는 어떤 형태로 제공하십니까? (복수선택가능)

() ① 단행본 () ② 시청각자료 () ③ 온라인서비스
() ④ 연속간행물 () ⑤ 기 타 (_____)

11. 국외자료를 소장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예산부족 () ② 공간부족
() ③ 필요성을 못느껴서 () ④ 기 타(_____)

Ⅲ. 자료수서 및 선정 부문입니다

1. 국외자료관련 ‘장서개발지침’을 수립하여 자료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 자료선정시 지역 내 외국인 구성원들의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반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 국외자료 선정을 담당하는 직원현황은 어떠합니까?
- 사서직()명 - 행정직()명 - 기타()명
4. 귀 도서관에서 국외자료 선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위는 무엇입니까?
() ① 자료선정위원회
() ② 도서관장
() ③ 담당부서장
() ④ 담당 사서/직원
() ⑤ 기타(_____)
5. 국외자료(영어포함) 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하십니까? (복수선택가능)
() ① 인터넷, 대형서점 등을 통한 베스트셀러 및 추천도서
() ② 현지국가, 출판사 등을 통한 직접 구입
() ③ 타기관의 국외자료목록 참조
() ④ 이용자들의 희망도서 신청
() ⑤ 지역 내 전문가 협조
() ⑥ 전문유통업체와 협력
() ⑦ 기증
() ⑧ 기타(_____)
6. 연간 국외자료 구입횟수는?
() ① 수시구입 () ② 1회
() ③ 2회 () ④ 3회
() ⑤ 4회 () ⑥ 5회 이상

7. 수서 담당자가 이해하고, 읽을 수 있는 외국어자료는? (복수선택가능)
- () ① 영어 () ② 중국어 () ③ 일본어 () ④ 베트남어
 () ⑤ 필리핀어 () ⑥ 태국어 () ⑦ 인도네시아어 () ⑧ 몽골어
 () ⑨ 기타 언어(_____)

8. 국외자료 선정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가능)
- () ① 이용자들의 요구파악이 어렵다
 () ② 국외자료에 대한 전문성부족
 () ③ 언어장벽으로 인한 자료의 이해부족
 () ④ 현지 출판동향 파악의 어려움
 () ⑤ 기타(_____)

9. 자료구입 후 MARC 작업은 귀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 () ① 직접입력
 () ② 타 기관에서 목록한 데이터를 다운로드함
 () ③ 납품업체를 통해서 제공받음
 () ④ 기 타(_____)

IV. 다문화 프로그램 부문입니다.

1. 다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10번으로)
2.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가능)
- () ① 지역주민들의 요구 () ② 사회적 추세
 () ③ 외부기관과의 공모사업 () ④ 지역사회의 유관기관의 협력
 () ⑤ 기타(_____)
3.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외부/타기관 등 예산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 ① 예 () ② 아니오
4. 다문화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선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① 지역주민들의 요청 (복수선택가능)

- () ② 전년도 행사, 프로그램 등 참조
- () ③ 활용가능 자료의 확보
- () ④ 활용가능 강사의 확보
- () ⑤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사업
- () ⑥ 예산
- () ⑦ 기타()

5. 다문화 프로그램 및 제공하는 정보 종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복수선택가능)

- () ① 책관련(그림책읽기, 도서전시 등) () ② 한국어 강습
- () ③ 취업정보 () ④ 한국문화(음식, 예절등)체험
- () ⑤ 컴퓨터 활용 () ⑥ 국적 취득
- () ⑦ 취미,교양 () ⑧ 자녀교육 정보
- () ⑨ 생활 및 법률정보 () ⑩ 기 타(_____)

6. 다문화 프로그램 진행 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 ① 예(☞6-1번으로) () ② 아니오

6-1. 평가 내용은 다음 다문화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 () ① 예 () ② 아니오

7.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가능)

- () ① 국외자료 장서개발 및 장서확충
- () ② 담당직원의 전문성 및 이해
- () ③ 예산
- () ④ 인력확보(다문화관련 담당자)
- () ⑤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연계
- () ⑥ 기 타(_____)

8. 국외자료(도서 및 비도서 등)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적 있습니까?

- () ① 있다 (☞8-1번으로) () ② 없다(☞8-3번으로)

8-1. 국외자료(도서 및 비도서 등)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대표적인)사례를

적어 주세요. - 프로그램 명 :

- 프로그램 내용 :

8-2. 국외자료(도서 및 비도서 등)를 활용한 효과는?

- ① 매우 별로
- ② 별로
- ③ 보통
- ④ 효과적
- ⑤ 매우 효과적
- ⑥ 기타

8-3. 국외자료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 ① 효과가 없음
- ② 참여율 저조
- ③ 자료의 부족
- ④ 담당자의 관심부족
- ⑤ 기타()

9. 귀 도서관의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중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복수선택가능)

- ① 예산부족
- ② 강사섭외의 어려움
- ③ 다문화관련 정보부족
- ④ 국외자료 입수·선정의 어려움
- ⑤ 언어소통의 어려움
- ⑥ 협력기관과의 연계 어려움
- ⑦ 참여자의 저조한 참석율
- ⑧ 비협조적인 참여자들의 태도
- ⑨ 홍보의 어려움
- ⑩ 기 타(_____)

10. 다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가능)

- ① 인근에 다문화인이 없음
- ② 직원부족
- ③ 예산부족
- ④ 공간 및 시설부족
- ⑤ 국외자료 부족
- 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 ⑦ 기 타 (_____)

11. 기타 국외자료 서비스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바쁘신 중에도 설문에 응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부록 2〉 미추홀도서관 국외도서(희망도서)신청서

국외도서(희망도서) 신청서

- ★ 국외서 구입 시기 : 상반기 중
- ★ 구입가능 언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인도어, 태국어, 말레이시아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몽골어 등
- ★ 구입불가도서 : 품질 및 절판된 자료, 도서관 소장자료, 고가의 도서, 문제집, 수험서, 로맨스 소설 등

신청자		신청일자	
연락처 (휴대폰)		e-mail	
희망도서명		출판사	
저자		출판년도	

추천의견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UN기탁도서관 안내데스크로 제출해주세요.

(405-700)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76번길 53(구월동 610-4)
미추홀도서관1층 UN기탁도서관
문의) 032-440-6644/ 팩스) 032-440-6640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전자자료 공동서비스 방안 연구

▣ 발 표 자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사서

제갈 선희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전자자료 공동서비스 방안 연구

- 대구지역대표도서관의 '대구전자도서관'을 중심으로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사 서 제 갈 선 희

◆ 목 차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대구전자도서관 구축 현황

1.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전자자료 서비스 현황
2. 대구전자도서관 시스템 개요

제3장 대구전자도서관 운영 현황

1. 서비스 방식 및 범위
2. 전자자료 종류 및 현황
3. 전자자료 이용 현황

제4장 대구전자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 결과 및 분석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국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¹⁾에 의하면, 전자자료(전자책, 기타 디지털콘텐츠)를 소장하고 서비스하는 공공도서관은²⁾ 2009년에는 641개관 중 593개관(92.5%), 2010년에는 699개관 중 523개관(74.8%), 2011년에는 759개관 중 501개관(66%)으로 매년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책에 대한 모바일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수는 2009년 107개관, 2010년 184개관, 2011년 238개관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전자자료를 소장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수가 2009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지역단위 공동서비스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개별 도서관 단위로 전자자료를 구입하지 않고, 시군구 자치단체 소속 공공도서관 중심으로 한 개의 거점 도서관에서 관할 도서관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 전자도서관 방식을 도입하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시군구립 공공도서관에서는 전자자료 서비스 관련 예산도 부족하고,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여건도 열악하며, 별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2012년 전자책 독서실태조사³⁾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컴퓨터(PC)나 스마트폰, 태블릿PC, 전자책 전용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1년 동안 1권 이상 전자책(교과서, 참고서, 수험서, 만화, 잡지 제외)을 읽은 사람은 약 1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책 읽기를 좋아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전자책 독서율도 정비례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책과 전자책을 함께 읽는 독자가 전체 응답자의 13%를 차지하고 있어, 종이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자책도 읽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책을 읽는 매체는 스마트폰 44.1%, 컴퓨터(PC)·노트북 38.1%, 태블릿PC 11.2%이며, 전자책 입수 경로는 인터넷포털 34.1%, 공공도서관 6.2%로 나타났다. 전자책 이용자 중 58%는 전자책 구입 경험이 없고 무료 콘텐츠만 이용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공공도서관의 전자자료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자가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1)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 열린광장

2) 평가에 참여한 전국의 공, 사립 공공도서관수이며, 도서관별 전자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의미함

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연구소 공동연구(조사기간 : 2012. 12.4 ~ 12.21)

이처럼 개별 도서관 단위에서는 전자자료 서비스 관련 예산 부족과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지역단위 통합 전자도서관 서비스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등 도서관계 환경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책 인구 증가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대구지역에서는 대표도서관 중심으로 시·구립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대구 공공도서관 통합 전자도서관(이하 ‘대구전자도서관’)」을 구축, 2012년 11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 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광역단위에 적합한 전자자료 공동서비스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대구전자도서관 구축 현황 : 대구전자도서관 구축 계획에 관한 관련 서류를 활용 하였다.
- 대구전자도서관 운영 현황 : 대구전자도서관 이용통계지원시스템 이용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 대구전자도서관 문제점 :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이용 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 방법은 대구전자도서관 홈페이지(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2013년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10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335명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제2장 대구전자도서관 구축 현황

1.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전자자료 서비스 현황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에 걸쳐 대구지역 개별 공공도서관에 대해 전자도서관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통합 전자도서관 계획을 안내한 후, 참여 여부를 회

신 받았다. 그 결과 분관 및 소규모 도서관을 제외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있는 17개 시·구립 모든 도서관에서 참여의사를 밝혀왔다.

사전 조사 결과, 2011년에는 개관 예정인 도서관 1개관을 제외한 16개 도서관에서 오디오북과 전자책 구입비를 총 74,30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개관당 평균 4,600천원 정도였다. 2011년 한 해 동안 16개 도서관의 전자책 대출권수는 35,990권으로 이 중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권수는 4,192권으로 12%에 머물렀다. 오디오북은 9개 도서관만 소장하고 있었으며, 1일 평균 방문자는 95명이었다.

2012년 4월 기준으로 17개 도서관의 전자자료 소장현황은 전자책이 36,449종, 오디오북은 9개 도서관에서 총 987종을 보유하고 있었다.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모바일 서비스는 최근 2년~3년 전에 납품받은 자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었다.

전자책 유통업체는 K사로부터 납품받고 있는 도서관이 9개관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업체 도산으로 인해 일부 자료에 대한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도서관도 있었다. 일반도서의 검색, 예약 및 희망도서 신청, 대출내역 등에 대한 모바일 서비스는 4개 도서관에서 웹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전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자격은 5개관만 도서대출회원으로 제한을 하고 있었으며, 12개관은 도서대출회원이 아닌 사람도 회원가입이 가능하고 전자자료도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홈페이지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는 방식도 3가지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즉 홈페이지 회원과 관외대출회원의 정보를 자료관리시스템에서 통합으로 관리하는 도서관이 5개관, 홈페이지 회원 정보와 자료관리시스템의 도서대출회원 정보를 별도로 관리하지만 서로 연동하도록 구성한 도서관이 6개관, 홈페이지 회원정보와 자료관리시스템의 도서대출회원정보를 아예 별개로 관리하는 도서관이 6개관이었다.

특히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급하고 있는 국가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3)이 15개관에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2개관은 타 기종의 자료관리프로그램(iLUS, DLI ii) 사용으로, 일반도서의 모바일 서비스 연동에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다.

<표 1> 도서관별 전자자료(전자책, 오디오북) 구입비

- 2011년 기준 -

도서관명	a	b	c	d	e	f	g	h
금액(백만원)	7.7	12.1	3	5	5.7	4.5	4.5	6.8
도서관명	i	j	k	l	m	n	o	계
금액(백만원)	0.9	0	5.2	5.1	3.7	5.5	4.6	74.3

※ 17개 도서관 중 1개관은 '12년 4월 개관예정'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

<표 2> 도서관별 전자자료(전자책, 오디오북) 이용현황

- 2011년 기준 -

구분	내용	2011. 1월~12월	1일 평균
전자책	방문자수	125,173명	343명
	열람권수	22,313권	61권
	대출권수(PC+스마트폰)	35,990권	99권
	스마트폰 대출권수	4,192권	11권
오디오북	방문자수	34,565명	95명
	열람권수	32,246권	88권
	대출권수	37,672권	103권

※ 17개 도서관 중 1개관은 '12년 4월 개관예정'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

<표 3> 도서관별 전자자료(전자책, 오디오북) 보유현황

- 2012년 4월말 기준 -

도서관명	a	b	c	d	e	f	g	h
전자책(종)	2,657	2,729	2,992	1,944	3,298	2,498	1,277	2,418
오디오북(종)	64	127	0	132	78	0	67	111
계	2,721	2,856	2,992	2,079	3,376	2,498	1,344	2,529

도서관명	i	j	k	l/m	n	o	p	q	합계
전자책(종)	1,593	99	4,110	353	1,105	969	4,416	3,991	36,449
오디오북(종)	0	0	103	0	0	0	180	125	987
계	1,593	99	4,213	353	1,105	969	4,590	4,116	37,436

※ 17개 도서관 중 1개관은 '12년 4월 개관'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

※ l/m 도서관은 동일 서버를 이용, 전자자료 서비스를 제공함

<표 4> 도서관 전자자료 보유현황

- 2012년 4월말 기준 -

구 분	전자책	오디오북	상용웹	원문DB	VOD
자료 종수	36,449	987	2	2,563	1,763
도서관 수	17	9	1	4	14

<표 5> 유통사별 도서관 전자책 보유현황

- 2012년 4월말 기준 -

구 분	K사	B사	Y사	N	V사	U사
도서관 수	9	5	5	4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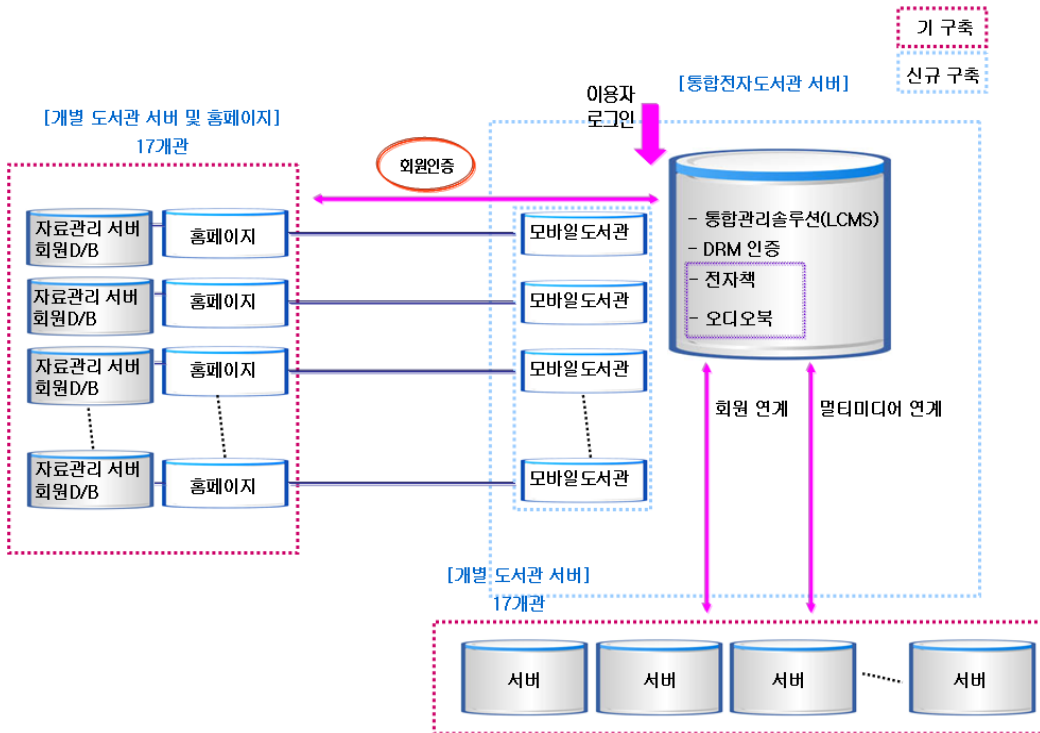
※ 1개사 보유 도서관 9개관, 2개사 보유 도서관 3개관, 3개사 보유 도서관 4개관, 4개사 보유 도서관 1개관

2. 대구전자도서관 시스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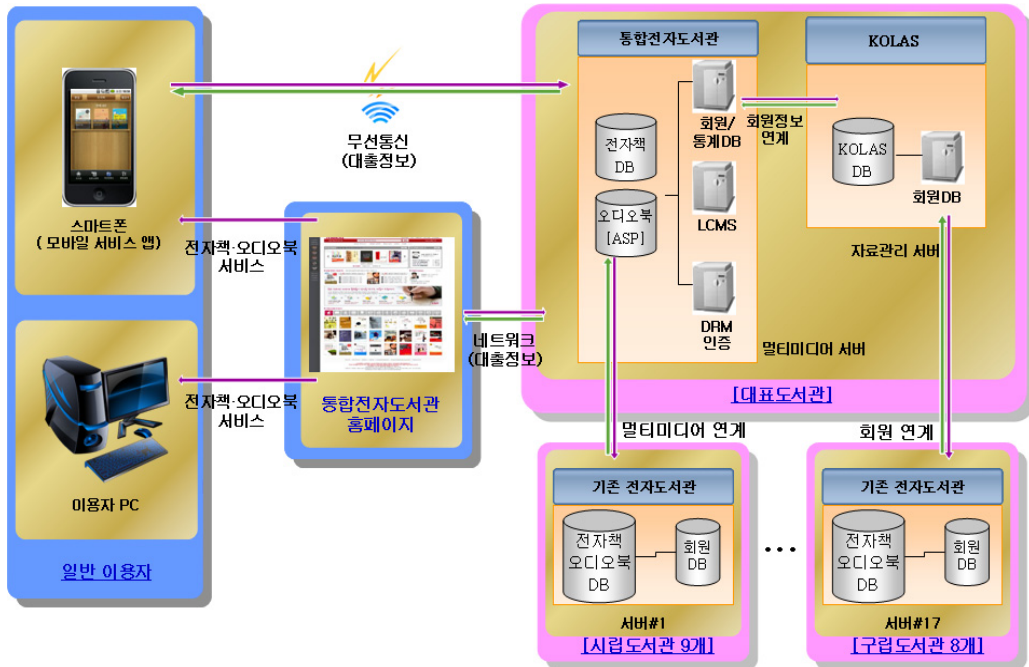
도서관 업무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스템 개발에 따른 각종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 결과 구축 방향은 ① 기존 시·구립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의 회원DB를 활용한 회원인증 모듈개발로 신규 구축되는 전자도서관 시스템과 회원연계를 추진하고 ② 기존 시·구립 공공도서관이 운영 중인 전자도서관과 신규 대구전자도서관의 전자자료 메타데이터 통합으로 전자책 통합검색 구현과 전자책 및 오디오북에 대한 공동 활용 서비스 ③ 스마트폰, 태블릿PC 기반의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통합 모바일 도서관 구축 ④ 유통업체가 다른 전자책을 하나의 앱에서 이용 가능한 통합뷰어 개발을 목표로 정하였다.

<표 6> 대구전자도서관 시스템 개발 내역

구 분		세 부 내 역
전자 도서관 (pc)	홈페이지 구축	윈도 서버 운영체제 구매·탑재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회원 및 전자자료 연계	도서관별 회원인증 통합로그인
		시·구립 도서관 전자자료 중앙연계
LCMS 구축	전자자료 검색(전자책, 오디오북) 관리자 및 이용률통계 기능 개발	
모바일 도서관	전자책 통합뷰어	자체플랫폼 전자책 열람 기술개발
	모바일 회원증 발급	회원번호로 바코드 자동생성 및 모바일회원증 발급 및 관리
	통합검색	이용자위주 다양한 검색기능 제공
	도서관 안내	도서관 소개 및 공지사항 등
전자자료 구매·탑재	전자책	5user
	오디오북	



[그림 1] 대구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성도



[그림 2] 대구전자도서관 서비스 흐름도

제3장 대구전자도서관 운영 현황

1. 서비스 방식 및 범위

2012년 11월 서비스를 시작한 대구전자도서관은 기존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17개관의 전자자료(전자책, 오디오북)와 대구전자도서관에서 신규로 구입한 자료의 정보를 메타데이터 통합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각 도서관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관 홈페이지 회원에게만 서비스하고 있던 자료를 모두 메타데이터 기반으로 통합하였다. 대구전자도서관에서 구입한 신규자료는 모든 참여도서관에서 공동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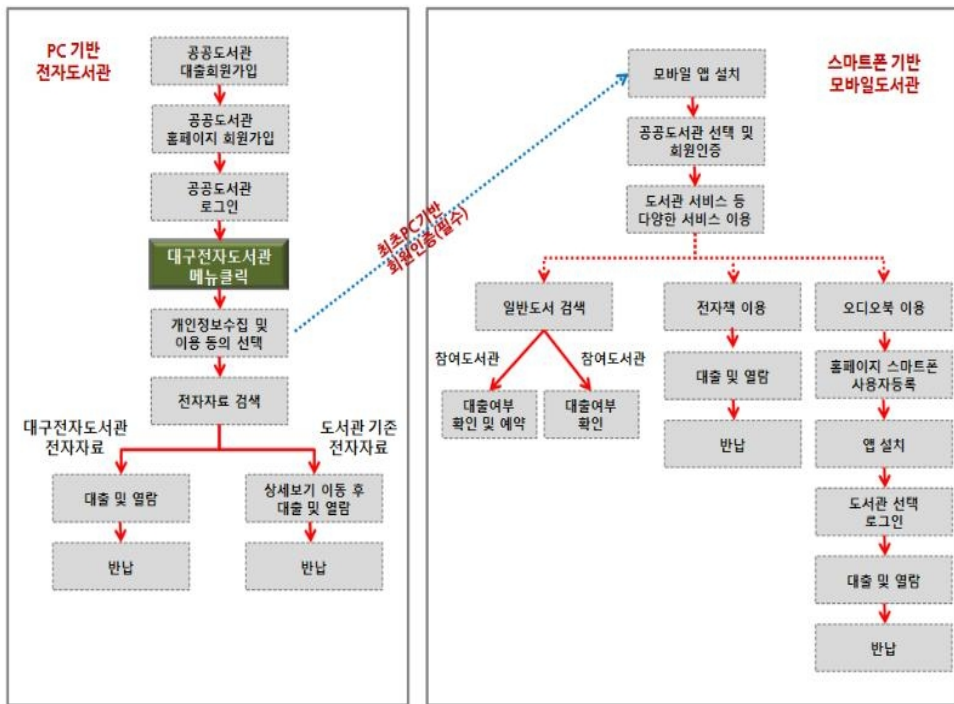
즉 대구전자도서관에 탑재한 전자자료는 각 도서관의 전자책, 오디오북과 더불어 메타데이터 통합검색이 가능하므로 이용자가 회원인증을 받은 도서관과 대구전자도서관의 자료를 대구전자도서관을 통하여 PC상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개별 도서관에서 구입한 자료의 모바일서비스는 저작권의 문제로 기

존 방식대로 도서관별로 서비스되고 있다. 즉 대구전자도서관에 탑재되는 자료만 모바일기기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서비스 대상 범위는 각 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서관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 자격에 차이가 있고, 홈페이지 회원의 정보를 관리하는 3가지 방식으로 달라서 대구전자도서관 이용을 위한 이용자 정보관리가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도서관별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대구전자도서관과 연계해야만 이용자의 편의성이 최대한 확보된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대구전자도서관에서 각 도서관의 도서관부호와 이용자의 홈페이지 ID를 병합하여 이용자별로 가입되어 있는 도서관과 회원 유무를 판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기존 정보로 로그인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강화 정책에 따른 관리 부담을 줄이고자 최소한의 정보로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대구전자도서관 이용프로세스



[그림 3] 대구전자도서관 이용 프로세스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와 대구전자도서관 간의 회원인증은 SSO 방식을 통한 도서관간 seamless(매끄러운)한 연계가 가능하다. 대구전자도서관의 각 도서관과의 홈페이지 링크방식은 도서관별 의견을 반영하여 2가지 방식으로 정하였다. 즉 기존 전자책과 오디오북 서비스 아이콘 클릭 시, 대구전자도서관 서비스로 바로 이동하는 방식을 10개관이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7개은 기존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하고 별도로 대구전자도서관 메뉴를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별도의 메뉴를 구성한 도서관은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으로 전자자료를 다량 구입하여 자관 자료에 대한 이용율을 높이고자 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통합 모바일 앱(명칭 ‘대구전자도서관’)에서는 참여도서관 15개관의 소장 일반도서 종합목록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참여도서관 중 표준자료관리시스템(KOLAS3)을 사용하지 않는 2개관은 모바일 앱에서 일반도서의 도서예약 및 대출 이력·현황, 예약현황, 모바일회원증 등의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연계 API 모듈 미개발로 DB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향후 해당 도서관에서의 연계 API 모듈이 개발되어야 가능하였다. 또한 참여도서관 중 기존에 납품된 2개의 전자책 유통업체 도산으로 상세보기 자동로그인(SSO) 서비스가 불가능하며, 다시 한번 더 로그인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전자자료 대출규정은 대출권수는 각 3권씩, 대출기간은 각 8일간으로 하고 있으며 연장 서비스를 두지 않고 있다.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수량이 많지 않아 향후 수량이 많아지면 대출권수 및 기간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예약은 전자책에 대해서만 2권씩 가능하다. 참여도서관의 기존 전자자료에 대한 대출규정도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대구전자도서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2. 전자자료 종류 및 현황

대구전자도서관 서비스 개시 당시 신규 구입 자료는 광역시단위 전자자료의 통합 제공이라는 특성으로 1종당 5user씩 2,657종의 전자책과 함께 52종의 오디오북을 구매하였다. 이후 12월에는 8개 참여도서관에서 자관 예산으로 신규 구입한 전자책 452종(5user)을 대구전자도서관으로 이관⁴⁾하여 탑재하였다. 또한 오디오북은

4) 2012년 4월에 개최된 통합전자도서관 구축 관련 협의회에서 전자도서관 구입비가 확보된 8개 도서관에서 전자책을 구입하여 개별 도서관에 탑재보다는 공동 이용이 가능한 대구전자도서관으로 이관하기로 합의함

대표도서관으로 운영되는 대구시립중앙도서관의 기존 납품업체와 동일업체에서 구매함으로써 자료를 통합하여 123종으로 대구전자도서관에서 서비스 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 1월에는 학술정보서비스로 국내학회지 웹DB(KISS)와 온라인 클래식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낙소스 뮤직 라이브러리)도 PC용 컴퓨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2013년 상반기에는 1,058종의 전자책을 추가 확충하였다.

<표 7> 대구전자도서관 전자자료 보유현황

구 분 (‘13년 9월말)	전자책	오디오북	학술정보 서비스	온라인 음악서비스
종 수	4,176	123	1식	1식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자료 수집 방침과 선정 제외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자료 수집 방침

- 문학, 사회과학, 예술분야 중심의 일반도서를 보완할 수 있는 자료
- 모니터로 보는 특성상 이미지 중심의 편집이 잘된 자료
- 자료의 특성상 일반책보다 발간이 늦으나 어느 정도의 최신성 고려
- 뷰어프로그램 등 도서관의 서비스 조건 충족
- PC, 스마트폰으로 접속과 활용이 가능한 자료
- 회사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공급업체의 공신력 고려

○ 선정제외 방침

- 선정성, 폭력물, 환타지, 무협지, 만화 등의 내용물
- 특정한 종교, 정당 및 단체, 주제, 출판사의 자료
- 모니터로 장시간 열람이 힘든 전문 도서
- 수험서, 학습서, 중고교참고서 등 자료효용성이 단기간인 자료
- 특별히 고가인 자료
- 기타 공공도서관 자료에 부적합한 자료
- 대구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소장 전자책은 가능한 한 배제

구입자료 목록 선정 절차는 각 도서관 담당자로부터 희망자료 신청을 받고 있으며, 구매 대상 예정업체로부터 목록을 받은 후 담당자가 구입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 선정대상 도서목록의 120% 정도 및 예비목록을 준비하여 전자자료선정위원회 개최 1주일전 각 위원들에게 준비한 목록을 송부한다. 그 다음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전자자료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목록을 선정하고 있다. 입찰방식은 G2B 총액 전자입찰을 취하고 있다.

2013년 하반기에는 2차 전자책 확충뿐만 아니라 오디오북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 방식을 도입할 계획에 있다. 국내 오디오북의 제작 및 유통업체가 매우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업체는 구매된 자료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방식을 제안한 업체에서는 연간 일정한 구매비용만 지불하면 업체가 보유한 자료를 1년간 무료 제공하며, 또한 전자책처럼 통합뷰어를 제공하여 오디오북 이용을 위한 별도의 로그인 없이 전자책 메뉴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3 전자자료 이용 현황

전자자료 이용현황은 전자책, 오디오북, 학술정보원문DB,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대구전자도서관 전자자료 이용현황

자료 구분	세부 이용내용	'12.11월 ~ '13.8월	1일평균
전자책	등록회원수	10,719명	36명
	방문자수	198,644명	662명
	열람권수	133,414권	445권
	대출권수(PC+스마트폰)	36,675권	122권
	스마트폰 대출권수	27,001권	90권
오디오북	등록회원수	1,935명	7명
	방문자수	35,700명	119명
	열람권수	15,500권	51권
	대출권수(PC+스마트폰)	21,262권	71권
	스마트폰 대출권수	15,957권	53권
학술정보 원문DB	접속자수	430명	2명
	페이지검색수	3,403건	16건
	다운로드수	625건	3건
음악 스트리밍	접속자수	3,403명	16명
	바로듣기	625건	3건

2013년 8월까지 10개월 동안의 이용현황과 2011년 개별 단위 도서관 서비스의 1일 평균 이용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자책 이용을 위한 방문자 수는 2배 정도 늘었으며, 대출권수도 1,2배 증가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대출수량은 8배 정도 늘어났다. 반면 오디오북은 보유수량의 부족으로 개별 단위 도서관 서비스보다 1일 평균 방문자 수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자료 이용자 수는 그리 증가되지 않았다. 따라서 오디오북 자료의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서비스 개시 초기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배너 및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여 각 참여도서관에 배부하였다. 또한 각 도서관 홈페이지 마다 서비스 안내 팝업창을 게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언론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시민들의 회원 등록이 급속히 늘어났으며, 자료 이용건수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신규자료가 2012년 12월에 확충된 이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새로운 자료가 입수되어 이용율이 증가 폭이 다소 미진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종이책의 경우 도서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1~2개월 주기로 신간자료를 구입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책도 2개월 정도의 입수 주기로 신간자료를 확충함으로써 이용자의 신간자료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 전자책 이용 현황

2013년 8월 현재 전자책 카테고리별 보유비율은 경제·비즈니스 25%, 문학 24%, 가정과 생활 8.9% 순이다. 대출비율은 장르문학 22.1%, 경제·비즈니스 20.5%, 문학 17.9%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책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짧은 시간 모바일기기로 독서하는 경향이 높은 특성이 있어 가벼운 읽을거리가 인기가 높음을 알 수 있다.

2012년 전자책 독서실태조사⁵⁾에서도 장르문학(19.8%), 일반문학(18.5%) 순으로 나타났으며, 독서 분야 선택 이유가 재미, 교양, 자기계발, 실생활 도움 순으로 조사된 바 있다. 장르문학⁶⁾에 대한 이용자 이용자들의 요구도는 매우 높은 편이나, 대구전자도서관의 경우 전자책 자료 선정 방침은 폭력물, 환타지, 무협지 등은 제외하고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자료 비율이 그리 높지 않는데, 그 이유는 대구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대구교육연구정보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자료를 중심으로 전자책을 구입하여, 지역의 학생·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대구 e-도서관 Booknavi 전자책 서

5)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연구소 공동연구(조사기간 : 2012. 12.4 ~ 12.21)

6) 장르문학은 판타지, SF, 추리, 미스터리, 로맨스, 인터넷 소설 등을 말함

비스'를 2013년 2월부터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책 서비스에 있어 대구전자도서관은 일반성인 중심의 자료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며, 대구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 자료 중심으로 자료를 구입하여 동일한 지역 내에서 중복 자료를 최대한 배제하고자 이러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표 9> 대구전자도서관 전자책 보유종수 및 이용현황

- 2013년 8월말 기준 -

카테고리	보유종수	보유비율	대출권수	대출비율
가정과생활	371	8.9%	2,816	7.7%
경제/비즈니스	1,029	25%	7,507	20.5%
인문/사회	517	12.4%	3,764	10.3%
문학	1,004	24%	6,564	17.9%
역사	51	1.2%	983	2.7%
자연/과학	19	0.5%	394	1%
취미/건강/여행	70	1.7%	814	2.2%
문화예술	60	1.4%	616	1.7%
컴퓨터/인터넷	18	0.4%	411	1.1%
외국어	150	3.6%	1,649	4.5%
유아/어린이	310	7.4%	1,354	3.7%
청소년	330	7.9%	1,378	3.8%
장르문학	207	5%	8,115	22.1%
기타	40	1%	310	0.8%
계	4,176	100%	36,675	100%

전자책 대출이용 건수를 살펴보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대출권수가 27,001권으로 전체 36,675권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즉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전자책 이용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대구전자도서관 전자책 월별 대출현황

구분	PC(권)	Mobile(권)	계(권)
'12년 11월	2,061	2,057	4,118
'12년 12월	1,293	2,858	4,151
'13년 1월	1,214	3,320	4,534
'13년 2월	963	2,933	3,896
'13년 3월	806	2,959	3,765
'13년 4월	772	2,800	3,572
'13년 5월	615	2,598	3,213
'13년 6월	612	2,343	2,955
'13년 7월	691	2,730	3,421
'13년 8월	647	2,403	3,050
계	9,674	27,001	36,675

○ 오디오북 이용 현황

카테고리별 오디오북 보유비율은 문학 31%, 강연 14.6%, 이외에 인문·역사, 자기계발과 경제·경영이 13.8%~13% 정도로 나타났다. 대출비율은 문학 31.3%, 자기계발 20.9%, 인문·역사 15.8% 순 이었다.

오디오북 역시 문학분야의 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책과 오디오북 대출권수를 비교해 보면, 전자책이 36,675권 오디오북이 21,262권으로 오디오북이 보유종수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오디오북의 특성상 한 권의 책을 몇 개의 파일로 나누어 이용하기 때문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표 11> 대구전자도서관 오디오북 보유종수 및 이용현황

- 2013년 8월말 기준 -

카테고리	보유종수	보유비율	대출권수	대출비율
문학	38	31%	6,665	31.3%
인문/역사	16	13%	3,359	15.8%
자기계발	17	13.8%	4,444	20.9%
경제/경영	17	13.8%	3,067	14.4%
건강/실용	3	2.4%	732	3.5%
동화	7	5.7%	801	3.8%
강연	18	14.6%	350	1.6%
영어오디오북	6	4.9%	1,410	6.6%
어학	1	0.8%	434	2.1%
합 계	123	100%	21,262	100%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오디오북 대출은 15,957권으로 전체 21,262권의 75%를 차지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기기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이용율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오디오북의 특성상 제작비가 전자책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고, 유통업체 수도 매우 적고, 전자책 출판보다 시기적으로 매우 늦게 출간되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양하고 신속한 자료 확충에 애로점이 많다.

<표 12> 대구전자도서관 오디오북 월별 대출현황

구 분	PC(권)	Mobile(권)	계(권)
‘12년 11월	1,569	1,394	2,963
‘12년 12월	639	2,043	2,682
‘13년 1월	664	2,618	3,282
‘13년 2월	515	1,621	2,136
‘13년 3월	327	2,374	2,701
‘13년 4월	553	2,046	2,599
‘13년 5월	247	1,097	1,344
‘13년 6월	324	1,219	1,543
‘13년 7월	282	874	1,156
‘13년 8월	185	671	856
계	5,305	15,957	21,262

제4장 대구전자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1.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대구전자도서관 이용자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여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 조사 기간 : 2013. 9. 4. ~ 9. 13. / 10일간

○ 조사 대상(참여자수) : 대구전자도서관 이용자 335명

○ 조사 방법 : 대구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설문조사 메뉴 탑재 후 대구전자도서관(PC 및 앱화면) 연동에 위한 온라인 조사

○ 조사 항목 : 13문항

구 분	세 부 항 목
이용자 기본정보	- 성별 - 연령
이용 실태	- 이용 빈도 - 이용 목적 - 처음 이용 경로 - 이용 시 불편한 점 -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
전자책 이용 실태	- 주 이용 카테고리 분야 - 이용 후 만족도 - 향후 확충 카테고리 분야
오디오북 이용 실태	- 주 이용 카테고리 분야 - 이용 후 만족도 - 향후 확충 카테고리 분야

2. 조사 결과 및 분석

○ 응답자 성별

여성의 설문조사 참여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왔다. 도서관 이용자 비중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다는 점과 일치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3> 대구전자도서관 설문조사 응답자 성별

구 분	응답자(명)	비율(%)
남 성	130	38.8
여 성	205	61.2
계	335	100

○ 응답자 연령

30대~40대가 65.3%로 매우 높게 차지하고 있고, 20대가 28.1%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의 주 이용자 계층이 30대, 40대라는 점과 일치된다. 또한 50대 응답자가 10대가 높은 것은, 요즘 공공도서관에서 중·고등학생 이용자가 감소하는 대신 노인층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자자료 서비스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20대~40대의 자료 이용 특성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20대는 본인의 학습이나 교양 및 여가선용을 위한 목적이 많은 반면, 30대~40대는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선호 분야에서도 유아 및 어린이 자료나 영어오디오를 선호하는 경향이 다소 나타났다.

<표 14> 대구전자도서관 설문조사 응답자 연령

구 분	응답자(명)	비율(%)
10대	7	2.1
20대	94	28.1
30대	118	35.2
40대	101	30.1
50대	13	3.9
60대	2	0.6
계	335	100

○ 이용 빈도

응답자의 45% 정도가 월 1~2회 이용하고 있으며, 거의 매일 이용하는 응답자도 12.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 빈도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

<표 15> 대구전자도서관 이용 빈도

구 분	응답자(명)	비율(%)
월 1~2회 정도	151	45.1
월 4회 정도	63	18.7
주 2~3회 정도	79	23.9
거의매일	42	12.3
계	335	100

○ 이용 목적

전자책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5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일반도서에 대한 모바일서비스가 32.2% 나타났다. PC보다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이용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실물 도서회원증을 대체하는 모바일회원증 이용도 6.3%로 나타나, 향후 활용도가 매우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6> 대구전자도서관 이용 목적

구 분	응답자(명)	비율(%)
전자책	191	57.0
오디오북	15	4.5
일반도서 모바일서비스	108	32.2
모바일회원증	21	6.3
계	335	100

○ 처음 이용 경로

기존 도서관별 전자도서관 서비스 이용 방식과 달라진 점이 있어, 처음 이용 경로를 알아보았다. 도서관 홈페이지 및 게시물 등 도서관 홍보에 의해 처음 이용한 응답률이 51.0%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도서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물에 의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17> 대구전자도서관 처음 이용 경로

구 분	응답자(명)	비율(%)
도서관 홍보 (홈페이지 및 게시물)	171	51.0
지인 또는 직원의 안내	35	10.5
인론보도	4	1.2
인터넷 검색 등 기타	125	37.3
계	335	100

○ 이용 시 불편한 점

이용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응답자의 78.2%가 전자자료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이 회원인증 방법 및 최초 접속방법도 다수가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비스 방식은 회원가입이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도록 되어있으며, 가입한 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한 후에 해당 홈페이지의 메뉴 중 대구전자도서관 배너 또는 E-BOOK 서비스 메뉴를 통하여 대구전자도서관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다. 대구전자도서관으로 직접 접속하는 이용자는 소속도서관을 선택하고 로그인 정보를 입력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는 직접적인 개인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대구전자도서관의 특성상 회원가입을 받고 있는 도서관을 통하도록 서비스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이다. 향후 안내메뉴를 제거하고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18> 대구전자도서관 이용 시 불편한 점

구 분	응답자(명)	비율(%)
전자책, 오디오북 등 콘텐츠 부족	262	78.2
회원인증 방법	25	7.5
최초 접속 방법	26	7.7
기타	22	6.6
계	335	100

○ 전자책 이용 만족도

전자책을 이용한 응답자의 만족도는 보통 이상을 선택한 응답비율이 92.2%로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9> 대구전자도서관 전자책 이용 만족도

구 분	응답자(명)	비율(%)
매우 만족	76	22.7
만족	126	37.6
보통	107	31.9
불만족	23	6.9
매우 불만족	3	0.9
계	335	100

○ 전자책 선호분야

전자책 카테고리 분야 중 가장 선호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문학 27.8%, 취미·건강·여행서 24.3%, 경제·비즈니스 14.7%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책 보유비율과 대출비율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응답자의 선호도는 문학을 제외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취미·건강·여행서에 대한 선호도는 높으나 전체 전자책 중 보유비율은 1.7%이며, 실제 이용비율도 2.2%로 매우 낮은 편이다. 그 원인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대한 보유자료가 많지 않아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자료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20> 대구전자도서관 전자책 선호분야

구 분	응답자(명)	비율(%)
문학	259	27.8
경제, 비즈니스	137	14.7
인문, 사회	119	12.8
취미, 건강, 여행서	227	24.3
외국어	82	8.7
컴퓨터	33	3.5
어린이 및 청소년	74	8.0
기타(무응답/이용안함)	2	0.2
계	933	100

○ 전자책 확충 희망분야

전자책 카테고리 분야 중 향후 확충되기를 희망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문학 25.7%, 취미·건강·여행서 21.7%, 경제·비즈니스 15.7%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책 선호 분야 항목과 확충 희망분야가 일치되게 나타났다.

<표 21> 대구전자도서관 전자책 확충 희망분야

구 분	응답자(명)	비율(%)
문학	236	25.7
경제, 비즈니스	144	15.7
인문, 사회	103	11.3
취미, 건강, 여행서	198	21.7
외국어	108	11.7
컴퓨터	52	5.7
어린이 및 청소년	72	7.8
기타 (무응답/이용안함)	4	0.4
계	917	100

○ 오디오북 이용 만족도

오디오북을 이용한 응답자의 이용 만족도는 보통 이상을 선택한 응답비율이 91.7%로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22> 대구전자도서관 오디오북 이용 만족도

구 분	응답자(명)	비율(%)
매우 만족	85	25.4
만족	72	21.5
보통	150	44.8
불만족	21	6.3
매우 불만족	7	2.0
계	335	100

○ 오디오북 선호분야

오디오북 카테고리 분야 중 가장 선호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자기계발 23.3%, 문학 22.5%, 영어오디오북 17.4% 순으로 나타났다. 무응답 또는 이용하지 않는 응답비율도 4.2%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자책에 비해 오디오북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오디오북 보유비율과 대출비율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응답자의 선호도는 자기계발 분야가 약간 많으나, 실제 이용률에서는 보유 자료가 많은 문학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영어오디오북 역시 전체 오디오북 중 보유비율이 4.9%, 실제 대출비율은 6.6%로 낮으나 응답자의 선호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분야에 대한 보유 자료가 많지 않아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기계발 및 외국어 자료에 대한 자료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23> 대구전자도서관 오디오북 선호분야

구 분	응답자(명)	비율(%)
문학	188	22.5
인문, 역사	110	13.1
자기계발	194	23.3
경제, 경영	75	9.0
영어오디오북	145	17.4
동화	88	10.5
기타(무응답/이용안함)	35	4.2
계	835	100

○ 향후 오디오북 확충 희망분야

오디오북 카테고리 중 향후 확충되기를 희망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로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문학 23.0%, 영어오디오북 19.5%, 자기계발 18.4% 순으로 나타났다. 오디오북 선호 분야와 희망 확충분야와 근소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오디오북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의 오디오북이 제작되지 못하여 공급되는 분야가 편중되고 있는 현실이 향후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24> 대구전자도서관 오디오북 선호분야

구 분	응답자(명)	비율(%)
문학	197	23.0
인문, 역사	131	15.3
자기계발	158	18.4
경제, 경영	83	9.7
영어오디오북	167	19.5
동화	110	12.8
기타(무응답/이용안함)	11	1.3
계	857	100

○ 향후 개선사항

다양하고 신속한 전자자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6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시스템에 관련 내용 즉 희망도서 신청, 전자책 검색 기능, 전자책 읽기 기능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다수 있었다. 특히 전자책 읽기 기능은 유통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를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테블릿PC에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구비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현재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전자책 가독성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된다. 전자책과 오디오북의 통합인증은 오디오북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향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모바일 앱에서 각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예약기능은 실시간 반응이 어려워 기능 구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각 도서관의 모바일 앱에서의 통합이용도 저작권 관계로 인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자책 전용기기에서의 대구전자도서관 이용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대출기간과 대출책수를 확대해 주기를 요청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서비스 개시 초기 전자자료 종수가 많지 않아 3권 8일간으로 정한 대출정책을 향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표 25> 대구전자도서관 개선사항

내 용	세부 내용	응답자(명)	비율(%)
다양하고 신속한 자료 확충	전자책	199	224 66.9
	오디오북	13	
	영어자료	1	
	고전문학	2	
	인문학	1	
	전문서적	1	
	동영상 자료	1	
	만화책	1	
	과학 및 예술	2	
	자기계발	1	
	전산관련 수험서	1	
	초등학생 자료	1	
	이용 메뉴 및 시스템 개선	희망도서 신청메뉴 신설	
태블릿용 이용 환경 개선		11	
전자책 다운로드 에러 개선		11	
전자책 검색 기능 개선 (키워드 검색, 카테고리 검색, 십진분류법)		9	
회원인증 방법 개선		8	
전자책 읽기 기능 개선 (책갈피기능, 북마크 등)		6	
메뉴 개선		5	
전자책과 오디오북 통합인증		3	
디지털자료실 이용 예약기능 추가		2	
도서관별 기존 전자책과 통합해서 스마트폰에서도 이용 가능		2	
전자책 전용기기에서도 대구전자도서관 자료 이용 가능		2	
모바일회원증 바코드 스캔 가능		2	
대출정책	대출기간 및 대출책수 확대	8	2.4
무응답 / 기타도서관 서비스	—	17	5.0
계		335	

제5장 결론 및 제언

도서관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에는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의 수행, 4. 지역의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지역대표도서관에서는 지역의 시·구립 도서관과의 협력으로, 개별 도서관 단위의 전자자료 관련 예산 부족 및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자료 이용 증가에 따른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통합 전자도서관 서비스 모델로 ‘대구전자도서관’을 구축하였다.

그 운영 결과 도서관별 중복된 전자자료 배제, 다양한 전자책·오디오북 확충, 일반도서관의 모바일 서비스 기능을 통합한 통합 모바일 앱 구현으로 시민들의 전자자료 이용 증가와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별 도서관에서 확보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전자자료 구입비를 지역대표도서관에서 확보함으로써, 공동 자료 활동과 더불어 단위 도서관의 전자자료 예산 부담도 덜어주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전자책 등의 신속하고 다양한 자료 확충, 전자자료 콘텐츠 다양화, 이용자 편의 중심의 시스템 업그레이드,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 확대 등은 향후 개선이 요망된다. 자료 구입 방법도 연 2~3회 경쟁 입찰에 의해 이루어지면 신간 자료 입수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져, 이용자에게 신속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계약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대표도서관 중심의 통합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연계를 통한 서비스 방식이 적절하다.

대구지역의 전자자료 통합서비스는 회원개인의 동의와 도서관의 확인절차를 필요로 하는 제한적 의미의 통합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참여 공공도서관의 대출 회원이 홈페이지 회원으로 계승되어, 전자자료 서비스 수혜 범위는 개별 참여도서관의 대출회원 범위와 동일하게 같이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전자자료도 종이책의 대출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함으로써 전자자료 통합 제공에 따른 저작권자

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시립도서관과 구립도서관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회원 데이터의 통합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의 등록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해야 하므로 참여도서관의 등록회원이라 하더라도 대구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전자자료 뷰어프로그램 및 모바일 앱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전자책 또는 오디오북 유통업체마다 디지털원문을 볼 수 있는 뷰어프로그램이나 모바일 앱 등이 서로 다르다. DRM(Digital Right Management)이 표준화되어있지 않아 업체별로 서로 다른 DRM이 적용된 뷰어를 사용하므로 이용자는 제공업체별 앱을 별도로 설치해하는 불편이 크다.

즉 이용자들의 편의성 보다는 공급자들의 필요에 의하여 현재의 시장 환경이 형성되어 있는 전자자료는 이용자가 불편함을 감수하거나 특정 업체의 서비스만을 도입해야하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대구지역 통합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용자 편의성을 우선하는 서비스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된 업체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공청회를 실시, 현재의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그럼에도 통합뷰어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의 자료는 납품이 되지 않아 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자료를 원활하게 구매할 수 없는 한계점도 있다.

따라서 도서관에 공급되는 모든 전자자료에 대해 이용자 중심의 가독성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업체와의 계약협상에서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방식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제한된 몇 개 업체가 아니라 다양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양질의 다양한 전자자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만 납품 업체 중심의 기술지원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세째, 원활한 전자자료 선정을 위해 미리보기 화면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전자책 판매업체는 교보문고, YES24, 북큐브, 메키야, 우리전자책 등 5~6개 업체에 불과하다. 전자책 수서과정에서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업체에서 전자책의 대한 정보는 작품소개, 저자소개, 목차, 출판사 서평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작 작가의 개성 있는 표현과 문체 등 세밀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미리보기'를 할당하는데

인색한 회사가 많다는 것이다. 전자책은 소비자들이 종이책과 달리 일단 구입하면 반품이 불가하므로 구매하기 이전에 해당 자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매를 위한 클릭이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의 입장을 우선하여 전자책 유통업체에서는 ‘미리보기’란을 기본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도서관에서도 지속적인 요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네째, 전자자료도 일반도서와 동일한 도서분류표 도입이 필요하다.

전자책 및 오디오북의 경우 KDC 등 도서분류표에 의한 분류가 아닌 핵심 주제 별로 나누어 별도의 카테고리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카테고리 분류는 관리적 측면에서 일반도서와 전자자료의 이용 경향 등의 비교분석을 위해서 일반도서와 동일한 도서분류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의 전자책 분류는 B2C판매 사이트에서 이용자의 흥미위주로 편성되어 별도의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납품된 전자책도 동일한 분류를 적용하여 전자도서관을 구성하고 있다. 때문에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십진 도서분류와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혼선이 발생하고 나아가 통계나 자료정리 시에도 추가적인 십진분류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일반자료와 전자자료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십진분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자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별 이용법에 관한 안내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용자가 처음 전자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자료 검색과 뷰어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연령대는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며 이들 개인의 컴퓨터 활용 능력도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이용자들의 요구와 질문을 수용하기 위한 이용법 동영상 등 별도의 안내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참여도서관 업무담당자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통합 전자도서관 서비스 이후 참여도서관의 전자자료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져 민원에 대한 대처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즉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애로점이나 문제점을 제기할 때 각 도서관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도서관 업무

담당자에게 모두 이관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바꿀 경우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서비스 상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해야 하나, 긴밀한 업무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참여도서관 업무담당자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 체제 구축으로 전자도서관 서비스 모니터링 요원의 역할을 부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서비스 항목별로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서비스 오류를 개선하여 질 높은 전자도서관 서비스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 국회의원 윤관석,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전자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3. 6. 26.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김기욱 외. 2013. 『한국 전자출판을 말한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1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년 전국 도서관 운영 평가 결과보고서』.
- 이정혜. 2011.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전자도서관 운영사례” [도서관문화]. (2011년 6월)
- 정현태, 이진우, 송재술, 장보성. 2011. 『자치단체 단위 공공도서관 전자자료 공동서비스 기본모형연구』.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연구보고서 9.

소규모 농어촌 도서관 운영 모델 연구

▣ 발 표 자

제주 안덕산방도서관 사서
정 미 숙

소규모 농어촌 도서관 운영 모델 연구

제 출 자 | 제주 안덕산방도서관 사서 정 미 숙
 제주 조천도서관 사서 신 승 훈
 제주 표선도서관 사서 오 순 향
 제주 성산일출도서관 사서 송 영 옥
 제주 애월도서관 사서 정 선 주

◆ 목 차 ◆

I. 들어가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문제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1. 국내 공공도서관 운영 선행 연구
2. 국외 지역단위 도서관 운영 사례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도서관 운영 사례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2. 연구 절차
3. 연구 도구
4. 자료 분석 방법

IV. 연구 결과 해석 및 논의

1. 농어촌 도서관 운영 실태 분석 및 해석
2. 농어촌 도서관 운영 모델 제시
3. 모델 적합도 질문지 분석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I. 들어가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공공도서관은 지역 주민에게 정보 제공과 독서문화의 공간으로 점점 더 그 역할과 기능이 증대되고 있는 곳이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 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립지원 확대로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¹⁾ 이에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지역에도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도서관들이 건립되고 있다.

현재 농어촌 도서관이라고 할 만한 규모의 도서관을 그 소재지의 행정단위로 분류하여 보면 ‘작은도서관’을 제외하고 전국 공공도서관 828²⁾개 중 군(君)지역에 32개, 읍(邑)면(面)지역에 244개 등, 총 276개 정도로 전체 도서관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어떤 공공도서관이라도 ‘공공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이상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공공도서관이 가진 가치와 목적과 사명에 부합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에 건립된 공공도서관은 적은 인구, 낮은 이용률로 인력 운용과 예산 지원 등이 소속기관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다. 따라서 그 이름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개관 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운영 모델의 부재는 농어촌 도서관으로 하여금 대규모 공공도서관에서 수행하는 기능 및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게 하기도 한다. 이는 적은 인원과 작은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업무로 직원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함께 이용자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지나치게 소극적인 운영은 지역 주민들의 외면과 저조한 이용을 초래하여 공공도서관 존재의 가치를 떨어뜨림과 동시에 지역사회 도서관 신규 건립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행히도 요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본격적인 귀농 귀촌 현상이 일고 있다.³⁾ 그러나 실제로 귀농 귀촌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로 농어촌지역의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조사⁴⁾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귀농 귀촌에

1)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공공도서관 증가 추이 분석

2)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http://www.libsta.go.kr>)

3) 통계청 2013. 3.28. 보도자료 ‘2012년 귀농 귀촌인 통계’

따른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은 농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며 지역 공공도서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농어촌 도서관의 활성화는 지역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으며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진이 소속된 제주 지역은 최근 귀농 귀촌 현상이 두드러진 지역 중의 하나⁵⁾로 도서관 1개관당 서비스 대상 인구가 27,429명이고 1인당 장서 수는 3.27권으로 인구 대비 도서관 수와 장서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다.⁶⁾ 또한 읍면 1도서관 체제로 2000년을 전후해 모든 읍면지역(일부 도서지역 제외)에 도서관을 건립해 시(市)지역에 있는 큰 규모의 도서관 수보다 오히려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도서관 수가 더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규모 농어촌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더 기대되고 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제주지역 농어촌 도서관의 발전과 활성화에 주목하여 전국의 소규모 농어촌 도서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외 연구와 사례를 참고하고 국한편, 현장 사서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농어촌 도서관에 적합한 운영 모델을 제시하여 농어촌 도서관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해 지역 도서관의 운영 사례를 알아보고 농어촌 지역에 건립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사서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의 합리적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 첫째, 현재 국내·외 소규모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둘째,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시한 운영 모델이 전국적으로 적합한가?

4) 경향신문 2013. 4.11(목) “대도시 거주자 절반이상 귀농귀촌 희망”

5) 조선일보 2013. 6.13(목) “제주 移民 늘어 인구 60만”

6)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12년 공공도서관 당 인구수 및 1인당 장서 수’

3.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

본 연구의 범위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국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중 일부를 샘플링하여 조사,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함에 따라 모든 도서관의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국 농어촌 도서관의 여건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운영 모델은 공공도서관 운영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조직, 인력, 자원, 이용자 서비스 등 주요 몇 개 항목만을 제시한 것으로 그 외 운영 요소들은 다루지 않았다.

셋째, 본 연구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선 사서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타 직원들 및 이용자의 요구와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

1. 국내 공공도서관 운영 선행 연구

김영석(2007년)⁷⁾은 영국 공공도서관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대형도서관은 더 이상 짓지 말고 소형도서관을 더 많이 지어야 한다. 분관 위주의 마을 도서관을 짓되 너무 작으면 도서관의 역할이 어려우므로 70~80평 규모의 작은 도서관 운영이 바람직하다. 둘째, 아무리 작은 도서관이라도 정규 사서 1명 이상은 꼭 배치함과 동시에 자원 봉사자를 활용하고 ‘도서관 친구’와 같은 도서관 관련 시민단체를 육성하고 참여시킨다. 그리고 셋째, 작은 도서관으로는 모든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므로 기존의 공공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7) 김영석(2007)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확충 방안 연구 : 영국의 작은 공공도서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29-48

이용남(2006년)⁸⁾은 우리나라 분관체제에 대한 문제점을 설문조사와 사례분석으로 도출하고 효율성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관이 필요한 이유는 이용자 확대와 서비스 증진이 우선이며 그 다음으로 경영의 효율성이라고 보고 분관의 유형을 그 기능에 따라 ‘종합서비스 분관’, ‘자료대출 분관’으로 나누고 그 장단점을 비교하였다. 분관체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관 운영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는데 중앙에 비해 인원이 적어 주 5일제 운영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분관장의 대외적 지위에 대표성이 없어 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례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분관의 효율성 증진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분관체제는 대체로 경영 효율성과 함께 동시에 서비스 증진을 추구하는 모델에 맞춰가려고 하나 중앙장은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 분관장은 서비스 증진 측면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형에 따른 분관 구분(종합서비스 분관 또는 자료대출 분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대출 분관의 개념에 공립 문고까지도 포함해서 지방정부의 제도권 봉사거점을 [중앙>분관>이동도서관>공립문고>순회문고] 로 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능 위주의 조직이 아닌 행정 편의로 멀리 떨어진 분관은 독립적인 도서관으로의 환원이 필요하며 분관 직원의 사기와 인사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는 한편 분관장의 위상과 활발한 대외활동을 위한 대안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동훈(2010년)⁹⁾은 농어촌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도서관이 시설, 장서, 직원 및 예산 등에서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군(君)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분석에서 이용자 대상 및 연령층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함께 노령화 증가를 대비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현재는 주로 도서 대출, 반납이 목적이거나 다양한 문화, 취미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 차원의 중요도 분석에서 기대치와 지각(知覺)치가 모든 면에서 직원 및 시설이 1, 2위로 나타나는 만큼 농어촌 도서관 운영에 직원과 시설의 역할이 크다고 하였다. 또한 서비스 품질 차원의 개선 요인으로 자료, 시설, 프로그램, 직원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신간 및 향토자료의 충분한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과 이용자 맞춤형 수서가 필요하며 낡은 시설

8) 이용남(2006)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분관 운영 체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1),353-372

9) 이동훈(2010) 군(君)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 분석 : 서부 경남 5개 군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리모델링 등을 위한 충분한 예산도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조윤희(2010년)¹⁰⁾는 행정구역권을 기반으로 한 공공도서관과 중·소규모의 도서관들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과 일본 그리고 부천시 사례를 분석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공공도서관 1개관보다 행정구역의 지리적 요건을 감안한 주민 생활권에, 여러 개의 중·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둘째, 중앙관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 집중식-분관 등급형 모형을 제안하였다. 셋째, 중앙관과 분관은 기능을 분담하여 정책 및 주요 의사결정, 인사, 예산, 회계, 자료 구입 및 정리 등의 업무는 중앙관에서 처리하고 이용자 봉사나 독서문화 프로그램 등은 분관 혹은 작은도서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행정구역권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주민의 특성을 감안한 특성화된 전문도서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공공도서관은 전 주제를 망라하는 중앙관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분관형태의 전문서비스로 주제의 포괄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 주민에게 도서관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을 넘어 마을도서관으로서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장엄규(2010년)¹¹⁾는 남원시립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소규모 지역 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의 특수한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특화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특수계층 프로그램 마련과 모바일 전자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장서 특성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전문교육 참여가 요구된다. 넷째, 장애인과 노약자, 다문화 이용자를 위한 시설과 도서관간 교류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자 접근성이 좋은 곳에 도서관 신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윤희운(2011년)¹²⁾은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장애인, 다문화, 노인, 농어촌 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다섯 계층으로 나누고 이를 대상으로 지식정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중 농어촌 지역 서비스와 관련하여 취약계층은 독거노인, 조손가정, 여성 농업인, 다문화가족, 장애인 등이며 이들의 도서관 이용 목적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자료 이용, 열람실 이용 순으

10) 조윤희(2010) 공공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177-197

11) 장엄규(2010) 소규모 지역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남원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12) 윤희운(2011)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 전략.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3(2). 53-75

로 높았다. 한편,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용 시간이 맞지 않아서, 교통이 불편하거나 양질의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육기간이 짧아서, 경제적 이유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어촌 도서관 프로그램은 이용희(2010)의 논문을 들어 농어촌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예술과 건강, 취미에 관한 프로그램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결론으로 취약계층서비스는 각 계층별 맞춤형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최적성을 추구하되 각 계층별 규모와 범위를 감안하여 통합성과 경제성을 감안해야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서 지역 대표도서관이나 지역 거점도서관이 취약계층을 위한 자료 서비스나 프로그램의 표준모형을 개발하고 협력시스템을 통하여 공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류희경(2012년)¹³⁾은 공공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 방안에 대하여 ‘경기도 도서관의 신설’ 사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도서관 조직은 통합하고 이용 서비스는 분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수서, 정리, 문화프로그램 기획, 대출, 반납 등 통상적인 업무는 통합하여 중복을 해소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반면, 이용 서비스는 지역 주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둘째, 도서관의 전문인력 비율을 높여서 도서관 전문 운영을 수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윤희운(2012년)¹⁴⁾은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을 분석하여 최소 개관시간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기준을 봉사대상인구를 기준으로 6개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개관시간을 제시하였는데, 인구 1만 미만은 총 45시간, 1만~2만은 50시간, 2만~5만 미만은 55시간, 5만~10만 미만은 60시간, 10만~30만 미만은 65시간, 그리고 30만 이상 봉사하는 대규모 도서관 및 지역 대표도서관은 70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인구 2만명 미만을 봉사하는 소규모 도서관은 자치단체나 도서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관 및 폐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13) 류희경(2012)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9. 11-15

14) 윤희운(2012) 국내·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기준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4(1). 49-71

2. 국외 지역단위 도서관 운영 사례

이현숙(2012년)¹⁵⁾은 뉴저지 주(州) 포트리공공도서관과 잉글우드 도서관의 운영을 소개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원하는 지역 도서관의 풍경을 소개하였다. 포트리 공공도서관은 주택가에 위치하여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 이주민들을 위하여 18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를 한다고 한다. 또한 잉글우드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한 곳으로 평생교육 개념의 공공도서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곳으로 소개했다. 또한 도서관 내부는 북카페처럼 아늑하고 어린이 열람실도 아동의 흥미를 끌기 위한 세심한 공간 구성이 신선했다고 전했다.

Long, Sarah Ann(2005년)¹⁶⁾은 Illinois 주(州)에 ‘지역 도서관 시스템(Rigional Library System)’의 창설이 많은 새로운 도서관 설립을 돕고 도서관 서비스의 확장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지역 도서관 시스템’이란 자원 공유(Resource Sharing)와 도서관 발전(Library Development)에 중점을 둔 시스템으로 4개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즉, 신규 도서관 개관과 기존 도서관의 확장, 개별 도서관에서 수행할 수 없는 규모가 큰 프로젝트 추진에서의 협력 그리고 자원 공유를 통한 효율적 업무수행 부문 등의 영역에서 지역 도서관 시스템이 도서관 발전의 촉매 역할로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강애라(2009년)¹⁷⁾는 일상 속에서 함께하는 영국의 공공도서관을 소개하면서 직장인이 많은 곳은 좀 늦게 열고 늦게 닫고, 노인층이 많은 곳은 일찍 열고 일찍 닫으며, 아이들이 많은 지역은 방과 후 방문 시간에 맞춰 행사를 진행하는 등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한다고 하였다. 작지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짜임새 있게 운영하여 주민들의 일상에 깊이 파고든 영국 소규모 도서관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연구진은 김영석(2007년)¹⁸⁾의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읍면 소재지 정도 규모의 도서관이라고 소개한 서크로프트 도서관(Thurcroft library)을 구글(Google)에서 찾아보았다. 바로 ‘Thurcroft Community Library’로 검색이 되고 다음 [그림1] 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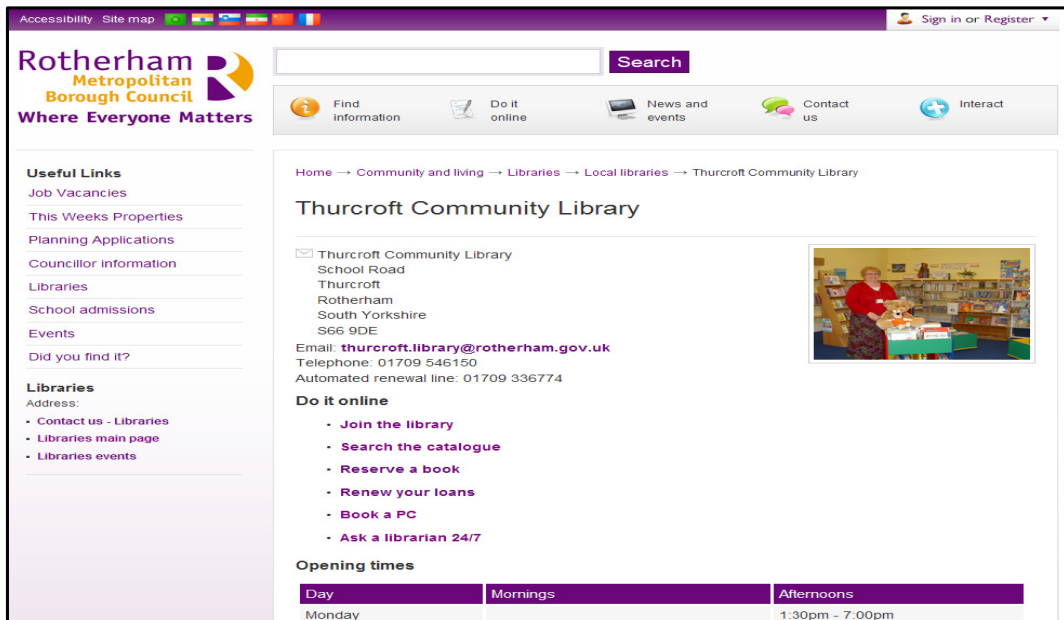
15) 전국학교도서관담당자 서울모임 지음 “북미도서관에 끌리다”, 우리교육, 2012

16) New Library World Vol 106, Issue 11/12(2005) 556-558 “Regional library Systems : a tale of cooperation that grew America’s public libraries”

17) 전국학교도서관담당자 서울모임 지음 “유럽 도서관에서 길을 묻다”, 우리교육 2009

18) 김영석 문헌정보학논집 9호 “영국 공공도서관에서 창원의 마을도서관 발전을 위한 희망 찾기” p.24

이 도서관 웹 사이트¹⁹⁾로 연결되어 있다. 이 사이트는 영국 잉글랜드 북부 요크셔 (Yorkshire) 주(州) 남부의 도시 로더럼(Rotherham)지역의 공공도서관 운영시스템 ‘Rotherham Library’ 메인 페이지²⁰⁾에 링크되어 있다. 그 지역의 모든 도서관이 메인 도서관과 연결되어 있어 작은 마을 도서관도 도서관명을 검색하면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사이트는 주소와 연락처, 휴관일 안내와 온·오프라인별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와 찾아오는 길 등의 소개 정도로 간략하지만 꼭 필요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Thurcroft Community Library 메인 화면

특이한 것은 개관시간이 요일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표 1>과 같이 월요일은 오후 1:30분부터 오후 7:00까지 열고 화요일은 오전 10:00시부터 오후 12:30분까지, 그리고 오후 1:30분부터 오후 5:00까지 2회에 걸쳐 개관하는 등 지역의 사정에 맞게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19) http://www.rotherham.gov.uk/info/200161/local_libraries/1116/thurcroft_community_library

20) <http://www.rotherham.gov.uk/info/200062/libraries>

<표 1> Thurcroft Community Library 운영시간

Day of the Week	Mornings	Afternoons
Monday		1:30pm - 7:00pm
Tuesday	10:00am - 12:30pm	1:30pm - 5:00pm
Wednesday	Closed	
Thursday	10:00am - 12:30pm	
Friday	10:00am - 12:30pm	
Saturday	9:30am - 1:00pm	
Sunday	Closed	


이처럼 영국 공공도서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도심의 큰 도서관과 로컬(local) 또는 커뮤니티(Community)도서관과의 관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지역은 앞서 언급한 선행 연구를 통해 일리노이(Illinois) 주(州)의 도서관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작은 규모의 도서관은 지역 전체와 어떻게 네트워크 구축이 되어 있는지 웹 사이트를 통해 알아보았다. 일리노이 주 소재 플라노 공공도서관(Plano Community Library District)²¹⁾과 모케나 공공도서관(Mokena Community Public Library District)²²⁾ 2곳을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하였다. 각각의 홈페이지는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구글(Google)에서 검색어로 쉽게 검색 되었다. 도서 검색은 'PRARE CAT'이라는 목록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도서명을 입력하면 [그림 2]처럼 이용 가능한 도서의 형태, 포맷, 소재지 등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다. 이용가능한 도서관의 범주에 학교 도서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 도서관과도 목록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1) <http://www.plano.lib.il.us/index.html>

22) <http://www.mokena.lib.il.us/>







You are not logged in | My Book Cart (0 items) | Login

Search Advanced Search 

Did you mean: [whats the safest thing to do??](#)

Results 1 - 25 of 31 for What's the Right Thing to Do

Sorted by [Relevance](#) | [Title](#) | [Date](#) 1 2 next

<ul style="list-style-type: none"> Avail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 the library (26) Online (1) Form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BOOK (21) SHEET MUSIC/SCORE (5) MUSIC CD (2) LARGE PRINT BOOK (1) E-BOOKS (1) more > Libra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Juvenile (4) Alleman High School (1) Black Hawk College (1) Bourbonnais Public Library (2) Byron Public Library (2) more > Found 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Title (10) Publish D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3 (2) 2012 (1) 2011 (3) 2010 (4) 2009 (2) more >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10px;"> <p> Justice : what's the right thing to do? / Michael J. Sandel Sandel, Michael J. New York : Farrar, Straus and Giroux, 2009. 1st ed. Items (9 items available) <input checked="" type="checkbox"/> Request it</p> </div> <div style="border-bottom: 1px solid #ccc; padding-bottom: 10px;"> <p> Justice : what's the right thing to do? / Michael J. Sandel Sandel, Michael J. New York : Farrar, Straus and Giroux, 2010. 1st pbk. ed. <input checked="" type="checkbox"/> Contributor biographical information <input checked="" type="checkbox"/> Publisher description <input checked="" type="checkbox"/> Sample text Ella Johnson Memorial PL Stacks - EJMY-11 172 SAN AVAILABLE Items (1 item available) <input checked="" type="checkbox"/> Request it</p> </div> <div> <p> Justice [sound recording] : what's the right thing to do? / Michael J. Sandel Sandel, Michael J. New York : Macmillan Audiobook, p2009. 0600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Publisher description <input checked="" type="checkbox"/> Contributor biographical information Ella Johnson Memorial PL Stacks - EJMY-11 ACD 172 SAN AVAILABLE Items (1 item available)</p> </div>	  
---	---	---

[그림 2] 모케나 공공도서관 사용 공동목록시스템 'PRARE CAT' 검색 화면

캐나다 지역의 도서관은 김은정 사서교사가 ‘북미도서관에 끌리다’²³⁾라는 책에서 소개한 토론토 공공도서관을 살펴보았다. 토론토 내 공공도서관은 별도의 본관이 존재하지 않고도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100개의 마을도서관 개념의 도서관들이 조직적으로 유지 발전되고 있다고 하였다. 프로그램도 대상과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된다고 하였는데 대형 도서관급인 토론토 레퍼런스 도서관의 마케팅 담당 부서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체 도서관이 함께 진행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특정 도서관을 선정한다고 한다. 개별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마케팅 담당부서에 제시하면 토론토 공공도서관 전체 안내책자에 실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토론토 시민 대부분이 지역 도서관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행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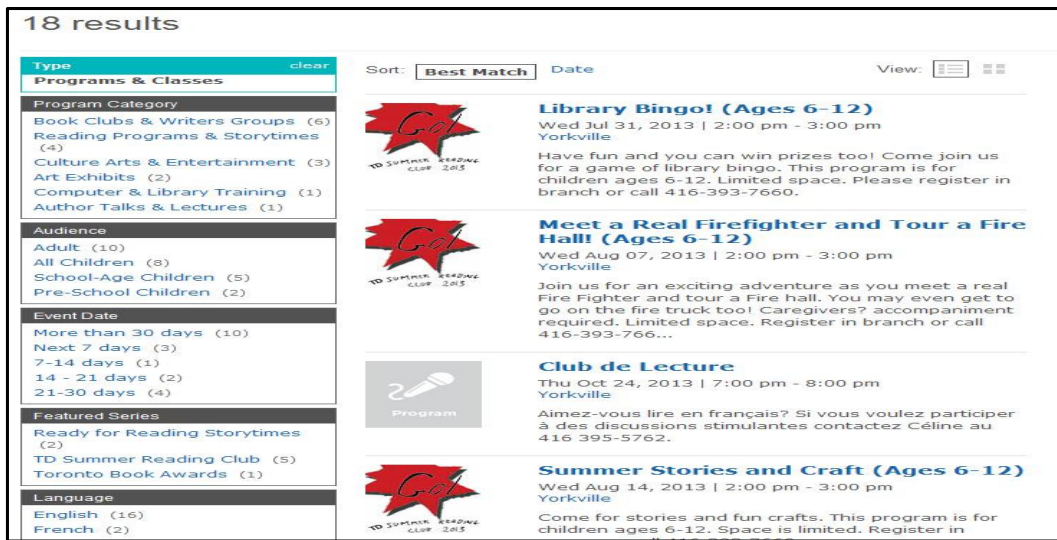
실제 ‘지역 도서관(Neighbourhood Library)’이라고 소개한 요크빌(Yorkville Toronto Public Library)²⁴⁾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보았다. 토론토 도서관 메인 홈페이지²⁵⁾에서 ‘Hour & Location’ 메뉴를 누르

23) 전국학교도서관담당사 서울모임(2012.)『북미도서관에 끌리다』, 우리교육

24) <http://www.torontopubliclibrary.ca/detail.jsp?R=LIB097>

25) <http://www.torontopubliclibrary.ca/>

면 도서관이 위치한 지도와 분관 도서관(Library Branch)이 나온다. 토론토시 전체 도서관 서비스를 통합 홈페이지 내에서 대부분 알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서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요크빌 공공도서관에서는 현재(2013년 7월) 18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전 연령층을 고려해 영아, 유아, 청소년, 성인 프로그램 등을 고루 반영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이벤트 프로그램, 고정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었다. 당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이벤트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 청소하기’, ‘도서관 빙고게임’, ‘소방서를 방문해 소방관을 만나 보는 체험활동’ 등이 진행 중이었으며 고정 프로그램으로는 ‘책 읽기’, ‘요크빌 북클럽’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오른쪽 하단 ‘All Branch Programs & Events’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토론토 내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 및 이벤트를 모두 알 수 있고, 도서관별 혹은 주제별, 나이별, 운영기간별로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림 3] 캐나다 토론토 공공도서관 요크빌 분관 운영 프로그램 화면

프로그램 중 ‘고정 프로그램(Regular Programs)’은 우리나라 지역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진행하고 있는 ‘문화강좌’, ‘독서동아리’ 등의 프로그램과 성격이 유사해 보였지만 종류가 많고 다양했으며 장시간의 운영기간을 고려해 주로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많았다.

‘이벤트 프로그램(Upcoming Events)’은 우리나라 지역 공공도서관에서의 ‘문화 행사’ 성격으로 하루 한 두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짧고 지속적이지 않은 이벤트성 프로그램이다. 주로 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았고, 종류도 매우 다양했으며 요크빌 도서관의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달에 4~5번 정도로 횟수도 잦았다.

지역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대형급 도서관에서 조정함으로써 관내 가까운 지역 공공도서관끼리 서로 겹치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최소화함은 물론 이용자들이 선택적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함에 따라 각 지역 공공도서관들은 기관별 여건에 맞게 나름의 고유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영국, 미국, 캐나다 도서관의 운영 사례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 개념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시스템이 작은 도서관들까지 연결되어 있어 시스템내의 지역에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이용자들은 동일한 정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관중뿐만 아니라 학교 및 대학까지도 시스템을 확대하여 지역 공동체의 모든 정보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었다.

둘째, 지역 도서관의 경우 작지만 이용자별 지역적 특성을 살린 서비스를 실시하고 개관시간도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도 지역별 전체적인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겹치지 않고 다양하며 계층별, 주제별, 지역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도서관 운영 사례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의 운영 현황

26)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은 제주도서관의 전신인 제주도립도서관이 1957년 개관한 이래 1960년대에 서귀포학생문화원도서관(서귀포시립도서관 전신)이 개관

26) 제주문화예술 60년사 편찬위원회 지음 “제주문화예술 60년사 3”, 제주특별자치도, 2008.

하였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서 제주시 우당도서관과 탐라도서관, 서귀포시에 삼매봉도서관이 건립되었다. ‘1읍면 1도서관’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1990년대에 한수풀도서관, 송악도서관, 중앙도서관, 동녘도서관 등이 개관하였고, 2000년대에 동부도서관, 안덕산방도서관, 한경도서관 등이 개관함으로써 추자면과 우도면을 제외하고 모든 읍면에 도서관이 설립되었다. 또한 2008년 제주지역 대표 도서관인 한라도서관이 개관함으로써 총 21개의 공립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18개로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가 9개소를, 제주시 문화예술과가 9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그 외 제주도에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사립도서관이 16개 있고, 문고가 153개소가 있다. 이 중 사립과 문고를 제외한 도서관 운영을 그 주체별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도서관이 1개, 제주시 소속 도서관이 6개, 서귀포시 소속 도서관이 8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6개관으로 4개 기관으로 분산되어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1관당 인구는 27,429명이고 평균 건물 연면적은 46,705㎡, 1인당 장서는 3.27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표 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별 운영주체별 도서관 운영현황

운영주체 규모(관종)	계	도	교육청	제주시	서귀포시
계	39	1	6	15	17
지역대표도서관	1	1			
시,동지역 도서관	10		2	3	5
읍면지역 도서관	10		4	3	3
작은도서관	18			9	9

2)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농어촌 도서관의 운영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 21개 중 읍면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은 자치단체 소속이 6개이며 이 중 제주시 소속이 조천, 애월, 한경도서관으로 3개관 운영되고 있으며 서귀포시 소속이 안덕산방, 표선, 성산일출도서관으로 3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교육청 소속 읍면 지역 도서관은 동녘, 제남, 송악, 한수풀도서관으로 4개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도서관의 평균 면적은 1,694㎡이고 평균 장서 수는 72,673권, 봉사 대상 인구수는 평균 16,449명,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186명 정도이며 직원은

평균 5명, 사서는 평균 2명이다.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의 조직은 시(市)의 과(課)소속 담당(계)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청과 달리 관장 직위가 없는 6급 담당이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조례에 의거하여 8시부터 22시까지로 1인이 4~5일에 1회 정도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직원 대부분이 제주시나 서귀포시 동(洞)지역에 거주하여 출퇴근의 어려움 등으로 농어촌 도서관 근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각 도서관의 기본적인 현황은 다음 <표 3>²⁷⁾과 같다.

<표 3>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 농어촌 도서관 운영 현황

도 서 관	소 속	면 적 (㎡)	장서수 (권)	직원(사서) (명)	봉사대상 (명)	이용자수 (명)	일 평균 (명)
평 균		1,694	72,673	5.3 (2.2)	16,449	56,876	186
조천 (조천읍)	제주시청	1,231	56,708	6 (1)	20,763	75,328	
애월 (애월읍)	제주시청	1,447	56,877	4 (2)	29,448	61,040	
한경 (한경면)	제주시청	1,048	45,301	4 (1)	8,247	40,348	
안덕산방(안덕면)	서귀포시청	1,838	64,077	5 (2)	10,007	64,737	
표선 (표선면)	서귀포시청	1,926	60,169	5 (2)	10,983	53,445	
성산일출(성산읍)	서귀포시청	2,115	81,970	6 (2)	14,364	53,016	
송악 (대정읍)	교 육 청	1,200	90,098	5 (3)	17,198	52,878	
한수풀(한림읍)	교 육 청	2,144	99,009	6 (3)	20,509	72,900	
동녘 (구좌읍)	교 육 청	2,077	79,953	7 (3)	14,688	43,626	
제남 (남원읍)	교 육 청	1,919	92,570	5 (3)	18,285	51,447	

이 중 연구자들이 속한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들의 운영 현황과 특징적인 몇 가지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애월도서관은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봉사 대상 인구는 29,448명이고 제주도에서 가장 큰 면적과 마을이 있고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내 이주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도서관이다. 이주여성에게 2007년의 ‘한글교육’을 시작으로 ‘아시아스타트’ 등 다채로운 이주여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서관 내 다문화 컴퓨터 시설을 만들어 이주여성들이 편하게 도서관을 찾

27) 2012.12.31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청 통계정보(<http://jeju.go.kr>) 주민등록인구통계결과

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한경도서관은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봉사 대상 인구는 8,247명으로 제주도 읍면지역 도서관 가운데 봉사 대상 인구 및 이용자 수가 가장 적은 도서관이다. 농업기반의 산간지역이고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현실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 착안, 2007년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3년부터는 지역 내 15개 마을회관에 각각 문고를 설치하여 분기마다 500여권의 도서를 제공하고 있다. 각 마을회, 청년회, 부녀회 등 마을단체와 협조하여 문고가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 겸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문화 사랑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노인층과 남성층의 정보화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아 지속적인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안덕산방도서관은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봉사 대상 인구는 10,007명으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나 최근 펜션, 게스트하우스, 카페 등을 목적으로 이주하는 귀촌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인근 대정읍에는 국제영어도시가 건립되어 3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등 복합적인 문화적 서비스가 요구되는 지역의 도서관이다. 도서관에서는 최근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국제학교(KIS) 학생들과 지역 아동들을 연계하여 ‘영어동화읽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최근 늘어나는 중국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중국어 교육과 논어강좌 등 중국 관련 인문학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찾고 있다.

표선도서관은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봉사 대상 인구는 10,983명이며 제주도에서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인 남원읍과 접해 있어 최근 귀농민의 도서관 이용이 많은 도서관이다. 표선도서관은 독서회와 쿼트, 서예 등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것이 특징인데 특히 2006년에 결성되어 현재도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흰모래어머니독서회’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흰모래어머니독서회에서는 지역 아동들의 독서 지원과 연극 및 동극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은 물론 인터넷 카페도 개설하여 표선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 책 읽어주기와 독서지도 그리고 연극공연도 ‘재능기부’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등 자원 봉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성산일출도서관은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도서관으로 봉사 대상 인구는 14,364명으로 근래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등에 따른 성산일출봉을 찾는 관광객 증가와 방학을 이용해 부모와 아이들이 한 달 정도 지역에서 지내는 단기 체류자들의 증가로 이용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곳이다. 지역의 문화소외계층 아동을 위하여 성산 지역아동센터 3곳을 기관별로 순회하는 ‘찾아가는 전래놀이체험’ 프로그램과 날로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의 관광 인프라 구축에 동참하고자 ‘생활중국어 교실’을 여는 등 지역 주민의 요구에 적극 맞춰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단기체류 관광객을 위한 ‘제주설화교실’, ‘곶자왓 탐방’ 등 제주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적극 개설할 예정이다.

종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어촌 도서관은 최근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그에 맞춰 지역별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로 이주한 귀농 귀촌인들은 비교적 인구가 적은 읍면 지역에 의외로 양호한 시설의 도서관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대부분 이용에 만족해한다. 이들의 도서관 이용 및 도서관에 대한 다양한 요구는 조용한 지역 도서관을 활기 있게 해주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 공공도서관의 존재가 그 지역으로 사람을 오게 하는 이주 고려사항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제주도 도서관 운영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최근 불고 있는 각 자치단체의 귀농인 유치 전략 중 하나로 인근에 공공도서관이 있음을 부각시키는 것도 좋은 홍보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의 특징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도서관 수와 장서수가 인구대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곳이다. 실제로 차량으로 제주도를 한 바퀴 돌면 15분마다 도서관을 하나씩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도서관이 도(道)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반면 사서 배치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도서관 수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며 제주지역 대학에 관련학과 및 교육기관이 없어 사서자격증 취득이 어렵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 그리고 인구당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인구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동(洞)지역에 위치한 도서관들도 몇몇 도서관을 제외하면 규모가

크지 않다. 반면 읍면 지역의 도서관은 ‘문화의 집’ 기능을 병행할 수 있게 건축되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인구가 넓은 지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도서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는 특징도 있다.

이용자 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서귀포시 8개 공공도서관은 2010년부터 ‘책두레’ 상호대차 서비스를 주 2~3회 실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욕구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2013년 9월 현재는 제주시 6개 도서관과 지역 대표도서관인 한라도서관과도 상호대차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통합 홈페이지도 구축 중(2013년 완료예정)에 있다.

이러한 통합서비스는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들이 농어촌 지역 도서관까지 RFID 시스템을 모두 구축한 결과로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의 통합과는 달리 조직의 통합(운영주체의 일원화)은 이뤄지지 않아 소속기관별 근무여건이 동일하지 않고 교류와 소통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런 통합시스템이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까지 연계되지 못하여 이용자의 혼선을 초래하고 서비스 제한의 아쉬움도 있는 실정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소규모 농어촌 도서관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소규모 농어촌 도서관의 운영상황을 조사 분석하여 모델을 제시하고 제시한 모델이 적합한지의 적합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소규모 농어촌 도서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전남, 충북, 충남, 제주까지 총 9개 권역별 24개 도서관을 샘플링 도서관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도서관 선정은 지역별 한국도서관협회 단체 입회 기준으로 3급 이하이고 (사) 공공도서관협의회 도서관 등급 기준으로는 B·C등급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평가 그룹핑 중 소그룹 대상 도서관 중에서 선별하였다. 소속별로는 지자체와 교육청 비율을 반반씩 배분하였다. 9개 권역별로 2곳을 기본으로 하고 최근 귀농 인구가 많이 유입된 경북은 2곳, 그 다음 순위인 전남과 경남지역은 각각 1곳을 추가

하였다.²⁸⁾ 그리고 제주지역은 전국적인 통계수치에서는 미미하지만 최근 인구 이동이 농어촌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2곳을 추가하였다.

2. 연구 절차

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24개의 도서관에 대해 권역별 연구자를 선정하여 전화로 취지를 간단히 설명한 후 전자메일로 사서면담자료를 배부하였다. 응답자는 사서로 한정하였으나 자치단체소속 도서관 중 1곳은 사서가 없어 본관 담당사서에게 질문지를 받아 분석하였다. 질문지 회수 후 내용이 많이 누락된 도서관은 전화로 재질문하여 이를 추가 반영하였다.

3. 연구 도구

1) 운영실태 사서 면담 질문지

읍면지역 소재 공공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지는 크게 시설, 도서관 기본통계, 운영, 프로그램, 이용자요구분석, 기타의견 등 총 6개 분야 37개 소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일반사항 및 인구통계학적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는 도서관명, 도서관 소재 지역, 성별, 연령대, 근무년수, 담당업무 등까지 6개 항목을 추가하였다.

2) 모델 제시에 대한 적합도 질문지

국내·외 이론과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샘플링 도서관의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읍면 단위 농어촌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 기준으로 적합한 항목들을 추출하였다. 총 8개 분야(조직 및 운영, 인적자원, 시설, 예산, 이용자서비스, 협력체계, 접근성, 대외홍보)의 20개 소항목으로 만들고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적합’은 5점, ‘적합’은 4점, ‘보통’은 3점, ‘부적합’은 2점, ‘매우부적합’은 1점으로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으로는 사서면담 질문지와 동일하게 도서관명, 지역, 성별, 연령대, 근무년수, 담당업무 항목을 추가하였다.

28) 2013.3.28 서울경제신문

4. 자료 분석 방법

1) 운영실태 사서 면담 질문지

사서 면담 질문지는 수거 후 스프레드시트(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값을 구하고 도표로 정리했으며, 사서 의견이나 주관식 질문은 질문지에 적은 의견을 연구자가 정리하여 표로 만들었고, 추가 전화통화로 얻은 정보는 구술내용을 받아 적어 연구자가 정리하였다.

2) 모델 제시에 대한 적합도 질문지

수거된 적합도 질문지는 통계 프로그램(SPSS)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를 구하고 편차가 크고 평균값이 낮은 항목들에 대해 집단간 평균을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 보았다.

IV. 연구 결과 해석 및 논의

1. 농어촌 도서관 운영 실태 분석 및 해석

1) 일반사항

총 24명의 면담자 중 남자 사서가 8명(33.3%), 여자 사서가 16명(66.7%)이 인터뷰에 응하였다. 연령 대는 30대가 11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9명(37.5%) 그리고 20대와 50대가 각각 2명(8.3%)으로 많아 주로 30대, 40대 사서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평균 도서관 근무 경력은 평균 8.6년이고 농어촌 도서관 근무경력은 5.1년이었다. 응답자 중 8명은 농어촌 도서관에서만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6개 도서관 사서는 농어촌 도서관 이외 지역의 도서관에서도 근무경험이 있었다. 또한 담당업무는 13개 도서관에서 도서관 업무의 전반을 관리한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응답자도 대부분 사서 혼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시설

도서관 면적은 경기도립발안도서관이 2,373㎡로 조사대상 도서관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으며 다음으로 남해 화전도서관이 2,345㎡, 경기도 연천중앙도서관 2,095㎡ 순이었다. 가장 작은 도서관은 경주시립감포도서관으로 308㎡였다. 전체 면적은 [표 4]와 같이 1,000㎡~2,000㎡의 도서관이 11곳, 1,000㎡미만 도서관이 10곳이었다. 봉사대상인구는 그 관할구역을 읍면단위 대상으로 한 곳과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곳이 있어 일률적인 상호 비교는 불가능하였으나 14개의 도서관이 10,000~50,000명을 대략 봉사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농어촌 도서관 운영실태 조사 대상 도서관 면적 및 봉사대상자 수

도서관명	항 목	면 적(㎡)	봉사대상자수(명)
상주도서관화령분관		774	2,921
포항시립동해석곡도서관		1,209	11,932
경주시립감포도서관		308	18,000
경북영주도서관풍기분관		976	91,619
경기도립발안도서관		2,373	54,250
연천중앙도서관		2,095	45,599
강원정선교육도서관		1,373	39,915
철원갈마도서관		1,345	50,000
청양도서관		1,601	32,537
태안도서관		1,601	62,548
음성대소도서관		752	90,000
제천봉양도서관		991	7,489
임실공공도서관		624	29,956
진안공공도서관		890	11,000
통영시립산양도서관		1,673	139,347(산양읍5,493)
하동도서관		706	51,235
남해화전도서관		2,345	47,500
송악도서관		1,200	17,196
표선도서관		1,926	10,825
한수풀도서관		1,192	19,444
한경도서관		1,048	8,500
구례군매천도서관		700	28,000
순천해룡농어촌도서관		570	10,625
무안도서관		1,355	75,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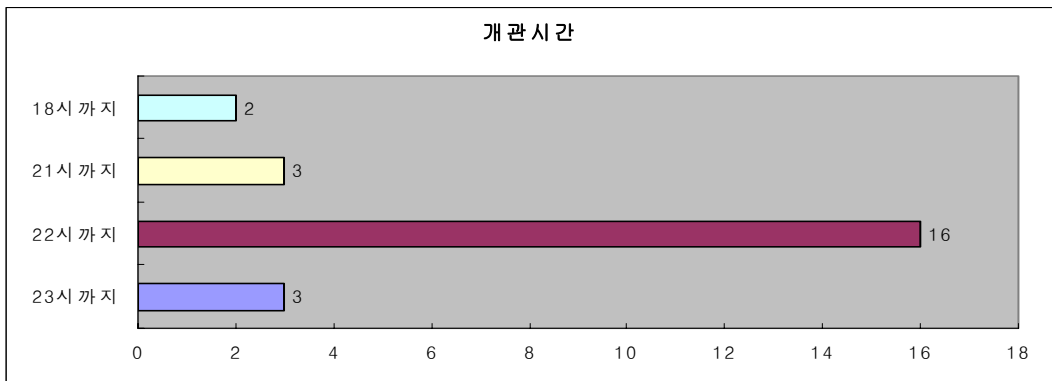
그밖에 시설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용자용 정보자료실 컴퓨터는 2곳만 제외하고 모든 도서관에서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인터넷시설은 14곳이 설치되어 있고 10곳은 설치되지 않아 비슷하였으나 무인대출반납기 같은 자동화시스템은 7곳 밖에 설치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도서관 자동화시스템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공연장시설도 7곳 밖에 없어 농어촌 도서관에서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도서관 일반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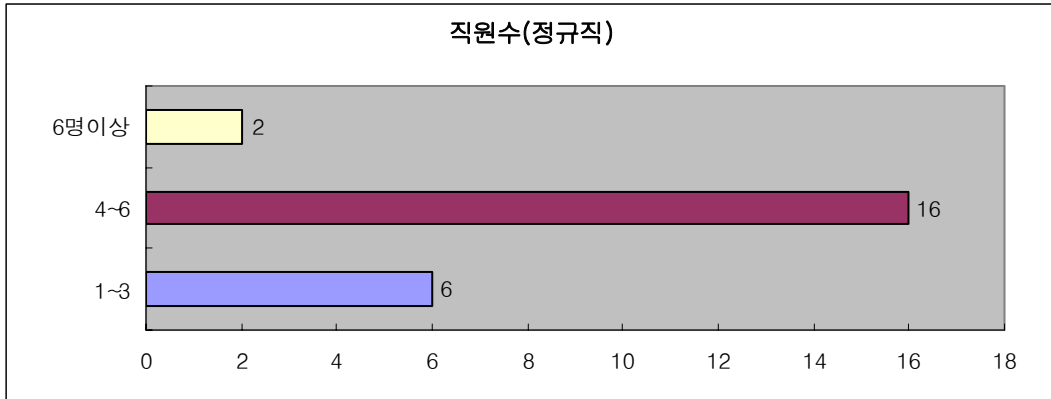
도서관 개관시간을 보면 자료실의 경우 17개 도서관이 9시~18시로 가장 많았고 9시~22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3곳, 그 밖에 9시~21시가 2곳, 9시~23시와 9시~18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각각 1곳 있었다. 열람실은 9시~22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8시~22시가 6곳이었다. 또 7시~22시가 2곳 이었고 그 밖에 21시까지 운영하는 곳이 3곳, 23시까지 운영하는 곳도 3곳으로 나타나 열람실이 없는 2곳을 제외하면 농어촌 도서관도 도심의 도서관과 비슷하게 늦은 시간까지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직원 수는 평균 4.96명이며 사서 수는 평균 2.25명이었다. 경기도 소속 2개 도서관을 제외하고 모든 도서관이 정규직원 6명 이하였고, 사서직 2명이 근무하는 곳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사서가 1명뿐인 곳도 5곳이나 되었고,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곳도 1곳 있었다. 일일평균 이용자 수는 100~200명 정도인 곳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0~500명인 곳이 6곳, 100명 미만이 5곳, 500명 이상이 2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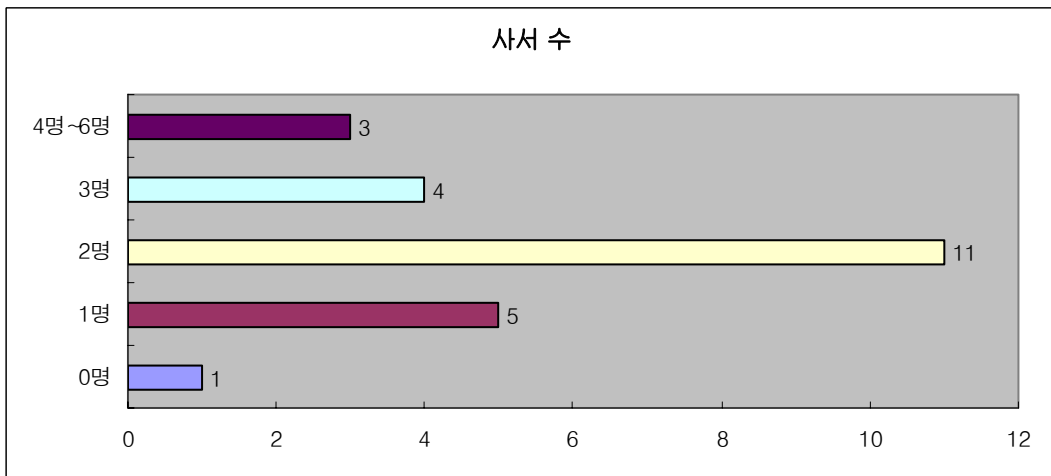
<표 5> 농어촌 도서관 개관시간



<표 6> 농어촌 도서관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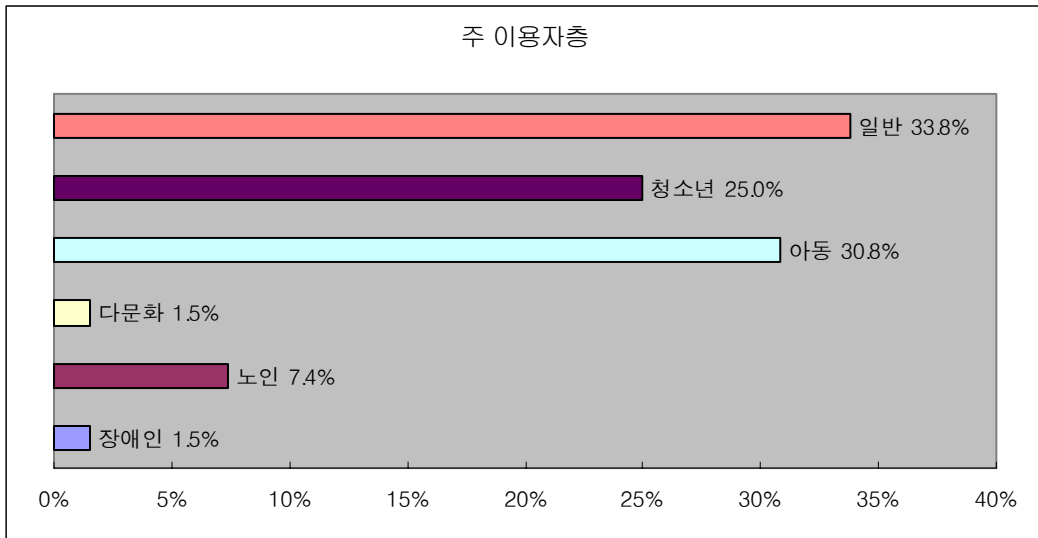
<표 7> 농어촌 도서관 사서 수



평균 소장 자료 수는 62,040권으로 대부분 적지 않은 규모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비도서자료의 수는 1,613점이고 전자자료는 13곳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있다고 응답한 11곳의 평균 자료 수는 1,291종이었다.

주 이용자층을 복수로 묻는 질문에는 ‘일반 성인’이라고 응답한 곳이 2곳이고 ‘청소년’이라고 응답한 곳이 17곳, ‘아동’이라고 응답한 곳이 21곳, ‘다문화’라고 응답한 곳이 1곳, ‘노인’이라고 응답한 곳이 5곳, ‘장애인’이라고 응답한 곳이 1곳으로 특수한 계층의 이용이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농어촌 도서관 주 이용자층



4) 운영

(1) 조직체계

도서관의 소속 단체를 살펴보면 자치단체인 곳이 12곳, 교육청인 곳은 12곳이며, 조직 편성 현황은 [표-9]와 같이 사업소가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독립 조직이라고 답한 곳도 8곳으로 모두 교육청 소속이었다. 그 외 본청의 과나 담당 단위인 곳이 6곳으로 모두 자치단체 소속이었다. 기타로 답한 사업소 내 도서관 팀은 사업소로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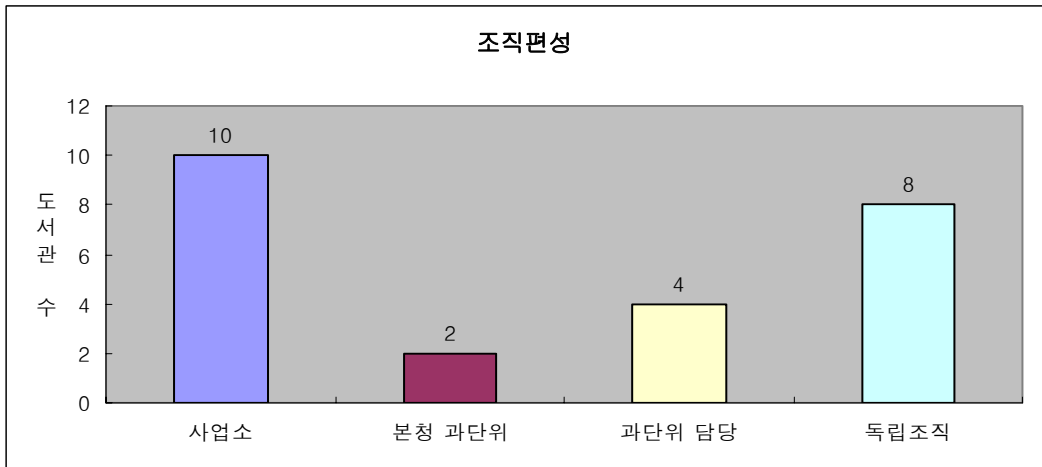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사업소이거나 별도의 조직으로 비교적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은 본청의 과 단위나 계 단위로 묶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분관여부를 묻는 질문에 도서관명으로 명확히 분관의 명칭을 사용한 곳이 2곳이었다. 그외 4곳은 분관이라고 응답했으나 모두 자치단체 사업소 형태의 조직으로 편성된 도서관이었다.

분관과 본관의 합리적인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는 경상지역 B도서관 사서는 “분관을 본관의 하위기관으로 보지 말고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C도서관 사서는 “각 분관별 특성에 맞게 분관에서 기획 운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A도서관 사서는 “본관에서 정리업무 통합관리로 일관성 있는 자료관

리가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경기지역 B도서관 사서는 “본관에서 수립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분관에서 협조 및 지원하고 분관은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충청지역 D도서관 사서는 “수서, 정리, 프로그램 기획은 본관에서, 열람과 시설 관리는 분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주었다.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질문에는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답한 도서관은 13곳이었고 ‘없다’는 도서관이 11곳이었다. 관내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대답한 13곳 중 7곳은 지원이나 연계활동이 없는 반면, 6곳에서는 수서, 프로그램, 인력, 도서구입비, 운영보조금, 사서업무 조언 등의 지원을 한다고 하였다.

<표 9> 농어촌 도서관 주 조직편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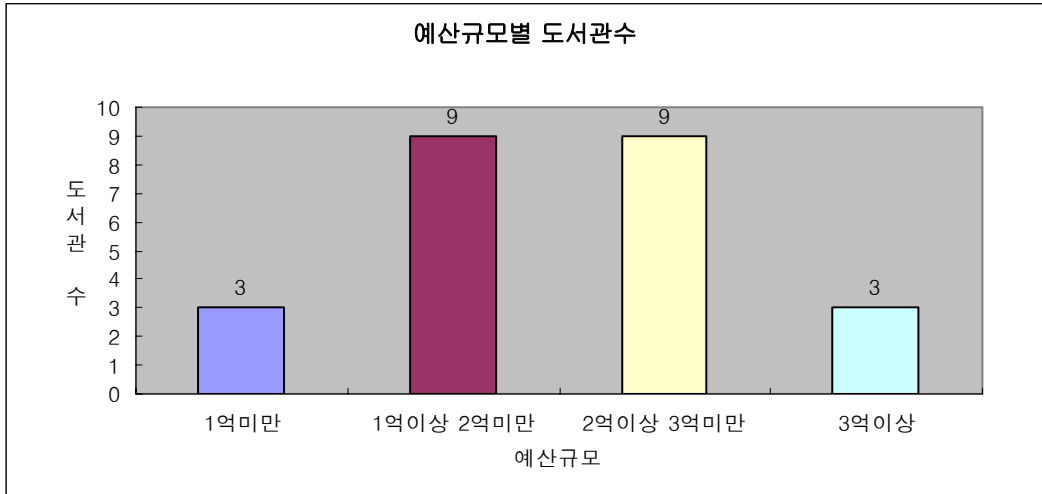


(2)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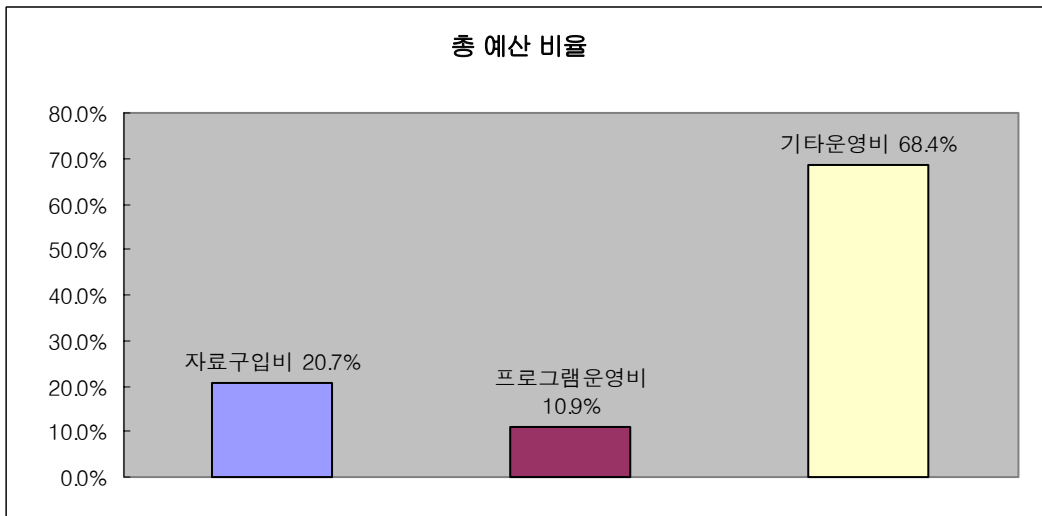
예산을 묻은 질문에 총 예산은 1억 이상 2억 미만인 도서관과 2억 이상 3억 미만인 도서관이 각각 9곳으로 가장 많았고, 1억 미만인 도서관과 3억 이상인 도서관이 각각 3곳으로 많은 편차가 나타났다. 총 예산 2억원대 도서관 8곳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 지역마다 비교적 균등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은 규모 및 예산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예산에서 자료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중 20.7% 정도이고 프로그램은 10.9% 정도로 나머지는 기타 운영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2곳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편성되지 않았다.

<표 10> 농어촌 도서관 예산규모 현황



<표 11> 농어촌 도서관 예산 운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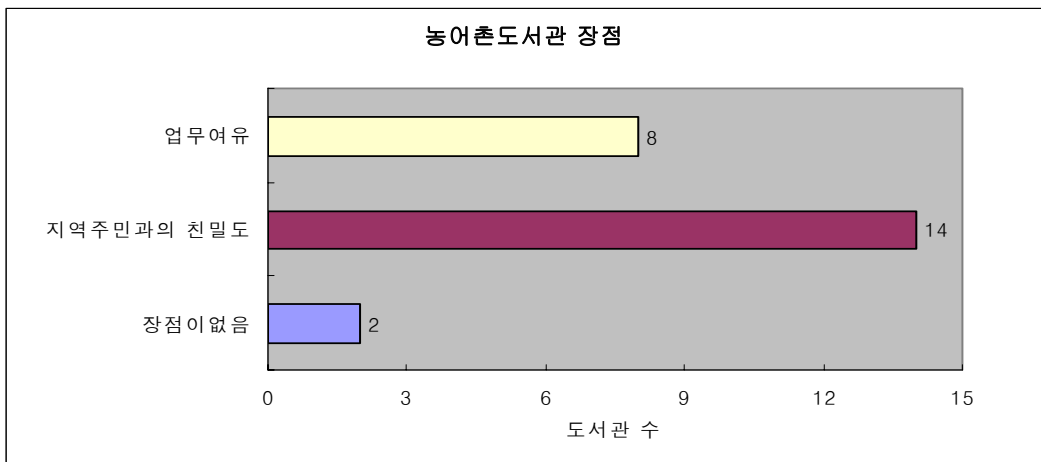
(3) 협력체계

도서관 업무를 지원해줄 고정적인 자원 봉사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19곳은 없다고 답하였고 5곳은 있다고 답하여 아직까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원봉사자가 도와주는 업무 분야는 4곳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답했고, 1곳은 도서정리업무를 도와준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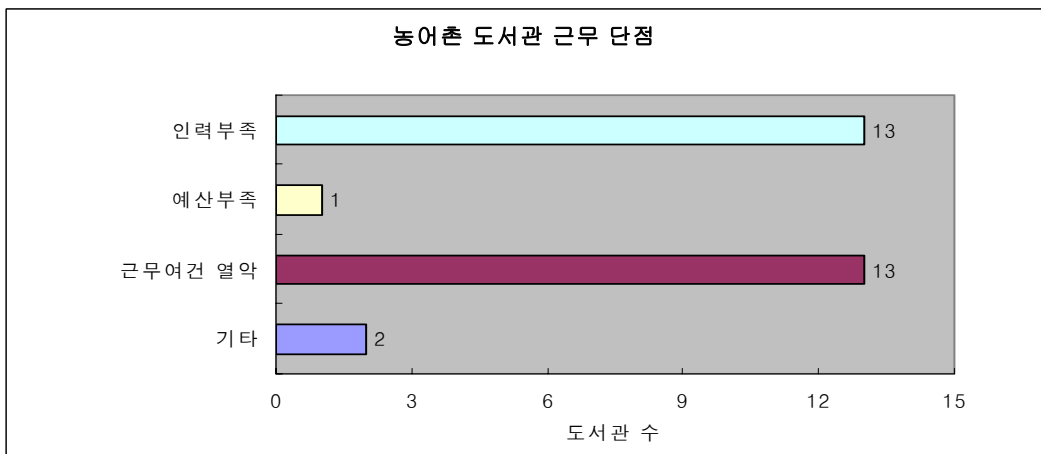
(4) 근무여건

농어촌 도서관 근무의 장·단점을 묻은 질문에 장점은 14명의 사서가 지역 주민과의 친밀도라고 답하였고 8명은 업무추진의 여유라고 하였으며 기타 의견으로 2명은 장점이 없다고 답하였다. 반면 단점으로는 13명이 잦은 야간근무와 원거리 출퇴근 등 근무여건이라고 답하였고 사서직 부족 등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13명이었으며 1곳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었다. 그 외에 이용자 수가 적다는 의견과 근무여건에 단점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12> 농어촌 도서관 근무 장점



<표 13> 농어촌 도서관 근무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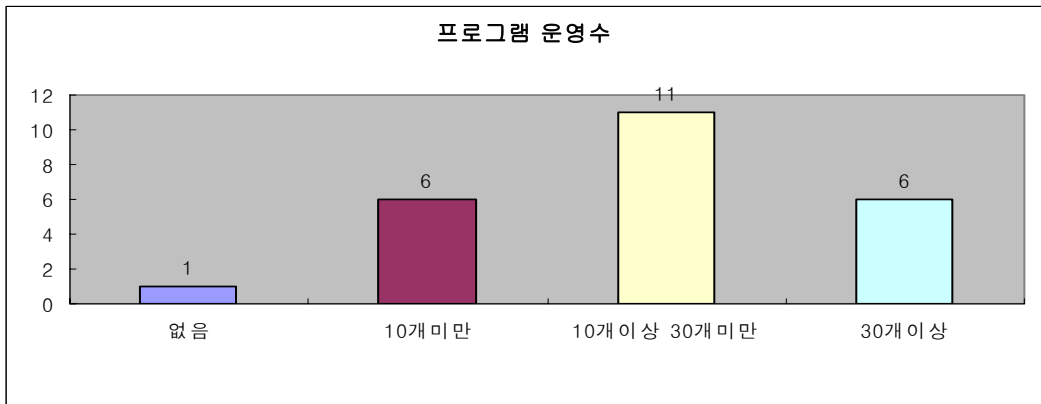


(5)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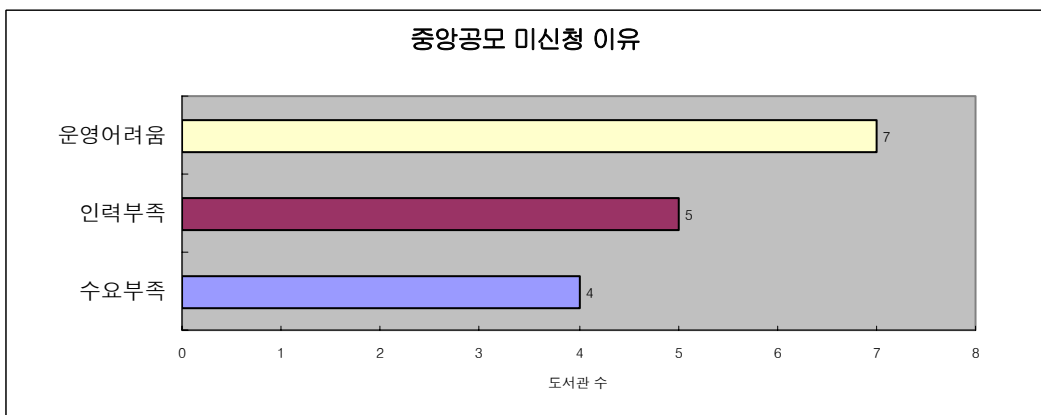
도서관당 평균 프로그램 운영 수는 [표-14]와 같이 10~30개 미만인 곳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10개 미만인 곳이 6곳, 30개 이상인 곳도 6곳이며 이 중 많은 곳은 7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반면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 곳도 1곳 있었다. 독서교실은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운영하였으며 중앙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운영한다는 도서관은 11곳이며 그렇지 못하다는 곳이 13곳이었다.

중앙공모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16곳이 응답했으며 [표 15]와 같이 수강생 부족, 강사 인력 구하기의 어려움 등 운영의 어려움으로 하지 못한다는 곳이 7곳, 운영할 사서 인력의 부족이 5곳, 이용자 수요가 없어서 못한다는 곳이 4곳이었다.

<표 14> 농어촌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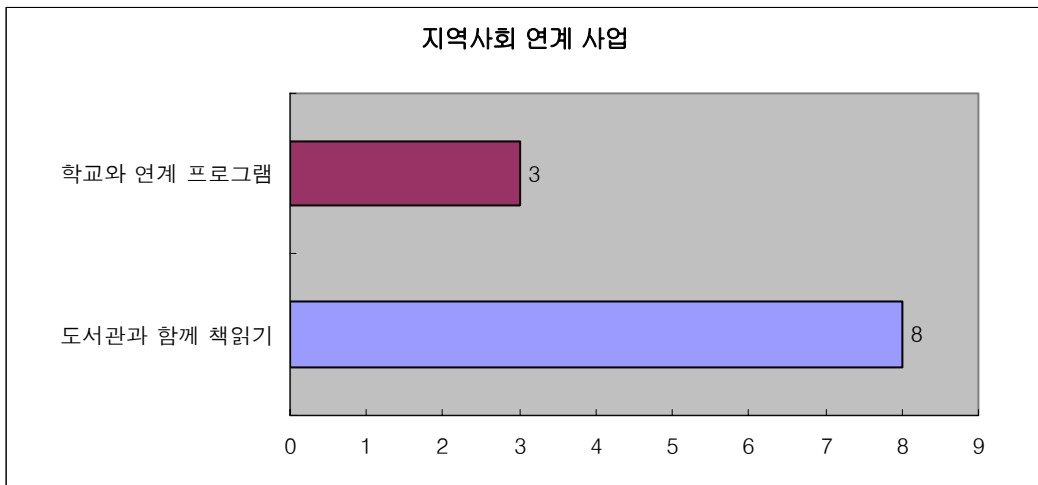


<표 15> 농어촌 도서관 프로그램 중앙공모사업 미신청 이유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12곳이 운영한다고 답하였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예는 <표 16>과 같이 주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과 학교와 함께하는 사업이 많았다. 이용자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8곳이 '매우만족', 4곳이 '만족'으로 답해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이 이용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예시를 묻는 질문에 11곳의 도서관이 응답하였는데 8곳이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와 같은 소외계층 프로그램이라고 하였으며, 3곳은 '초등학교 북스타트', '고등학생들의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초등학교 방문 책 읽기'와 같은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예로 들었다.

<표 16> 농어촌 도서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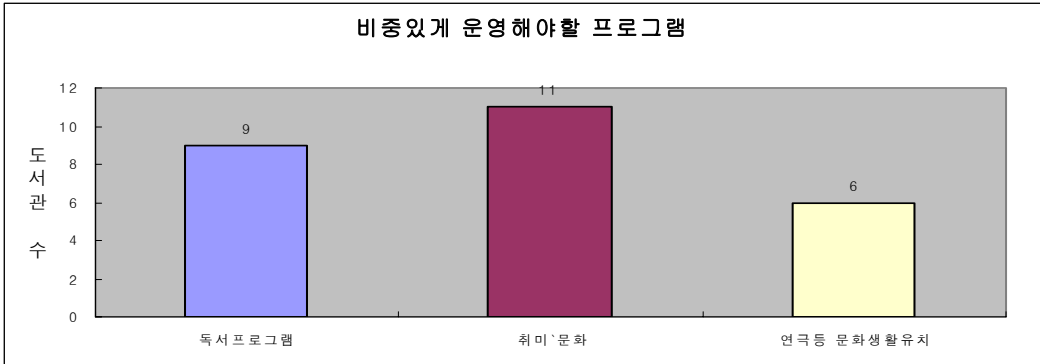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농어촌 도서관에서 비중있게 다뤄야 할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 사서들은 11명이 취미·문화 강좌라고 응답했고, 9명이 독서프로그램, 6명이 연극 등 문화공연이라고 답하였다. 반면 이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는 18명이 취미·문화 강좌라고 응답했고 6명이 연극 등 문화공연, 3명이 독서프로그램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농어촌 도서관에서 사서들은 독서프로그램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은 독서프로그램보다 문화강좌와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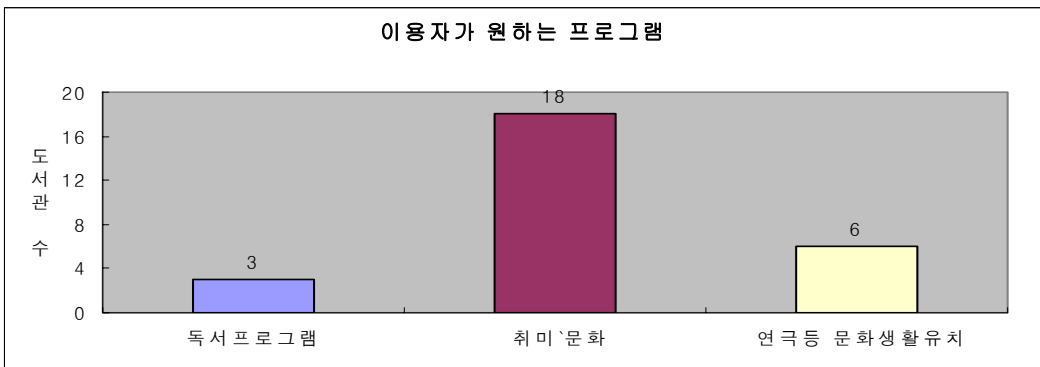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19명의 사서가 이용자 모집의 어려움을 답했으며 8명이 강사 등 운영인력 부족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2명이 예산 부족이라고 답해 예산보다는 이용자 모집 및 강사 등 운영인력의 여건 미비로 농어촌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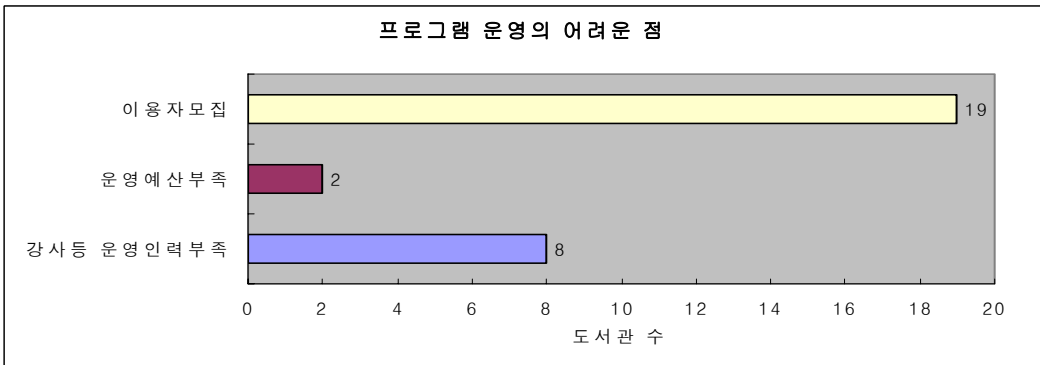
<표 17> 농어촌 도서관에서 비중 있게 운영해야 할 프로그램



<표 18> 농어촌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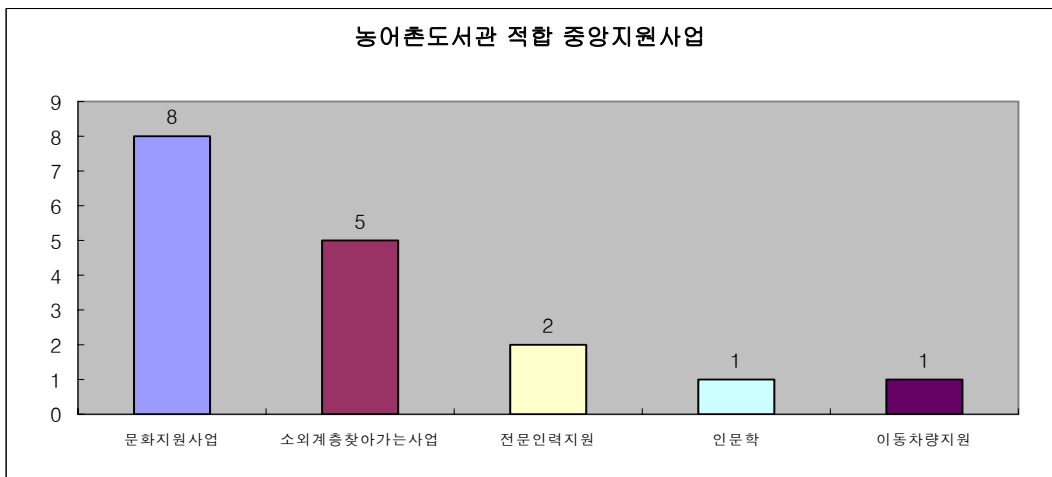


<표 19> 농어촌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운 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농어촌 도서관에 현실적으로 적합한 중앙지원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17개의 도서관이 응답했는데 이 중 8곳이 ‘찾아가는 강연회, 문화행사’, ‘연극 및 공연’과 같은 문화지원사업이라고 응답했으며 5곳은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와 같이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사업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강사섭외의 어려움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인력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곳도 2곳 있었다. 그밖의 의견으로는 ‘이동차량 지원사업’, ‘인문학관련 사업’ 등의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사업의 지원 형태에 관한 의견도 있었는데 경상도의 E도서관 사서는 “농어촌 도서관의 1인 사서 업무량을 감안하면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처럼 정해진 예산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수월하며 예산집행 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운 보조금으로 수행해야하는 사업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표 20> 농어촌 도서관에 적합한 중앙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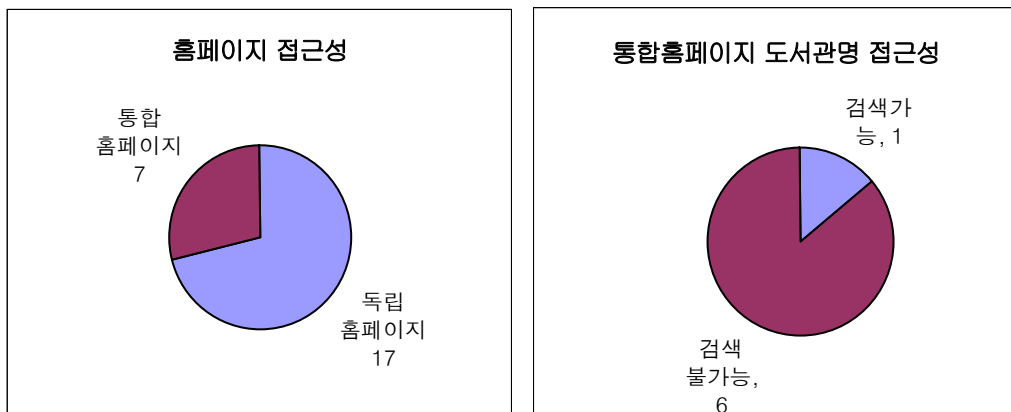
(6) 접근성

마지막으로 접근성은 질문지 사항에는 없었지만 이용자가 얼마나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항목에 추가하였다. 일일이 찾아가는 현장 방문은 어렵고 지도만으로 접근성이 좋은지 판단하기도 어려워 홈페이지 접근성만을 조사하였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 창을 통해 도서관명으로 검색하여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가운데 17곳은 독립적인 홈페이지를 구성하여 도서관명으로 검색하면 바로 홈페이지에 연결되었다. 교육청 소속 12개 도서관은 모두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소속 7개 도서관 홈페이지는 중앙관에 포함된 통합 홈페이지로 운영되고 있었다. 통합 홈페이지 운영 도서관 7개 가운데 6개는 포털 사이트에서 도서관명으로 바로 접근이 불가능하였고, 1개 도서관만이 통합홈페이지로 안내되었다. 독립 홈페이지가 구축되었으나 포털 검색이 안 되는 도서관도 1개 있었다.

<표 21> 농어촌 도서관 홈페이지 접근성



5) 이용자 요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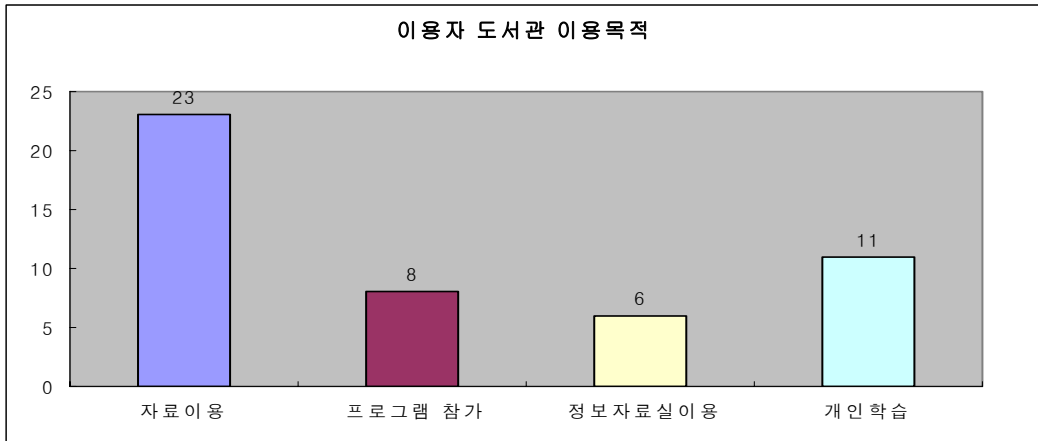
농어촌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찾는 목적과 요구사항, 귀농 귀촌의 영향에 따른 특이사항을 자체 조사한 데이터나 사서의 판단을 바탕으로 작성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을 받았다.

첫째, 이용 목적을 복수 응답으로 묻는 질문에 23곳의 도서관에서 ‘자료 이용’이라고 답했고, 11곳의 도서관에서는 ‘개인 학습’이, 8곳의 도서관은 ‘프로그램 참여’, 6곳은 ‘정보자료실(컴퓨터) 이용’이라고 응답해 주로 ‘자료 이용’을 목적으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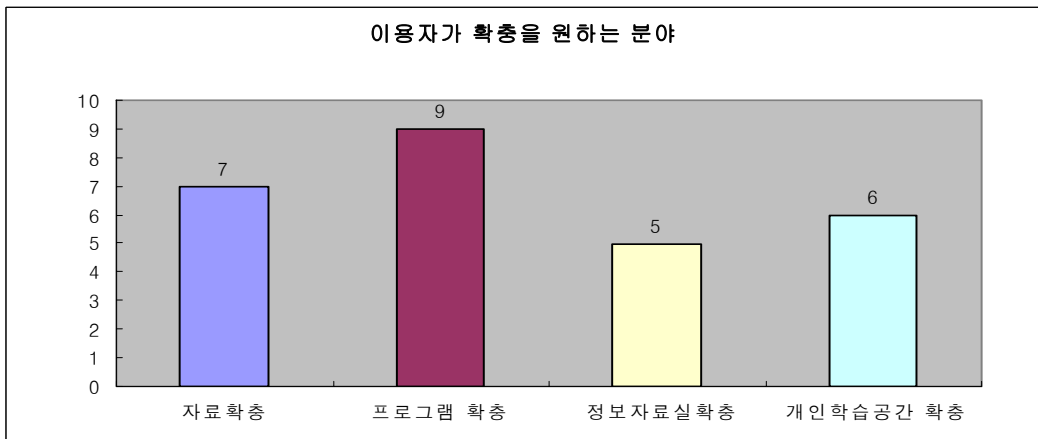
둘째, 이용자가 확충을 원하는 분야를 묻는 복수 응답 질문에는 총 27곳이 응답했으며 9곳이 ‘프로그램 확충’을 원한다고 답했고, 7곳이 ‘자료 확충’, 6곳이 ‘개인 학습실’, 5곳이 ‘정보자료실 확충’을 원한다고 응답하여 농어촌 도서관 이용자는 ‘프로그램 확충’을 가장 많이 원하며 자료 제공과 개인학습공간, 컴퓨터이용을 위한 정보이용실 등에 대한 확충 요구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최근 귀농 귀촌이 도서관 운영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62.5%인 15곳이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37.5%인 9곳은 없다고 응답했다. 귀농의 영향이 있다고 답한 지역은 제주 3, 전남 3, 경북 2, 경남 2, 전북 2, 경기 2, 충북 1곳 순이었다.

<표 22> 농어촌 도서관 이용 목적



<표 23> 농어촌 도서관 이용자가 확충을 원하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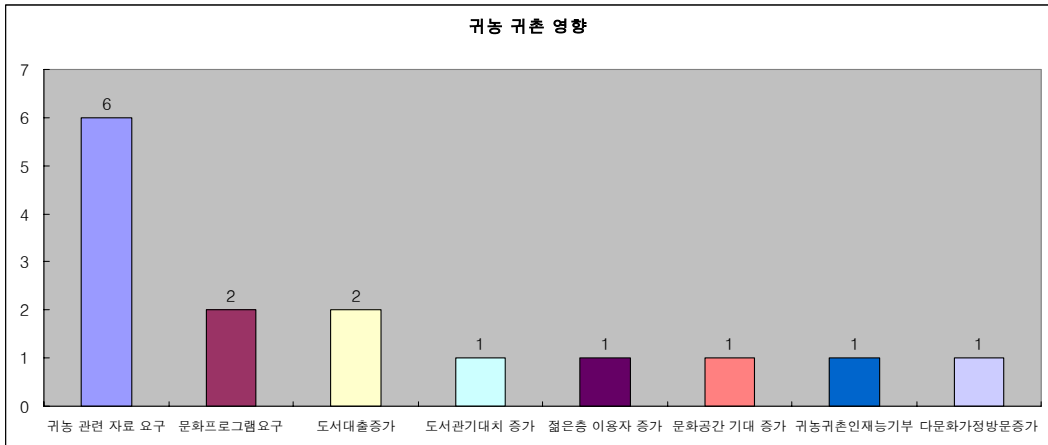


귀농 귀촌 현상이 농어촌 도서관에 끼친 영향으로는 15곳의 도서관에서 응답을 주었다. <표 24>와 같이 귀농 목적과 관련된 ‘자료구입요구’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농업관련, 버섯도감, 펜션, 게스트하우스 운영, 인테리어 소품 관련 등 그 지역에 이주 목적과 관련된 분야의 도서를 많이 요구한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

는 ‘문화프로그램의 요구와 제공’이라고 응답한 도서관이 2곳 있었다. 도서 대출이 증가했다는 의견도 2곳 있었다. 경기지역 B도서관은 귀농 귀촌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응답하였다. 경상지역 C도서관은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증대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주었다. 또한 전라지역 D도서관은 젊은 층의 도서관 이용이 증가했으며 E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서비스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의견도 주었다. 그 밖에 전라지역 C도서관은 다문화가정의 방문이 늘었다는 의견도 주었다.

이와 같이 최근의 귀농 귀촌 열풍이 농어촌 도서관 운영에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여러 가지로 활력소가 되고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4> 귀농 귀촌이 도서관에 끼친 영향



6) 기타 의견

마지막으로 농어촌 도서관 운영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농어촌 도서관 근무여건 중 가장 어려운 부분과 운영했던 사업들 중 잘된 사업이나 필요 사업 그리고 농어촌 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전화로 인터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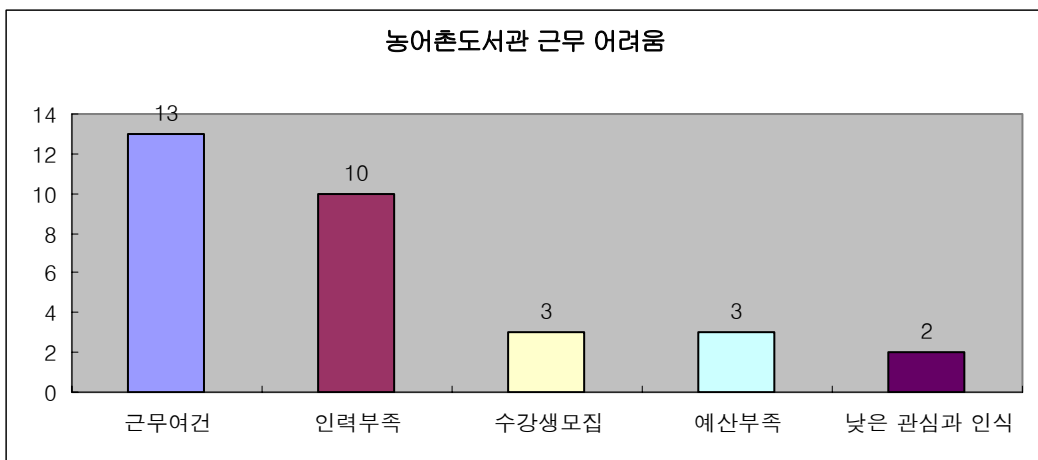
(1) 농어촌 도서관 근무여건

농어촌 도서관 근무 중 어려운 점에 관한 질문에 21곳의 도서관에서 31개의 의견을 주었다. 가장 많은 의견으로는 원거리 출퇴근, 교통 불편, 잦은 야간근무, 시간외 근무, 휴일 당직근무, 야간시간 여직원 혼자 근무, 인근 음식점 부족 등 근무여건이 어렵다는

곳이 13곳이었다. 그 다음으로 10곳에서 사서 인력 부족으로 업무과중, 사서직 미배치, 정규직원 부족으로 인한 휴일, 당직근무 부담이 있다고 인력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 밖에 3곳에서는 농번기 등으로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3곳에서는 도서관 필요성은 공감하나 열악한 재정 자립도로 운영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했으며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시설과 규모에 비해 이용자가 적으니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 등 예산부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상지역 A도서관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주민들은 생업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문화공간에 관심이 부족하고 인구자체가 줄고 있고 아동인구도 없어 프로그램 요구도 적다”는 의견과 전라지역 A도서관은 “아직도 도서관을 열람실(공부방)로 생각한다”며 도서관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이 문제라는 의견을 주었다.

이와 같이 조사 대상의 많은 사서들이 원거리 출퇴근과 적은 인원 수(사서, 정규직원), 예산 부족, 지역 주민들의 낮은 인식 등으로 업무 피로감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농어촌 도서관 근무 중 가장 어려운 부분



(2) 운영했던 사업 중에 잘된 사업이나 필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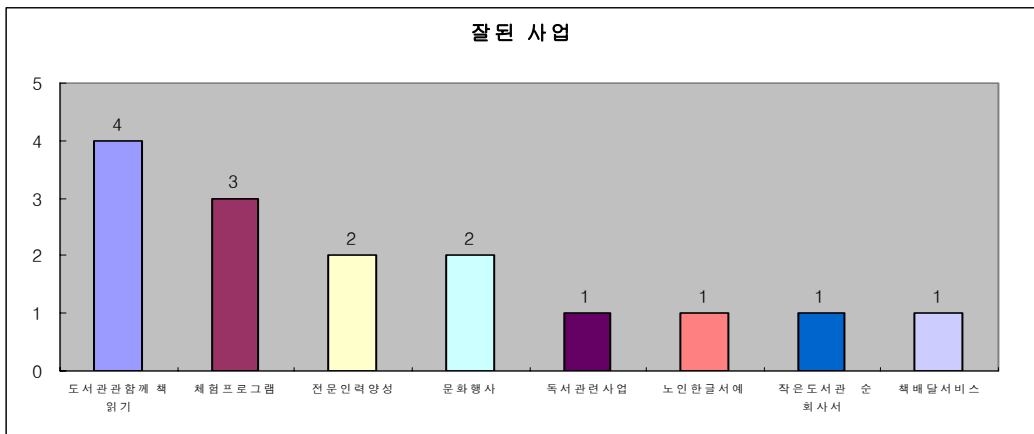
운영했던 사업 중에 잘된 사업이나 필요한 사업을 묻는 질문에서는 18개의 도서관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었다. 가장 많은 의견으로는 4개 도서관에서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사업이 만족도도 높고 도서관 인식도 좋아졌다며 취약계층 연계사업을 추천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도서관에서 하룻밤 지내기’, ‘1일 체험학습’, ‘여름독서

교실 도서관에서 1박 2일' 등 체험 프로그램이 좋았다는 의견이 3곳 있었다.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배출하여 운영한 학생 '독서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자격증반' 등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 배출 프로그램의 반응이 좋았다는 곳도 2곳 있었다. 그 밖에 '인형극', '시 낭송', '문학의 밤' 등 문화 행사가 잘되었다는 곳도 2곳 있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자녀를 위한 독서지도와 영유아 책 놀이 프로그램' 등 독서관련 사업이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라지역 B도서관은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문 서예교실을 연중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대회 및 전시회에 서예작품 출품을 유도하여 성취감 및 장수문화를 조성했다"는 의견을 주었다. 경상지역 E도서관은 "읍에서 가장 먼 먼 지역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고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어 도서 DB구축, 회원정비 등 체계적인 운영 지원을 하니 지역민의 호응이 좋았다."는 의견도 주었다. 제주지역 C도서관은 "면 관내 15개 마을과 연계하여 책 사랑 나눔 문고를 마을회관에 설치하여 분기별로 도서 500권을 비치하였고 또한 취약계층'자은해' 각 가정마다 책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여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자직접 찾아다니며 도서를 대출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지속적인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교육기부, 재능기부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상과 같이 농어촌 도서관에서는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과 문화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해당 지역만의 차별화된 특색 있는 프로그램 또한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6> 운영했던 사업 중에 잘된 사업



(3) 농어촌 도서관 활성화 방안

끝으로 농어촌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의견을 물었다.

가장 많은 의견으로 7곳에서 도서관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충족하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꼽았다. 경기지역 B도서관에서는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따른 강사의 섭의를 통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특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원지역 B도서관은 “지역 특징에 맞게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주지역 B도서관은 “찾아가는 책 배달 서비스 등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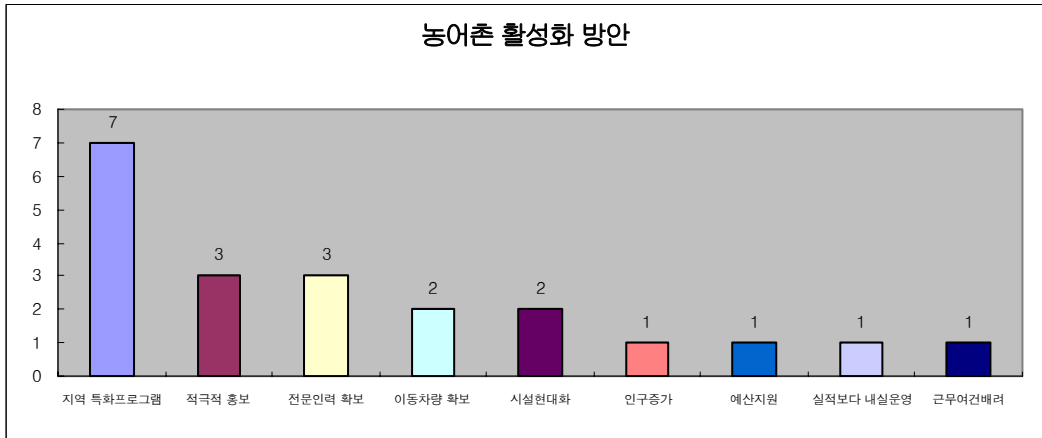
그 다음으로 많은 의견으로는 3개 도서관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지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경상지역 E도서관 사서는 “흔히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건물을 건립하는 것보다 프로그램과 열정적인 운영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직원들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도서관과 지역독서문화에 관심 있는 지역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었다. 또 전라지역 E도서관 사서는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의 기능, 이용 안내 및 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홍보하여 지역 주민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도서관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하였다. 3개의 도서관에서는 사서 및 강사, 자원 봉사자 등 인력 확보에 관한 의견을 주었다.

그 밖의 의견으로는 2개 도서관에서 “유동인구가 적은 농어촌 도서관을 이동차량을 이용한 이동순회문고 운영으로 이용자를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다른 2개 도서관에서는 “지역의 마땅한 문화교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도서관 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농산어촌지역의 중점 지식정보교육문화센터로서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공간 부족으로 프로그램이 어려워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시설관련 의견도 있었다.

기타의견으로 “인구가 감소세이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견,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실적 위주가 아닌 내실 위주의 농어촌 도서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근무여건에 대한 상급기관의 배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표 27> 농어촌 도서관 활성화 방안



이상과 같이 농어촌 도서관 활성화를 묻는 질문에 사서들은 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도서관 홍보와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어촌 도서관 운영 모델 제시

지금까지 농어촌 도서관 운영 모델을 만들기 위해 국내·외 연구와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농어촌 공공도서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마다 교육청과 자치단체 소속의 공공도서관이 혼재하고 있는데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은 군 단위로 일정한 규모로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반면 읍면 단위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은 자치단체가 건립 운영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 규모 및 운영의 편차가 크다.

둘째, 본관(중앙관)과 체계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안 되어 1인 사서 혹은 5명 이내의 직원들이 거의 독립적으로 모든 업무(수서, 정리, 열람, 프로그램 운영, 대외협력 등)를 수행하고 근무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셋째, 읍면 단위 도서관의 경우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여 인구 밀집도가 높은 몇 개 읍면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서관의 시설과 규모가 이용자 수에 비하여 크게 건립된 반면 인력 배치는 적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도서관 운영이 되기 어렵다.

넷째, 지역에 따라 사서가 미배치 된 곳도 있으며 공간 부족 등으로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못하는 곳도 있어 지역마다 동질의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

다섯째, 운영 시간 등도 대규모 도심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도 대규모 도서관과 비슷하여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서비스 사례가 드물다.

위와 같은 특징들을 기반으로 지역 단위, 마을 단위 도서관시스템이 잘 구축된 외국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과 현장 사서들의 의견들을 수렴하여 우리나라 소규모 농어촌지역 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한 모델은 크게 8개 분야의 20항목이다.

1) 조직 및 운영

- (1) 지역대표도서관 - 시·군 중앙관 - 읍·면 단위 지역도서관 - 마을 단위 작은도서관까지 일원화된 행정체계로 운영한다.
- (2) 지역대표도서관은 공공도서관들의 통합지원업무, 시·군 단위 중앙관은 정보·자원 통합관리, 읍·면 단위 마을도서관은 직접봉사업무 중심으로 규모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 (3) 광역단위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으로 상호대차, 공동목록, 전자자료 등 자원을 공유하여 규모에 상관없이 동질의 자료 접근성과 서비스를 보장하여야 한다.
- (4) 직접봉사는 지역의 특성 및 계층별 특성을 살린 특성화 운영전략이 필요하다. 예) 다문화도서관, 노인장수도서관 등
- (5) 지역 이용자 특성과 직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탄력적인 개관시간 운영이 필요하다.

2) 인적자원

- (1) 농어촌 도서관의 설립 목적인 취약계층 정보서비스를 위해서는 사서직 인원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

- (2) 원거리 출퇴근, 적은 인원에 따른 잦은 야간근무 등 농어촌 도서관의 어려운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배치직원에게 대한 인센티브와 근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시설

- (1) 읍면 단위 농어촌 도서관은 지역의 문화센터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및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2) 신규 건립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이용을 높이기 위해 매력적이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개성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4) 예산

- (1) 이용자 수와 규모에 비례한 일률적인 예산배정을 지양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 (2) 전체 예산 중 프로그램 운영 사업예산의 비중을 확대한다.

5) 이용자 서비스

- (1) 일반자료와 함께 지역의 농어업 관련 자료, 향토자료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 (2)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 (3) 인근에 적절한 교육·문화시설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취미·문화 프로그램도 비중있게 제공한다.
- (4) 농어촌지역 현실에 맞는 찾아가는 프로그램, 소외계층 프로그램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한다.
- (5) 최근 늘어나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다.

6) 지역사회 협력체계

- (1) 마을, 학교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 모집 등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한다.
- (2) 전문인력이 없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문교육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의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를 확보한다.

7) 접근성

- (1) 물리적으로 읍면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 정보이용이 쉽도록 접근성을 확보한다.

8) 대외홍보

- (1) 지역의 장점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로 잠재적 이용자에게도 도서관을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델 적합도 질문지 분석 및 해석

1) 자료처리방법

제시한 모델이 적합한지에 관한 질문지는 8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만들어 2013. 8. 1.~ 8. 26.까지 1차 조사대상 도서관의 사서와 그 인근 지역 도서관 사서들에게 의뢰하여 총 86개의 질문지를 수거하였다. 수거된 질문지는 Likert 5점 척도(‘매우적합’은 5점, ‘적합’은 4점, ‘보통’은 3점, ‘부적합’은 2점, ‘매우부적합’은 1점)로 수치화하여 이를 통계프로그램(SPSS)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각 항목들 점수 중 표준편차가 많이 나는 항목에 대해서 집단별 차이가 있는지 T-검증 및 One-way ANOVA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신뢰도는 신뢰도 검증방법 중 크론바하 알파를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가 .0893으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2)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질문지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징을 위해 [표-28]과 같이 빈도 분석을 하였다. 도서관 소재지별로는 충청지역 응답자가 22명(25.6%)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지역이 21명(24.4%), 경기지역이 14명(16.3%), 경상지역이 14명(16.3%), 전라지역이 10명(11.6%)이었으며, 강원지역이 5명(5.8%)으로 가장 적게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자가 61명(70.9%), 남자가 25명(29.1%)이 응답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5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0대가 30명(34.9%), 20대가 12명(14%), 50대 이상이 9명(10.5%)순으로 응답하였다.

근무년수는 5년 미만인 사서가 33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10~20년이 23명(26.7%), 6~10년이 22명(25.6%), 20년 이상이 8명(9.3%)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28> 운영모델 적합도 질문지 인구통계학적 빈도 및 평균(N=86, M=5점 만점)

유 형	구 분	빈도(N)	평균(M)	비율(%)
지 역	경 기	14	4.271	16.3
	강 원	5	4.180	5.8
	충 청*	22	4.045	25.6
	경 상	14	4.171	16.3
	전 라**	10	4.300	11.6
	제 주	21	4.224	24.4
성 별	남 자**	25	4.200	29.1
	여 자*	61	4.177	70.9
연 령	20 대	12	4.225	14.0
	30 대*	35	4.129	40.7
	40 대	30	4.173	34.9
	50대이상**	9	4.378	10.5
근무년수	5년미만*	33	4.061	38.4
	6~10년	22	4.341	25.6
	10~20년	23	4.157	26.7
	20년이상**	8	4.338	9.3
농어촌 도서관 근무경험	경험없음**	20	4.350	23.3
	경험있음*	66	4.133	76.7
담당업무	운영전반*	34	4.174	39.5
	수서,정리	12	4.125	14.0
	프로그램	13	4.208	15.1
	행정지원**	14	4.329	16.3
	기 타	13	4.085	15.1

*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집단

**가장 높은 평균을 가진 집단

농어촌 도서관 근무 경험은 66명(76.7%)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20명(23.3%)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담당 업무는 운영 전반이 34명(39.5%)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지원이 14명(16.3%), 프로그램과 기타업무가 각 13명씩(15.1%)이었고 수서와 정리업무를 한다고 응답한 사서가 12명(14%)이었다.

3) 항목별 적합도 분석 결과

항목별 적합도 분석결과는 <표 29>와 같고, 전체적인 항목의 적합도는 4.17로 제시한 운영모델이 농어촌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운영 모델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인적자원 분야(M=4.57)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이 대외홍보(M=4.38), 시설(M=4.37), 접근성(M=4.17), 이용자 서비스(M=4.09), 조직 및 운영(M=4.02) 순이며 예산(M=3.83)분야가 가장 낮은 적합도를 보였다.

<표 29> 운영모델 항목별 적합도 분석 결과표

분 야	항 목	빈도 (N)	최소값 (Mi)	최대값 (Ma)	평균 (M)	편차 (S)
조직 및 운영 (M=4.02)	일원화된 행정체계*	86	1	5	3.81	0.988
	규모에 따라 역할과 기능 강화*	85	2	5	3.92	0.834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86	2	5	4.10	0.826
	특성화 운영진력	86	1	5	4.09	0.863
	탄력적 개관시간	86	1	5	4.19	0.914
인적자원 (M=4.57)	사서직 인원 확보	86	1	5	4.58	0.774
	농어촌근무 인센티브 및 근무여건 개선	86	3	5	4.56	0.679
시설 (M=4.37)	문화시설 및 공간 마련	86	2	5	4.28	0.835
	신규 설립시 매력적이고 개성 있는 공간	86	3	5	4.45	0.663
예산 (M=3.8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추가 확보	86	2	5	4.09	0.821
	프로그램 운영 사업예산 비중 확대*	86	1	5	3.57	1.035
이용자서비스 (M=4.09)	지역 농어업관련자료 및 향토자료	86	2	5	4.12	0.818
	지역 프로그램 운영	86	2	5	4.26	0.672
	취미, 문화 프로그램 비중 있게 제공	86	1	5	4.03	0.900
	찾아가는 프로그램,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85	2	5	4.20	0.784
	귀농, 귀촌인 지원 서비스 제공*	86	1	5	3.85	0.901
지역사회협력 (M=4.32)	마을 학교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구축	85	3	5	4.31	0.598
	지원봉사자, 재능기부자 확보	86	2	5	4.34	0.662
접근성(M=4.17)	읍면중심지 위치, 네트워크 접근성도 확보	86	1	5	4.17	0.897
대외홍보(M=4.38)	지역의 장점 활용한 다양하고 적극적 홍보	86	3	5	4.38	0.597
유효 빈도		83				

* 평균 적합도가 4.0 미만인 항목

이는 농어촌 도서관 활성화에 있어 우선적으로 사서직 확보와 사서들의 근무여건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많은 사서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증대는 농어촌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쉽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집단간 평균차이 검증

적합도 평균 가운데 표준편차가 크고 적합도 점수가 낮은 3개 항목에 대하여 집단별 평균차이가 유의미한지를 T-검증 및 One-way ANOVA를 적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표 30> 참조).

먼저 가장 낮은 평균(3.57)을 보인 ‘프로그램 사업 예산 확보’에 대한 적합도 평균을 농어촌 근무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그리고 담당업무별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농어촌 도서관 근무 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이 3.41로 근무 경험이 없는 집단 평균 4.10보다 낮았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2.711, P<.05$) 이러한 결과는 1차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농어촌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강사, 인력, 이용자 모집 등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해 본 사서일수록 프로그램 운영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담당업무별로는 기타(4.00), 행정지원(3.79), 프로그램 운영(3.54), 수서 및 정리(3.42), 운영전반(3.38) 순으로 “운영전반”이라고 응답한 사서들이 가장 낮은 적합도 평균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F=1.046, P>.05$) 그러나 1차 조사 때 농어촌 도서관 사서들의 담당업무가 운영전반이 가장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농어촌 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의 적합도 평균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0> 프로그램 사업 예산 확보 항목 적합도 평균차이 검증

분 야	구 분		빈도(N)	평균(M)	표준편차(S)	t	F	P
예 산 (프로그램 예산 확보)	농어촌도서관 근무경험	없음	20	4.10	0.718	2.711	-	.008
		있음	66	3.41	1.067			
	담당업무	운영전반	34	3.38	1.155	-	1.046	.380
		수서, 정리	12	3.42	1.084			
		프로그램	13	3.54	0.967			
		행정지원	14	3.79	1.051			
		기타	13	4.00	0.577			

다음은 두 번째로 적합도 평균이 낮은 조직분야의 ‘일원화된 행정체계’에 대하여 소속별, 지역별, 농어촌 도서관 근무경험 유·무별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표 31> 참조).

먼저 소속별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사서들의 평균은 3.93이고 교육청 소속 도서관 사서들은 3.70으로 자치단체 소속 도서관 사서들의 적합도 평균이 약간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t=1.051, P>.05$)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4.36으로 가장 높았고 전라지역이 3.20으로 가장 낮았으며 지역간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2.498, P<.05$) 이는 지역마다 도서관 행정체계가 많이 다르고 사서들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농어촌 도서관 근무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간 평균차이 검증은 농어촌도서관 근무경험이 없는 집단이 4.2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험이 있는 집단은 3.70로 나타났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030, P<.05$) 이는 조직통합 문제가 현실적으로 농어촌 도서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소속된 조직 전체의 행정적인 문제이고 대형 도서관을 포함한 모든 도서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문제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1차 사서 면담에서 분관을 하부 기관으로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소규모 도서관의 경우 조직이 통합되어 일원화된 행정체계가 되면 큰 도서관의 하부 조직이 된다는 점과 업무의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행정체계 일원화 항목 적합도 평균차이 검증

분 야	구 분		빈도(N)	평균(M)	표준편차(S)	t	F	P
조 직 1 (행정체계 일원화)	소 속	지자체	42	3.93	0.745	1.051	-	.296
		교육청	44	3.70	1.173			
	지 역	경기	14	4.36	0.633	-	2.498	.037
		강원	5	3.60	1.342			
		충청	22	3.68	1.129			
		경상	14	4.21	0.893			
		전라	10	3.20	1.135			
		제주	21	3.67	0.730			
	농어촌도서관 근무경험	없음	20	4.20	0.768	2.030	-	.045
		있음	66	3.70	1.022			

마지막으로 적합도 평균이 세 번째로 낮은 이용자 서비스 분야에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서비스 제공’ 항목에 대해 지역별, 농어촌 근무경험별, 담당업무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았다. 귀농·귀촌인 지원 서비스는 농어촌 도서관 근무경험이 없는 집단의 평균이 4.15로 근무경험이 있는 집단의 평균 3.76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t=1.726$ $P>.05$) 지역별로는 전라지역(4.30)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4.14), 제주(3.86), 경상(3.79), 강원(3.60), 충청(3.55) 순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F=1.423$ $P>.05$) 그러나 서론에서 조사한 귀농·귀촌 비율이 높은 지역인 경상, 전라지역과 귀촌으로 유입인구가 많은 제주가 강원이나 충청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지역 사서들이 귀촌인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현장에서 경험해 봤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판단된다.

<표 32> 귀농·귀촌인 지원서비스 적합도 항목 평균차이 검증

분 야	구 분		빈도(N)	평균(M)	표준편차(S)	t	F	P
이 용 자 서 비 스 5 (귀농·귀촌인 지원서비스)	농어촌도서관 근무경험	없음	20	4.15	0.745	1.726	-	.088
		있음	66	3.76	0.929			
	지 역	경기	14	4.14	0.864	-	1.423	.225
		강원	5	3.60	0.548			
		충청	22	3.55	0.800			
		경상	14	3.79	1.251			
		전라	10	4.30	0.675			
		제주	21	3.86	0.854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규모 농어촌 도서관의 현실에 맞는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문헌과 사례를 조사하고 농어촌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의 요구를 조사하여 8개 분야 20개 항목의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한 항목들을 전국의 사서들에게 적합도를 물어 검증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평균적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8개 분야별 20개 항목의 소규모 농어촌 도서관을 운영하는 모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도서관은 일원화된 행정체계 속에서 지역 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시군 단위의 중앙관의 협조와 지원 속에 마을의 작은도서관까지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2. 규모에 따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일률적인 도서관 역할보다 현실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를 수행한다.
3. 지역 단위 공공도서관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을 공유하여 동질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4. 지역의 특성과 계층별 특성을 살린 특성화 운영 전략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밀착된 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
5. 지역 여건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적은 시간과 많은 시간을 고려한 탄력적인 개관시간 운영이 필요하다.
6. 이용자 수에 따른 일률적인 직원 배치가 아니라 농어촌 도서관 설립 목적인 취약계층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사서직 인원을 더 확보하여야 한다.
7. 원거리 출퇴근과 적은 인원에 따른 잦은 야간근무 등 농어촌 도서관의 어려운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배치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근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8. 지역의 문화센터 역할을 겸할 수 있도록 문화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한다.
9. 신규 건립 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이용을 높이기 위해 매력적이고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개성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10. 이용자 수와 규모에 비례한 일률적인 예산 배정을 지양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다.
11. 전체 예산 중 프로그램 운영 사업예산의 비중을 확대한다.
12. 일반자료와 함께 지역의 농어업 관련 자료 및 향토자료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13.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14. 인근에 적절한 교육·문화시설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취미·문화 프로그램도 비중 있게 제공한다.

15. 농어촌지역 현실에 맞는 찾아가는 프로그램,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더 많이 지원하여야 한다.
16. 최근 늘어나는 귀농·귀촌인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다.
17. 마을과 학교 등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 모집 등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한다.
18. 전문인력이 없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문교육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의 자원 봉사자 및 재능 기부자를 확보한다.
19. 물리적 위치는 읍면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정보 이용이 쉽도록 접근성을 확보한다.
20. 지역의 장점을 활용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잠재적 이용자에게 도서관을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상과 같이 국내·외 선행연구와 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소규모 농어촌 도서관을 활성화 하기 위한 운영모델을 제시하여 보았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각기 다른 여건에서도 대부분의 사서들이 소규모 농어촌 도서관의 활성화는 결국은 어느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서의 수와 질에 따라 그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모델 항목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사서 인터뷰 과정에서 느꼈던 점과 도서관 운영에 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농어촌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어촌 도서관’이라는 명칭보다 ‘지역 도서관’의 개념으로 소규모 도서관들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매체와 기술의 발달로 예전처럼 도시와 농촌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단지 행정구역상 군, 읍, 면지역에 위치한다하여 ‘농어촌 도서관’이라고 호칭하기에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봉사대상지역의 인구와 넓이를 고려하여 대형은 ‘중앙관’, 지역단위 소규모는 ‘지역도서관’으로, 그보다 규모가 더 작은 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써서 명칭만으로 그 도서관의 위치와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둘째, 소규모 도서관은 독자적인 운영만으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조직과 네트워크의 큰 틀 속에서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행정 및 내부 구성원들간에 형성되어야 하겠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서 직원이라도 소규모 농어촌 도서관에 근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평생을 소규모 농어촌 도서관에만 근무해야 하는 직원도 있다. 그러나 각자의 처한 입장의 유·불리를 떠나 공공도서관 전체의 발전과 활성화를 생각해 보는 해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농어촌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등 인구 수가 적은 지역의 도서관 사서 직원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농촌, 산간, 벽지 등은 현실적으로 사서 직원이 배치되기 어려운 지역이다. 농어촌의 경우도 작은도서관은 계속 생겨나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사서가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렇게 도서관만 만들어 놓고 운영과 관리가 전문적으로 되지 않으면 도서관은 그 역할과 기능이 상실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벽지의 사서직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순회사서제도’나 ‘이동도서관 운영’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논의이다. 많은 연구에서 농어촌 도서관일수록 문화적 혜택이 적은 지역 주민을 위하여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서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용자들 중 다수는 취미·예술·문화프로그램을 수강하기를 원한다고 한다. 그러나 사서들 입장에서는 참여자 모집과 강사 섭외의 어려움 등으로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이나 내부 사서직원들 간에도 도서관에서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시각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서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독서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 찾아가는 사업과 같이 농어촌 실정에 맞는 독서관련 중앙지원사업이 더 확대 지원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 프로그램도 지역 내 다른 문화기관이나 대규모 도서관과의 기획 및 협조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획일적인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방식에 관한 논의이다. 모든 공공도서관 평가가 양적 수치화로 획일적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지 않은 소규모 농어촌 도서관 사서들은 평가에 부담을 느끼며 업무 만족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획일적인 평가방식을 벗어나 도서관 규모나 지역의 여건에 맞고 소외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그 지역에 충실한 도서관의 역할을 위한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소규모 농어촌 도서관의 활성화 운영 모델을 제시하고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점들을 제언하였다. 이러한 항목들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역마다 재정 여건과 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각기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막상 농어촌 도서관에 관한 연구를 하다보니 이것이 개별 농어촌 도서관만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전체 도서관계의 관심과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들을 통해 많은 선진국들이 도서관 네트워크 시스템을 강화하고 상호 협력하는 모습들은 우리나라 도서관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내가 근무하는 도서관, 내가 속한 조직만 편하고 문제없이 잘 돌아가면 된다는 생각은 전체 공공도서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시대의 흐름에도 맞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미미하지만 농촌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앞으로 지역 단위 소규모 도서관의 발전 가능성과 변화에 더 주목하고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준비 과정으로 이번 농어촌 도서관 연구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농어촌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과 직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또한 농어촌 도서관 사서들과 직원들도 지역 도서관이 주민의 삶의 질과 문화향상에 구심점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Long, Sarah Ann. (2005). "Regional library Systems: a tale of cooperation that grew America's public libraries. *New Library World* Vol 106, Issue 11/12, 556-558
- 김영석. (2007).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공공도서관 확충 방안 연구 : 영국의 작은 공공도서관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29-48
- 이용남. (2006).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분관 운영 체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 문헌정보학회지* 40(1). 353-372
- 이동훈. (2010). 군(君)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 분석 : 서부 경남 5개 군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조윤희. (2010). 공공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177-197
- 장엄규. (2010). 소규모 지역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남원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윤희윤. (2011).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 전략.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3(2). 53-75
- 류희경. (2012). 공공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9. 11-15
- 윤희윤. (2012). 국내·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기준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44(1). 49-71
- 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 서울모임. (2009). 유럽 도서관에서 길을 묻다. 우리교육
전국학교도서관담당사 서울모임. (2012). 북미도서관에 끌리다. 우리교육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2013). 한국도서관기준. 한국도서관협회
- Rotherham Library Home Page Retrieved June 14, 2013 from website :
<http://www.rotherham.gov.uk>
- Plano Community Library District Home Page Retrieved June 13, 2013 from website : <http://www.plano.lib.il.us/index.html>
- Mokena Community Public Library District Home Page Retrieved June 14, 2013 from website: <http://www.mokena.lib.il.us/>
- Yorkville : Toronto Public Library Home Page Retrieved July 24, 2013 from website : <http://www.torontopubliclibrary.ca/>

M • E • M • O

M • E • M • O

M • E • M • O

M • E • M • O

M • E • M • O

제50회 전국도서관대회

공공도서관 발전 및 운영 활성화 세미나

2013년 10월 일 인쇄

2013년 10월 일 발행

발행인 (사)공공도서관협의회

발행처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주 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60-1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 내

전 화 02-590-0646

팩 스 02-590-0546

인 쇄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